

배경지식과 끊어읽기

지문론 고1·2편

지은이 정성봉

퍼넌곳 제이앤유아카데미

지문론 고1·2편

배경지식과 끊어읽기 · 본책

초판 1쇄 발행	2026년 8월 14일
지은이	정성봉
펴낸이	정성봉
펴낸곳	제이앤유아카데미
기획·편집	코드유니버스 · 한땀한땀
출판등록	356-2025-000052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36
전화	010-2782-0745
전자우편	code_of_english@naver.com
ISBN	979-11-22084-32-0 (5374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앤유아카데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본문 서체는 Pretendard(SIL Open Font License 1.1)를 썼습니다.

목차

단원 **마흔여섯**이 부 **아홉**에 나뉘어 있다. 단원 하나가 **소재 하나**이고, 그 소재로 되풀이 출제된 기출 **두 편**이 그 안에 든다. 단원은 어디서
퍼도 **열두 면**이다.

PART 1 ·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UNIT 1	첫인상과 초두 효과 먼저 들어온 정보가 나중 정보의 해석을 몰들인다	11
UNIT 2	안다고 여기는 것이 행동을 정한다 믿음은 사실이 아니어도 행동을 묶는다 — 벗어남은 알아챈에서 시작한다	23
UNIT 3	주의와 기억의 선별 애초에 다 담지 못하고(주의), 담은 것도 몽개진다(기억) — 그래서 기억은 재구성이다	35
UNIT 4	주의력이라는 한정 자원 주의는 한정된 예산이다 — 멀티태스킹은 성립하지 않는다	47
UNIT 5	감각과 지각의 통념 허 지도는 틀렸다 — 맛은 시각과 예측이 함께 만든다	59
UNIT 6	위험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떠올리기 쉬운 것을 크게 보고, 통제할 수 있으면 덜 무섭다	71

PART 2 · 지식은 어떻게 서는가

UNIT 7	사회과학의 한계와 과학의 편향 사회과학의 한계는 무지가 아니고, 자연과학도 편향된다 — 어떤 지식도 순수 하지 않다	83
UNIT 8	탈레스와 리케이온 — 이성의 탄생과 제도화 이성으로 답하기 시작한 순간이 철학이고, 그 태도가 첫 대학으 로 자리 잡았다	95
UNIT 9	선택된 정체성과 도덕적 저울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에서 발견할 과제가 되었고, 도덕은 마음속 저울에서 상쇄 된다	107
UNIT 10	집단 판단 — 지혜인가 추종인가 집단지성이 되는 조건과 집단 추종이 되는 조건	119
UNIT 11	창의성은 재능이 아니다 재능이라 부르던 것이 설계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131
UNIT 12	학습의 사전 준비 — 지식 활성화와 자원 파악 가진 지식을 깨우고 필요한 자원을 미리 챙긴다 — 학습은 사 전 준비 위에 선다	143

PART 3 ·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UNIT 13	보는 눈과 예술 감상 편안함은 시대가 만들고, 감상은 실제 봄에서 시작한다 — 시대의 눈과 개인의 눈	155
----------------	--	------------

UNIT 14	음악의 진정성과 호기심의 창의성 자기를 앞세우면 나쁜 음악이 되고, 호기심이 새 음악을 낳는다	167
UNIT 15	문학은 무엇을 하는가 모호함을 견디게 하고 독자가 의미를 짓게 하는 장치	179
UNIT 16	초점과 놀라움 — 영상이 주의를 사로잡는 법 카메라가 시선을 이끌고, 놀라움이 물입을 만든다 — 영상이 주의를 다루는 두 법	191
UNIT 17	건축과 인간 공간의 설계가 인지·감정·정체성을 만든다	203
PART 4 · 나를 움직이는 법		
UNIT 18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의무가 가린 욕망과 위장된 질투 — 나를 움직이는 진짜 동기는 가려져 있다	215
UNIT 19	행동을 바꾸는 두 지렛대 밖에서는 동기가 노력을 끌어내고, 안에서는 반복된 심상이 행동을 굳힌다	227
UNIT 20	시간은 왜 늘 모자라나 얼마나 걸릴지 알고, 쉬어야 더 해낸다 — 더 오래가 아니라 더 정확히	239
UNIT 21	칭찬과 한계가 아이를 기르는 법 칭찬이 자아상을 만들고 한계가 안정을 준다 — 부모의 말과 경계가 아이를 빛낸다	251
UNIT 22	아이는 어떻게 배우나 — 소리의 통계와 행동의 결과 통계로 소리를 가르고, 관계 속에서 뜻을 얻는다	263
PART 5 · 사람을 설명하는 방식		
UNIT 23	교환의 상호의존과 소비자 데이터 소비자는 교환으로 얽혀 있고, 그 소비자가 데이터가 된다	275
UNIT 24	기술을 막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불편해하는 본성이 기술을 막고, 스마트한 도구가 그것을 푼다	287
UNIT 25	마케팅과 광고의 전환 노출을 얻으려 싸우던 광고가 사회적 선으로 옮겨 간다	299
UNIT 26	선택과 인지부조화 행동이 믿음을 만들고 거절이 선호를 뒤집는다 — 내면은 나중에 정해진다	311
UNIT 27	리더십과 조직 문화 통제감을 주면 더 잘하고, 포용이 더 나은 답을 낳는다	323
UNIT 28	관광의 탄생과 기술적 전환 교통이 관광을 낳았고(철도·항공), ICT 가 그것을 다시 바꾼다	335
PART 6 · 사람 사이		
UNIT 29	나는 남을 통해 정해진다 관계는 협력이자 경쟁이고, 자아는 비교로 형성된다 — 나는 남을 거쳐 정해진다	347
UNIT 30	디지털 연결의 두 얼굴 연결이 영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접근을 가른다	359

UNIT 31	감정은 어떻게 읽히는가 표면만으로는 알 수 없다 — 맥락과 거리	371
UNIT 32	결에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 통제하는 청자가 이야기를 빼앗고, 신뢰가 이야기를 세운다	383
UNIT 33	우정의 정의와 충성의 시험 내 우정의 정의가 나를 정하고, 진짜 충성은 역경에서 드러난다	395
UNIT 34	스포츠를 보는 눈 밖에선 누구나 혼수하고, 클럽은 서로 상호의존한다 — 겉보기와 다른 구조가 있다	407

PART 7 · 문화와 제도

UNIT 35	문화는 무엇을 하는가 의식적 도구이자, 본인은 못 보는 무의식적 세계관의 바탕	419
UNIT 36	인간 정신의 진화와 외부 에너지의 이용 부족 간 경쟁을 뇌로, 외부 에너지를 문명으로 — 있는 것을 끌어다 복잡성을 키운다	431
UNIT 37	도시·이동성과 공공정책 이동은 인간의 근본이고, 문제는 재정의하면 다르게 풀린다	443

PART 8 · 생명과 진화

UNIT 38	인간은 정말 특별한가 인간은 언어로 동물을 밀어내지만 원숭이도 돈을 배운다 — 우리가 그은 경계를 다시 본다	455
UNIT 39	타고난 것과 배운 것 본능은 훈련의 도구가 되고, 편향은 어리석어 보여도 이유가 있다	467
UNIT 40	지능은 유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환경이 지능을 빛내데도 교실은 여전히 타고난 지능을 믿고 낙인찍는다	479
UNIT 41	무리 행동 — 지시 없이 생기는 질서 보이는 결과로 서로 따르고, 중앙 없이 집단지성이 생긴다	491
UNIT 42	실내 생태계의 진화와 면역의 기억 실내 환경이 종을 진화시키고, 면역계는 싸우고 기억한다 — 생명은 환경에 맞춘다	503
UNIT 43	동물 행동과 반려 예측 가능한 환경이 통제감을 주고, 개는 스스로 앞을 그린다	515
UNIT 44	음식·소화와 통념 결핍 시대에 맞춰진 본능이 풍요 시대에 어긋난다	527

PART 9 · 지구와 먹거리

UNIT 45	농업·작물다양성과 회복력 양분 넘치는 밭이 잡초를 부르고 소수 품종 의존이 기근을 부른다 — 회복력은 다양성에서 온다	539
UNIT 46	규모의 문제 — 재현의 위기와 환경 부하 너무 거대하면 이야기가 못 되고, 영향은 이미 전 지구적이다	551

여기 적힌 번호는 책 전체를 1부터 센 면수다. 지면 아래에 찍힌 쪽번호는 그것과 다르다 — 단원마다 1에서 12 까지 돌고 다시 1로 돌아간다. 한 단원이 열두 면으로 닫히는 책이라 그렇게 매겼다. 찾을 때는 **단원 번호**로 찾는 것이 빠르다.

머리말

문장은 다 읽었다. 낱말도 알고 구조도 보인다. 그런데 **그 한국어가 무슨 말인지가 안 선다**. 지문 하나를 통째로 우리말로 옮겨 놓고도 「그래서 뭐라는 거지」가 남는 자리가 있다. 이 책은 그 자리를 다룬다.

그것은 **글이 설명해 주지 않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을 몰라서 생긴다. 지문은 그 전제를 알려 주지 않는다. 알고 들어 가야 읽힌다. 그것을 배경지식 부담이라 부른다.

그러면 무엇부터 알아야 하는가. 기출의 배경지식 서술 1,899건을 이론·용어·역사·대비 여덟 갈래로 갈라 오답률을 재 보았다. **여덟 갈래가 전부 60.4%에서 61.2% 안에 들어 있었다. 최대 차이 0.8%p**. 어떤 종류의 배경지식이냐는 난 이도를 설명하지 못한다. 아느냐 모르느냐만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배경지식을 이론편·역사편·용어편으로 나누지 않는다.

기준은 하나로 잡았다 — **되풀이 나오는 것**. 기출 지문 3,622편을 뜻으로 묶어, 여러 해에 걸쳐 같은 자리에 다시 나타나는 소재 50딩이를 골랐다. 그 50딩이는 **전부 세 해 이상에 걸쳐 있고, 전부 고1·고2·고3에 모두 나타난다**. 우연히 한 번 나온 소재가 아니라 십 년 넘게 반복되는 고정 레퍼토리가 실제로 있다. 그 위에 46단원을 세우고, 단원마다 대표 지문 두 편을 붙였다.

지문은 **전량 학력평가·모의평가·수능 기출 원문**이다.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앞서 낸 『읽기의 방향』과 『빈순삽함』에 이미 실린 224편은 후보에서 뺐으므로, 그 책들을 본 학생도 같은 글을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 책이 하지 않는 것 하나. 유형별 요령을 주지 않는다. 문항 풀이의 근거는 반드시 그 지문 안에 있다. 지문 밖에서 끌어온 요령으로 답을 맞히는 법은 여기 없다.

둘. 문장을 문법 용어로 해부하지 않는다. 구문 경계로 자른 조각은 틀리지는 않아도 쓸모가 없다. 학생이 못 읽는 까닭은 조각이 안 나뉘어서가 아니라 **주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다. 그래서 조각마다 문법 이름 대신 **글에서 하는 일**을 붙였다.

셋. 지문 전문을 끊어 주지 않는다. 그 단원에서 가르칠 문장만 고른다.

넷. 기출 전부를 덮지 않는다. 되풀이 나오는 소재가 기출의 43%다. 나머지 57%는 한 번 나오고 마는 소재라 가르칠 값이 없다고 보았다.

소재를 매번 바꾸면 학생은 매번 처음부터 시작한다. 한 단원 안에서는 **소재를 붙들어 두고 문장만 어려워진다**. 그것이 이 책의 유일한 장치다.

아는 소재가 늘면, 모르는 지문이 줄어든다.

지은이

두 판본이 갈리는 까닭

이 책은 **고1·2판**과 **고3판** 두 권으로 나온다. 학년으로 갈랐는데, 소재로 가른 것이 아니다. 그 까닭을 먼저 밝힌다.

소재는 학년으로 갈리지 않는다

되풀이 나오는 소재 50등이가 **하나도 빠짐없이 고1·고2·고3에 모두 나타난다**.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학년끼리 거의 같다 — 심리 35.6% · 35.5% · 32.1%, 철학 10.8% · 11.5% · 14.9%. **「고1용 배경지식」**이나 **「고3용 배경지식」**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목차를 짜면 근거 없는 책이 된다.

갈리는 것은 그 소재를 말하는 문장이다

같은 기출을 학년별로 재 보면 이렇다.

재어 본 것	고1	고3	차이
지문당 문장 수	8.1	8.3	거의 같다
문장당 낱말 수	19.2	21.4	+11%
구문 부하	0.436	0.482	+11%
고난도 어휘 비율	13.8%	17.4%	+26%
최상위 어휘 비율	0.56%	1.09%	거의 두 배

분량은 그대로인데 문장이 길어지고 낱말이 어려워진다. 학년 축의 정체는 이것뿐이다 — 같은 배경지식을 요구하되, 고3은 그것을 더 압축된 문장과 더 어려운 단어로 말한다.

그래서 단원은 소재로, 판본은 학년으로

46단원의 이름도 차례도 번호도 **두 판본이 똑같다**. 다른 것은 그 자리에 놓인 지문뿐이다.

	고1·2판 — 이 책	고3판
단원	46 · 이름과 차례가 같다	46 · 같다
지문	92편 — 고1 47 · 고2 45	92편 — 고3 92
학년 계단	대개 고1(A) → 고2(B)	없다 — 둘 다 고3
단원 최저 정답률	평균 44.5% (26~61)	평균 41.2% (17~59)

그리고 두 판본에 실린 지문 184편은 **한 편도 겹치지 않는다**. 두 권을 다 보아도 같은 글을 두 번 읽는 일이 없다. 이 책으로 소재를 익힌 학생이 고3판으로 넘어가면, **아는 소재를 더 압축된 문장으로 다시 만난다**. 그때 남는 말은 하나다 — 내용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문장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 책을 쓰는 법

어느 단원을 펴도 **같은 열두 면이 같은 차례로** 돈다. 그래서 단원을 건너뛰어 펴도 길을 잃지 않는다.

한 단원 열두 면

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1	시작면 — 이 단원이 맡은 소재와 두 지문을 견주어 보여 준다
2	배경지식 — 두 지문이 설명 없이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
3	주제 어휘망 — 그 소재의 낱말들이 서로 어떻게 얹히는가
4	지문 A 원문과 문항 — 기출 그대로 먼저 본다
5·6	지문 A 끊어읽기 — 가르칠 문장만 골라 조각마다 하는 일을 붙였다
7	지문 A 어휘 — 이 지문을 세우는 낱말
8	지문 B 원문과 문항
9·10	지문 B 끊어읽기
11	지문 B 어휘
12	다시 만나기 — 이 소재가 어느 해에 또 나왔는지 짚는다

읽는 차례

- ① 2면과 3면을 먼저 읽는다. 배경지식과 어휘망은 지문을 풀기 전에 채워 넣는 것이다.
- ② 4면(그리고 8면)의 지문을 **스스로 먼저 본다**. 끊어읽기가 뒤에 있어도 눈으로 훑치지 않는다.
- ③ 끊어읽기 면으로 되돌아와 같은 지문을 다시 읽는다. 틀렸다면 **어느 조각을 잘못 잡았는지**부터 적는다.
- ④ 12면으로 닫는다. 그 소재가 다시 나올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이 단원의 마무리다.

끊어읽기와 어휘

끊어읽기의 다섯 이름표

조각마다 문법 이름 대신 **글에서 하는 일**을 붙였다. 이름표는 다섯뿐이다. 늘리면 학생이 이름표를 외우게 된다.

이름표	그 조각이 하는 일
무엇이	이 문장의 진짜 주어. 여기만 틀리면 문장이 통째로 뒤집힌다
어떻다	본동사와 그 보충
언제 · 왜	지위도 뼈대가 남는 자리
그게 뭔데	앞말을 다시 설명하는 삽입 · 동격 · 관계절
뒤집기	논지가 꺾이는 자리. 이 책이 따로 세운 이름표다

이름표 안의 문구는 문장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섯 갈래가 다섯이라는 것만 같다**. 배경지식이 필요한 진짜 까닭은 대개 글이 통념을 뒤집기 때문이고, 학생은 뒤집는 지점을 놓쳐 정반대로 읽는다. 그래서 뒤집기를 따로 세웠다.

어휘는 두 층으로 준다

주제 어휘망은 뜻으로 주지 않고 **관계로** 준다. 그 낱말들은 대개 쉽다. 뜻을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얹히는지를 몰라서 글이 안 서기 때문이다. **지문 결정 어휘**는 다르다. 그 지문의 정답률을 실제로 끌어내린 낱말만 골라 따로 준다.

두 층을 한 층으로 합치면 실패한다. 어휘망의 낱말은 뜻을 몰라서 틀리는 낱말이 아니고, 결정 어휘는 관계로 쥐서 될 낱말이 아니다.

먼저·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판단과 행동을 물들인다.

BEFORE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믿는다. 실험 지문이 나오면 숫자·절차를 따라가느라 무엇을 보여주려는 실험인지 놓친다.

AFTER

두 실험은 “나도 모르게 물든다”를 보여 준다. 먼저 본 성과가 지능 판단을 좌우하고(지문 A · 초두 효과), 스쳐 본 단어가 걸음걸이를 바꾼다(지문 B · 점화 효과). 판단도 행동도 “앞·바깥의 입력”에 물든다.

들어가기 왜 이 단원이 고1·2편의 첫머리인가

이 PART는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룬다. 그 출발점이 “나는 정보를 다 모아 스스로 판단한다”는 믿음을 깨는 것이다.

지문 A는 초두 효과다 — 같은 개수를 맞춰도 먼저 잘한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인다. 먼저 들어온 정보가 나중 정보의 해석을 물들인다. 지문 B는 점화 효과다 — 언어 시험인 줄 알고 ‘노인’ 관련 단어를 다룬 학생들이, 시험이 끝난 뒤 실제로 더 느리게 걸었다. 스쳐 지나간 자극이 행동을 물들인다.

두 지문의 유형이 같다 — 둘 다 요약문 완성이다. 실험 하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훈련을, 판단(A)과 행동(B) 두 사례로 한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19.3 고1 학평 · 요약문	2019.11 고2 학평 · 요약문
정답률	43%	63%
무엇에 물드나	판단 — 더 똑똑하다고 평가	행동 — 더 느리게 걷다
무엇이 물들이나	먼저 본 성과(순서)	스쳐 본 단어(노출)
열쇠 표현	earlier · discounted	exposed to · corresponding

난이도가 학년순이 아니다 고1 지문(A)이 고2 지문(B)보다 어렵다(43% vs 63%). A는 양(개수)과 순서를 갈라내야 하고, B는 실험의 반전(언어 시험이 아니었다)만 잡으면 풀린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초두 효과 (primacy effect) — 지문 A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 정보보다 인상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의 심리학적 이름이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순서다. 정보의 개수가 같아도 어느 것이 먼저 왔느냐로 결론이 갈린다. 한번 인상이 서면 반대 증거는 “운 탓”으로 깎여 무시된다(확증 편향).

개념 2 점화 효과 (priming) — 지문 B

먼저 접한 자극이, 의식하지 못한 채 이후의 판단·행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 초두 효과가 “먼저 온 정보 → 판단”이라면, 점화는 “스쳐 본 자극 → 행동”이다.

‘노인’ 관련 단어(old·lonely·wrinkled)에 노출된다

→ 본인은 언어 시험인 줄 안다(의식 못 함)

→ 그런데 실제로 40% 더 느리게 걷는다

존 바그(John Bargh)의 1996년 고전 실험이다. “노인” 개념이 점화되자 몸이 그에 맞춰 움직였다 — 자세까지 구부정해졌다. 바깥 자극이 행동을 물들인 것.

× 우리가 믿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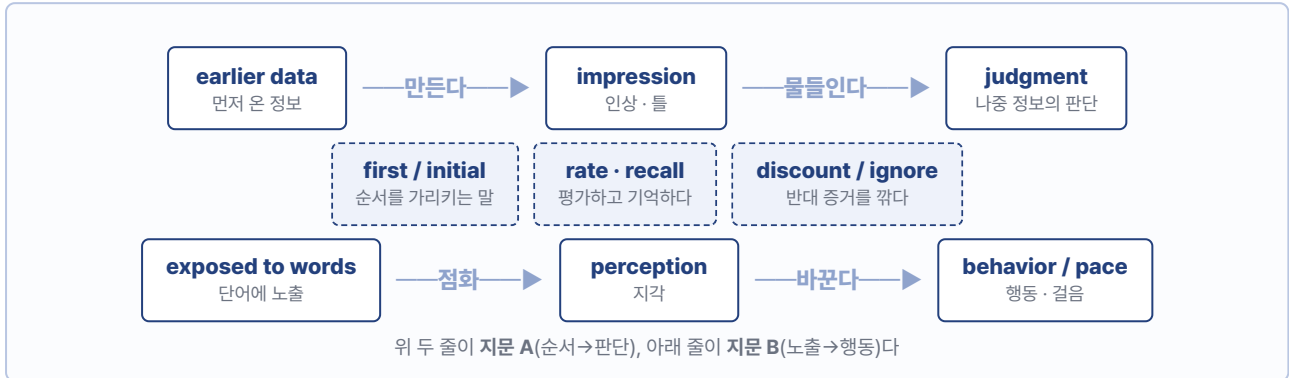
○ 실험이 보여준 나

정보를 다 모은 뒤 스스로 판단한다	먼저 온 정보로 틀을 만들고 나머지를 거기 맞춘다 (A)
내 행동은 내 의지로 정한다	스쳐 본 자극이 나도 모르게 행동을 바꾼다 (B)
반대 증거가 나오면 생각을 고친다	반대 증거를 다른 원인 탓으로 돌려 무시한다 (A)

두 개념의 공통 뿌리 — “의식하지 못하는 영향.” A는 순서가, B는 노출이, 우리가 “스스로 했다”고 믿는 판단·행동을 먼저 물들여 둔다. 둘 다 요약문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 그게 이 단원의 목표다.

1 · 주제 어휘망 — 실험을 읽는 두 갈래 말

먼저 인지 실험 지문의 어휘는 **두 갈래**다. 하나는 **실험 장치**를 말하는 말 (subject · condition · expose), 다른 하나는 **마음·행동**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말 (impression · discount · pace). 무엇이 관찰이고 무엇이 해석인지를 가른다.



실험 장치를 말하는 어휘 — 관찰된 사실

subject 실험 대상자 · **experiment** 실험 · **group** 집단 · **observe** 관찰하다 · **the first / second half** 전반부·후반부 · **undergraduate** 학부생 · **be exposed to ~** ~에 노출되다 · **coherent sentence** 말이 되는 문장 · **external factor** 외부 요인

마음·행동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어휘 — 해석

form an impression 인상을 형성하다 · **rate A as B** A를 B로 평가하다 · **recall** 기억해내다 · **discount** 깎아내리다, 무시하다 · **influence / affect** 영향을 주다 · **perception** 지각 · **behavior** 행동 · **pace** 걸음 속도 · **posture** 자세 · **corresponding to ~** ~에 상응하는

이 단원의 열쇠 구조 두 지문 모두 “조건은 같게, 하나만 다르게”다. A는 정답 개수를 같게 두고 순서만 바꿨고, B는 같은 실험에서 단어의 종류만(노인 vs 무작위) 바꿨다. “무엇을 통제하고 무엇을 바꿨나”만 잡으면 요약문 (A)가 보인다.

2 · 지문 A — 순서만 바꿨더니 평가가 같았다

2019.3 고1 학평 40번 · 요약문 완성

정답률 43%

6문장 · 평균 25토큰

In one experiment, subjects observed a person solve 30 multiple-choice problems. In all cases, 15 of the problems were solved correctly. One group of subjects saw the person solve more problems correctly **in the first half** and another group saw the person solve more problems correctly **in the second half**. The group that saw the person perform better on **the initial examples** rated the person as more intelligent and recalled that he had solved more problems correctly. Th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is that one group formed the opinion that the person was intelligent **on the initial set of data**, while the other group formed the opposite opinion. Once this opinion is formed, when **opposing evidence** is presented it can be **discounted** by attributing later performance to some other cause such as chance or problem difficulty.

* subject: 실험 대상자

요약문 People tend to form an opinion based on __(A)___ data, and when evidence against the opinion is presented, it is likely to be __(B)___.

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more (B) accepted ② (A) more (B) tested ③ (A) earlier (B) ignored
 ④ (A) earlier (B) accepted ⑤ (A) easier (B) ignored

함정 (A)에 **more**를 넣고 싶어진다. 지문에 **more problems correctly**가 세 번이나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이 통제된 것이 바로 그 양이다 — **In all cases, 15 of the problems were solved correctly.** 양은 같았고 순서만 달랐다. 그러니 (A)는 **earlier**다.

오답은 왜 그럴듯한가

선택지	왜 끌리는가 · 왜 아닌가
①	more / accepted — 둘 다 틀렸다. 양은 통제됐고, 반대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향 뒤집힘
②	more / tested — tested (검증된)는 지문에 근거가 없다. 지문이 말한 건 검증이 아니라 무시다. 초점 어긋남
④	earlier / accepted — (A)는 맞고 (B)가 틀렸다. 가장 위험한 오답이다. 마지막 문장의 discounted 를 놓치면 여기서 멈춘다. 방향 뒤집힘
⑤	easier / ignored — (B)는 맞고 (A)가 틀렸다. 마지막에 나온 problem difficulty 에 끌린 것인데, 그건 핑곗거리로 언급된 말이지 실험 조건이 아니다. 초점 어긋남

③와 ⑥가 각각 절반씩 맞다. 요약문 유형은 (A)·(B)를 **따로 판단하고 교차 확인**해야 한다. 한쪽만 보고 고르면 반드시 걸린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② 15토큰 + 12토큰 · 실험 조건

어디서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무엇이 subjects
실험 대상자들은

어떻다 observed a person solve 30 multiple-choice problems.
한 사람이 30개의 선다형 문제를 푸는 것을 관찰했다.

어떻다 In all cases, 15 of the problems were solved correctly.
모든 경우에 15개가 정확히 풀렸다. ← 여기가 통제 조건

놓치면 끝 In all cases — 이 세 단어가 실험 전체를 규정한다. 정답 개수는 같았다. 이걸 잡아야 (A)에 more가 못 들어간다는 걸 안다.

③ 30토큰 · 조작 변인

무엇이 One group of subjects
한 집단은

어떻다 saw the person solve more problems correctly in the first half
그 사람이 전반부에 더 많이 맞는 것을 보았고

무엇이 and another group
다른 집단은

어떻다 saw the person solve more problems correctly in the second half.
그 사람이 후반부에 더 많이 맞는 것을 보았다.

구조 두 덩어리가 단어 하나만 빼고 똑같다 — first half ↔ second half. 같은 문장을 두 번 쓰고 한 곳만 바꾼다. 그 한 곳이 실험이 묻는 것이다.

④ 28토큰 · parsing_core 0.93 — 이 지문 최고 부하

무엇이 The group that saw the person perform better on the initial examples
초반 예제에서 더 잘하는 것을 본 집단은

어떻다 rated the person as more intelligent
그 사람을 더 똑똑하다고 평가했고

어떻다 and recalled that he had solved more problems correctly.
더 많이 맞혔다고 기억했다.

두 개다 술어가 rated와 recalled 둘이다. 실제로는 15개로 같았는데 더 많이 맞혔다고 기억했다 — 평가만이 아니라 기억까지 같았다.

⑤ 33토큰 · 설명

무엇이	Th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은
어떻다	is that one group formed the opinion that the person was intelligent on the initial set of data , 한 집단이 초기 정보에서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의견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뒤집기	while the other group formed the opposite opinion. 반면 다른 집단은 반대 의견을 형성했다.

while 여기서 **while**은 “~하는 동안”이 아니라 “반면에”다. 두 집단을 대조하는 자리이므로 시간으로 읽으면 문장이 안 선다.

⑥ 30토큰 · 확증 편향 **요약문 (B)**

언제	Once this opinion is formed, 일단 이 의견이 형성되면
언제	when opposing evidence is presented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
무엇이	it 그것(= 반대 증거)은
어떻다	can be discounted 깎여 무시될 수 있다 ← 요약문 (B) = ignored
어떻게	by attributing later performance to some other cause such as chance or problem difficulty. 나중 수행을 우연이나 문제 난이도 같은 다른 원인 탓으로 돌림으로써.

지시 **it**은 **opposing evidence**다. 앞의 **this opinion**으로 잡으면 정반대가 된다 — “의견이 무시된다”가 되어버린다. **무시되는** 건 증거지 의견이 아니다.

정체 정답률 43%가 여기서 나온다

- ① 양과 순서를 갈라야 한다. **more problems correctly**가 세 번 나오는데, 실험이 통제된 것이 바로 그 양이다(**In all cases, 15**). (A)는 **earlier**다.
- ② 마지막 문장이 (B)를 결정한다. **discounted = ignored**. 여기까지 안 읽고 ④(accepted)를 고르면 정확히 반대로 답한다.
- ③ **problem difficulty**는 실험 조건이 아니라 핑곗거리로 언급된 말이다. 이걸 조건으로 읽으면 ⑤(easier)에 걸린다.

한 줄로 같은 개수를 맞췄는데, 먼저 맞힌 사람이 더 똑똑해 보였고, 나중의 실수는 운 탓으로 돌려졌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1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discount	6	깎아내리다	'할인하다'가 아니다. 증거를 깎아 무시하다 ← 요약문 (B)
initial	6	처음의, 초기의	the initial examples / set of data — 이 단원의 열쇠말
intelligent	6	똑똑한	㉔의 판단 결과 — 순서가 만든 평가
attribute	6	~의 탓으로 돌리다	attribute A to B — 확증 편향이 작동하는 방식
rate	6	평가하다	'비율·요금'이 아니다. rate A as B = A를 B로 평가하다
opposite	6	반대의	㉔ — 두 집단이 정반대 의견을 형성했다
perform	6	수행하다	perform better / later performance
multiple	6	다수의	multiple-choice 선다형
recall	5	기억해내다	㉔ — 평가만이 아니라 기억까지 걸렸다
ignore	5	무시하다	요약문 (B)의 정답
explanation	5	설명	㉔의 주어 — 실험의 해석
correctly	5	정확하게	4회 반복 — 통제된 변인을 가리킨다

코퍼스 미등재 — 사전 없이는 못 읽는 것

subject 실험 대상자('주제·과목' 아님) · data/datum 자료 · chance 우연('기회' 아님) · the first half / the second half 전반부·후반부

함정 이 지문의 위험한 단어는 전부 쉬운 단어다

discount · rate · subject · chance — 넷 다 중학교에서 배운 단어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뜻이 아닌 쪽으로 쓰인다.

discount → 할인하다 ☒ 깎아 무시하다 ☐

rate → 비율·요금 ☒ 평가하다 ☐

subject → 주제·과목 ☒ 실험 대상자 ☐

chance → 기회 ☒ 우연 ☐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틀리는 지문의 전형이다. 인지 실험 지문에서는 이 넷이 거의 항상 이 뜻으로 나온다. 묶어서 외운다.

3 · 지문 B — 스쳐 본 단어가 걸음을 바꿨다

2019.11 고2 학평 28번 · 요약문 완성

정답률 63%

10문장 · 평균 20토큰

Psychologist John Bargh did an experiment showing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 can b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He told a bunch of healthy undergraduates that he was **testing their language abilities**. He presented them with a list of words and asked them to **create a coherent sentence** from it. One of the lists was "DOWN SAT LONELY THE MAN WRINKLED BITTERLY THE WITH FACE OLD". "Bitterly, the lonely old man with the wrinkled face sat down" is one possible solution. **But this was no linguistics test**. Bargh was interested in **how long it took the students to leave the lab and walk down the hall** after they were **exposed to the words**. What he found was extraordinary. Those students who had been exposed to an **"elderly" mix of words** took **almost 40 percent longer to walk down the hall** than those who had been exposed to "random" words. Some students even walked with their **shoulders bent forwards, dragging their feet as they left**, as if they were 50 years older than they actually were.

요약문 In an experiment about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__(A)__** to words related to "elderly" showed pace, and some of them even showed posture, **__(B)__** to what the words suggested.

28.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exposure (B) corresponding ② (A) resistance (B) irrelevant ③ (A) exposure (B) contrary
 ④ (A) resistance (B) similar ⑤ (A) preference (B) comparable

해정 (A) **resistance**(저항)에 끌릴 수 있다 — "외부 영향에 맞선다"는 익숙한 그림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은 정반대다. 학생들은 단어에 **노출(exposure)**됐고, **그대로 물들었다**. (B)는 자세가 단어 뜻과 **상응(corresponding)**했다 — **contrary(반대)**가 아니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15토큰 · 주제 선언 요약문 (A)

바그의 실험은

Psychologist John Bargh did an experiment showing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 can b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심리학자 존 바그는 인간의 지각과 행동이 외부 요인에 영향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실험을 했다.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 주제이자 (A)의 근거 첫 문장이 결론을 미리 말한다 — “지각·행동이 외부 요인에 영향받는다.” 요약문 (A)의 **exposure(노출)**가 곧 이 “외부 요인”이다.
나머지 문장은 이 결론을 증명하는 실험 절차다.

②③ 위장된 실험 절차

이렇게 말했다

He told undergraduates that he was **testing their language abilities**, and asked them to **create a coherent sentence** from a list of words.

그는 학부생들에게 언어 능력을 시험한다 하고, 단어 목록으로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라고 했다.

예를 들면

One list was “DOWN SAT LONELY ... OLD”. “Bitterly, the lonely old man ... sat down” is one possible solution.

한 목록은 “DOWN SAT LONELY ... OLD” — “Bitterly, the lonely old man ... sat down”이 한 예다.

testing their language abilities — 미끼 “언어 능력 시험”은 표면상의 명분(cover story)이다. 참가자는 진짜 목적을 모른다 — 이 “의식 못 함”이 점화 실험의 핵심 장치다.

목록 단어들(lonely-old-wrinkled)이 모두 ‘노인’을 가리킨다 — 다음 문장에서 반전된다.

④ 실험의 반전 전환

그러나

But this was no linguistics test. Bargh was interested in **how long it took the students to walk down the hall** after they were **exposed to the words**.

그러나 이건 언어 시험이 아니었다. 바그의 관심은 단어에 노출된 뒤 학생들이 복도를 걷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But this was no ~ — 진짜 목적의 폭로 “no linguistics test(언어 시험이 아니다)”가 실험의 정체를 뒤집어 보여 준다 — 측정한 건 언어 능력이 아니라 “걷는 속도”였다.

exposed to the words(단어에 노출)가 요약문 (A) **exposure**의 원문 근거다.

⑤ 결과 요약문 (A) 확정

놀라웠다

What he found was **extraordinary**.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다.

노인 단어에 노출된 학생은

Those exposed to an “**elderly**” mix of words took **almost 40 percent longer** to walk than those exposed to “random” words.

‘노인’ 관련 단어에 노출된 학생은 ‘무작위’ 단어 집단보다 거의 40% 더 오래 걸었다.

elderly words → 40% longer — 노출이 행동을 바꿨다

바뀐 변인은 단어의 종류(노인 vs 무작위)뿐이다. 그런데 걷는 속도가 같았다 — 노출(exposure)이 행동을 물들였다는 증거다.

A의 “같은 개수, 순서만 다름”처럼, B도 “같은 실험, 단어만 다름”이다.

⑥ 빼기 요약문 (B)

일부 학생은

Some even walked with their **shoulders bent forwards, dragging their feet**, as if they were **50 years older** than they actually were.

일부는 어깨를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끌며, 마치 실제보다 50살 더 든 것처럼 걸었다.

posture corresponding to the words — (B)의 근거

속도뿐 아니라 자세(posture)까지 ‘노인’ 단어에 상응(corresponding)했다 — 요약문 (B)가 corresponding인 이유다.

contrary(반대)·irrelevant(무관)가 아니다 — 단어 뜻과 몸이 같은 방향으로 갔다.

정체 고2 정답률 63% — 반전만 잡으면 쉽다

A(43%)보다 쉬운 이유는 실험의 반전이 한 문장에 대놓고 나오기 때문이다 — “But this was no linguistics test.”

(A) — 학생들은 단어에 노출(exposure)됐다(≠ 저항 resistance)

(B) — 속도·자세가 단어 뜻에 상응(corresponding)했다(≠ contrary)

규칙 하나 — 요약문의 두 빈칸은 “실험이 무엇을 했고(노출) 무엇이 나왔나(상응)”로 갈린다. 외부 자극이 그대로 행동에 새겨졌다는 방향만 잡으면 ①이 확정된다.

한 줄로 ‘노인’ 단어를 스쳐 본 것만으로,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더 느리고 구부정하게 걸었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2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의 어휘는 “지각·행동”의 말이다 — **perception · behavior · expose**. 특히 **be exposed to ~ (~에 노출되다)**가 요약문 (A)의 근거이자 점화의 열쇠 표현이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expose	6	노출시키다	be exposed to the words ← 요약문 (A) exposure
perception	6	지각, 인식	①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 지각과 행동
behavior	7	행동	① 외부 요인에 영향받는 대상
external	6	외부의	① external factors 외부 요인
coherent	5	일관된, 말이 되는	③ a coherent sentence 말이 되는 문장
extraordinary	5	놀라운, 비범한	⑤ what he found was extraordinary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a bunch of ~ 한 무리의 ~ · **undergraduate** 학부생 · **create a coherent sentence**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다 · **no linguistics test** 언어 시험이 아닌 · **walk down the hall** 복도를 걸어가다 · **an “elderly” mix of words** ‘노인’ 관련 단어들 · **shoulders bent forwards** 어깨를 앞으로 구부린 · **drag one's feet** 발을 끌다

합정 be exposed to — “노출되다 = 당하는 것”

요약문 (A)의 정답 **exposure**는 **be exposed to ~**에서 온다.

exposure(노출) — 자극을 받는 것 → 실험이 실제로 한 일 ☒

resistance(저항) — 자극에 맞서는 것 → 지문에 없음 ☐

preference(선호) — 자극을 고르는 것 → 지문에 없음 ☐

점화 실험의 핵심은 “당한다(노출)”이다 — 참가자는 **고르지도, 저항하지도** 않고 그저 단어를 **스쳐 봤을** 뿐인데 행동이 바뀌었다. “외부 자극을 받았다”는 수동의 방향을 잡으면 (A)는 exposure로 확정된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실험을 겹쳐 보면 — 나도 모르게 묻는다

	지문 A · 초두 효과	지문 B · 점화 효과
무엇이 물들이나	먼저 본 성과(순서)	스쳐 본 단어(노출)
무엇이 물드나	판단 — 더 똑똑하다 평가	행동 — 더 느리게 걸음
통제 vs 조작	개수 같음 / 순서만 다름	실험 같음 / 단어만 다름
요약문 열쇠	(A) earlier · (B) ignored	(A) exposure · (B) corresponding

A는 “먼저 온 정보가 판단을”, B는 “스쳐 본 자극이 행동을” 물들인다. 둘 다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믿음을 깬다 — 앞·바깥의 입력이 의식 밖에서 먼저 방향을 정해 둔다. 지문을 읽을 때도 똑같다: 첫 문단이 만든 틀에 갇히면 뒤집는 신호를 놓친다.

근거 이 소재는 우연이 아니다

첫인상·초두 효과는 인지·심리 지문의 단골 뼈대다 — “먼저/바깥의 것이 이후를 물들인다”는 논리가 판단·행동·기억·소비 등 여러 소재로 변주된다.

고1·2편의 출발점으로 이 단원을 둔 이유 — 실험 지문의 기본 골격(통제·조작·결과·해석)과 요약문 압축을 한 번에 익히기 때문이다. 이후 단원의 실험 지문이 훨씬 수월해진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들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초두·판단의 말	earlier / initial · form an opinion · rate as · discount / ignore
점화·행동의 말	be exposed to · perception · behavior · corresponding to · pace
실험의 골격	통제(In all cases) · 조작(one group ... another) · 반전(But this was no ~)
문항의 표지	요약문 = 통제·조작을 (A), 결과·해석을 (B)로 압축

✓ 양과 순서를 갈라라 — 개수가 같으면 (A)는 more가 아니라 earlier.

✓ 마지막 문장이 (B)를 정한다 — discounted = ignored.

✓ “But this was no ~”는 실험의 진짜 목적을 폭로하는 신호다.

✓ be exposed to = 노출(당함) — 저항·선택이 아니라 수동의 방향.

다음 단원 예고 — 고1·2편 UNIT 2 ‘안다고 여기는 것이 행동을 정한다’로 이어진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거르는가를 본다.

평평한 지구를 믿던 동안 아무도 멀리 가지 못했다.

BEFORE

“편견을 버려라”로 읽고 넘어간다. 그런데 **순서 지문**이 나오면 **내용을 이해하려다** 시간을 다 쓴다. 어느 문단이 먼저 인지는 끝내 못 정한다.

AFTER

두 지문 다 **순서 문항**이다. 답은 **내용이 아니라 “표지”**가 정한다 — **This-Then-If it did**처럼 **앞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말**을 이으면 문단 배열이 저절로 나온다.

들어가기 UNIT 1에서 여기로

UNIT 1에서 **초두 효과·점화**를 봤다 — 앞·바깥의 입력이 판단과 행동을 물들인다. 이 단원은 그 이야기를 **“가정과 편향”**으로 잇는다.

지문 A는 **거짓 가정**의 이야기다 —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동안엔 아무도 멀리 가지 않았다. **“등글다”**는 **사실** 하 나가 밝혀지자 인류가 대양을 건너기 시작했다. **믿는 것이 곧 행동의 한계**였다. **지문 B**는 **인지 편향**을 다루는 **절차**다 — 편향은 못 없애니, **알아채고 → 전략을 고르고 → 실행하고 → 확인한다**.

두 지문 모두 **“순서(paragraph_order)”**다. 표지로 문단을 잇는 **법**을, 서사(A)와 절차(B) 두 종류로 익힌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20.9 고1 학평 · 순서	2020.6 고2 학평 · 순서
정답률	60%	41%
글의 모양	서사 — 거짓 믿음 → 정정 → 도약	절차 — 편향 대응 5단계
순서 표지	This perceived truth · Upon this	Then · After · If it did
한 줄 주제	믿음이 행동을 가둔다	편향은 못 없애니 다룬다

난이도가 학년순이 아니다 **고1(A) 60% vs 고2(B) 41%**. A는 **시간 흐름(믿음→정정→결과)**이 뚜렷해 쉽고, B는 **절차의 표지(Then-After-If)**를 세어야 풀린다. 둘 다 **“표지”**가 열쇠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거짓 가정 (false assumption) — 지문 A

“안다고 여기는 것”이 곧 행동의 테두리가 된다. 지문 A의 첫 문장이 이걸 못 박는다 — **We make decisions based on what we think we know.**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음 → 끝에서 떨어질까 두려움 → 탐험 안 함

“둥글다”가 밝혀짐 → 대양을 건너기 시작 → 무역·수학 교류

→ 거짓 가정 하나를 바로잡자 인류가 앞으로 나아갔다

* 이는 지문 A가 쓰는 논증 예시다 — 실제로는 중세 지식인 다수가 지구가 둥글을 알았으므로 역사적 사실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핵심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전제다. 잘못된 전제 위에선 아무리 애써도 테두리 안에 갇힌다. 전제를 바꾸는 것이 판을 바꾼다.

개념 2 인지 편향과 탈편향 (cognitive bias · de-biasing) — 지문 B

인지 편향은 정보를 처리할 때 생기는 체계적인 사고 오류다 — 뇌가 빨리 처리하려고 쓰는 정신적 지름길에서 나온다. 무작위 실수가 아니라 늘 같은 방향으로 틀린다.

전제 — 편향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can't eliminate)

그러니 해로운 영향을 줄이는 절차를 쓴다 = 탈편향(de-biasing)

알아채기 → 전략 고르기 → 실행 → 확인 → (안 되면) 반복

지문 B의 방향을 놓치기 쉽다 — “편향을 없애라”가 아니다. 못 없앤다고 전제하고 다루는 법을 말한다. 첫 문장의 **Since(~이니까)**가 그 신호다.

× 지문이 말하지 않는 것

○ 지문이 말하는 것

정보를 더 모으면 옳게 판단한다	전제(가정)가 틀리면 아무리 모아도 갇힌다 (A)
편향은 없앨 수 있다	못 없앤다. 해로운 영향을 줄인다 (B)
한 번 바로잡으면 끝이다	확인하고, 안 되면 다시 — 순환 절차다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생각은 전제·편향에 매여 있다.” A는 거짓 전제를 바로잡아, B는 편향을 알아채 다뤄 그 매임에서 벗어난다. 둘 다 “순서”로 출제돼, 표지를 잇는 훈련이 목표다.

1 · 주제 어휘망 — 가정·편향을 말하는 말과 순서를 막는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하나는 **가정·편향**을 말하는 말 (assumption · bias · perceived), 다른 하나는 **순서를 강제하는 표지** (This · Then · After · If it did). **순서 문항은 뒤 갈래가 답을 정한다.**



순서를 강제하는 표지 — 앞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말

표지	왜 첫 문단이 될 수 없나
This perceived truth (A)	This 가 앞의 “평평하다는 믿음”을 받는다 → 그 뒤에 온다
Upon this discovery (A)	this discovery (둥글다는 발견)가 먼저 나와야 쓴다
Then / After (B)	앞 단계 가 있어야 “그다음/그 뒤”가 성립
If it did / If it didn't (B)	it (실행한 전략)이 앞에 있어야 가리킬 대상이 생긴다 → 마지막

이 단원의 열쇠 규칙 순서 문항은 “지시어·연결어가 무엇을 받는가”로 본다. **This-it-Then-After-Upon**은 전부 **앞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 말이 든 문단은 **첫 자리에 올 수 없다**. 내용을 다 이해하기 전에 **표지부터 세면** 배열이 거의 정해진다.

2 · 지문 A — 거짓 믿음이 발을 묶었다

2020.9 고1 학평 · 순서

정답률 60%

11문장 · 평균 15토큰

주어진 글 We make decisions based on **what we think we know**. It wasn't too long ago that the majority of people believed **the world was flat**.

(A)

the world is round

Upon this discovery

(B) This perceived truth

very little exploration

fall off the edge of the earth

(C)

The correction of a simple false assumption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순서를 정하는 법 (B)의 This perceived truth가 주어진 글의 “평평하다는 믿음”을 받는다 → 맨 먼저, (A)의 It wasn't until ~ the world is round가 (B)의 “탐험 안 함”을 뒤집는다 → 그다음, (C)는 그 결과(교류·전진)를 결론으로 맺는다. 그래서 (B)-(A)-(C) — 정답 ②.

왜 순서 문항이 됐나 이 글은 시간 서사다

믿음 → 그 결과 → 정정 → 새 결과라는 시간 흐름이 빠대다. 표지가 그 흐름을 박아 둔다.

전제 주어진 글 — the world was flat(평평하다 믿음)

B This perceived truth impacted behavior 그 믿음이 탐험을 막음

A the world is round ... behaviors changed 정정되자 대규모 변화

C correction ... moved the human race forward 결론

This perceived truth(믿음)와 the world is round(정정)의 선후만 잡으면 (B)→(A)가 확정되고, 결론(C)이 자연히 뒤에 붙는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 읽는 순서대로 주어진 → (B) → (A) → (C)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주어진 글 전제를 던진다 도입

우리는 결정한다

what we think we know

the world

was flat

우리는 안다고 여기는 것에 근거해 결정한다. 오래전 대다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what we think we know — 주제 선언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여기는 것”이 결정을 지배한다 — 이 글의 전제다. the world was flat이 그 “안다고 여긴 것”의 예 — (B)의 This가 이걸 받는다.

(B) 믿음이 행동을 가둔다 첫 문단

이 믿음이

This perceived truth

very little exploration

이 인식된 사실(평평하다는 믿음)이 행동에 영향을 줬다. 이 시기엔 탐험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fall off the edge of the earth

didn't dare to travel

사람들은 지구 끝에서 떨어질까 두려워 감히 여행하지 못했다.

This perceived truth — (B)가 첫 문단인 이유 This perceived truth(이 인식된 사실)의 This가 주어진 글의 “평평하다는 믿음”을 가리킨다 → (B)는 주어진 글 바로 뒤다.

little exploration · didn't dare to travel — 믿음이 행동을 가둔 결과. (A)에서 뒤집힌다.

(A) 정정되자 뒤집힌다 **둘째 문단**

~하고 나서야

It wasn't until
massive scale

the world is round

그 사소한 사실 — 지구가 둥글다 — 이 밝혀지고 나서야 행동이 대규모로 바뀌었다.

이 발견 뒤

Upon this discovery

이 발견 뒤, 사회들이 여행을 시작했고 무역로가 열리고 향신료가 거래됐다.

It wasn't until ~ that ... / Upon this discovery

It wasn't until A that B =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했다.” A=둥글다는 정정, B=대규모 변화. (B)의 “탐험 안 함”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 (A)는 (B) 뒤.

Upon this discovery(이 발견 뒤)의 this discovery도 앞(둥글다)을 받는 표지다.

(C) 결론 — 전진 **마지막 문단**

새 아이디어가

and advancements

shared between societies

innovations

수학 같은 새 아이디어가 사회 간에 공유돼 온갖 혁신과 발전을 낳았다.

거짓 가정의 정정

The correction of a simple false assumption

단순한 거짓 가정 하나를 바로잡은 것이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correction of a false assumption — 주제 회수

마지막 문장이 제목·주제를 명시한다 — “거짓 가정의 정정이 인류를 전진”시켰다. (A)의 “여행 시작”이 (C)에서 혁신·발전으로 확장돼 글이 닫힌다 → (C)가 마지막.

정체 고1 60% — 그래도 세 명 중 한 명은 틀린다

내용은 쉬운데 표지를 안 세면 흔들린다.

This perceived truth — 앞의 “평평 믿음”을 받음 → (B) 먼저

the world is round — “평평”을 정정 → (A)는 (B) 뒤

correction ... moved forward — 결론 → (C) 마지막

규칙 하나 — 지시어(This·this discovery)가 무엇을 받는지만 좇으면 (B)-(A)-(C)가 한 줄로 선다. “평평”과 “둥글다”의 선후가 전부다.

한 줄로

평평하다고 믿는 동안 아무도 멀리 못 갔고, 둥글다는 사실 하나가 밝혀지자 인류가 대양을 건넜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1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단어가 쉽다. 대신 **순서 표지**와 **추상 명사**(assumption-advancement)만 정확히 잡으면 된다. **perceived truth**가 “인식된(믿어진) 사실” = **거짓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열쇠.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perceived	6	인식된, ~라고 여겨진	(B) This perceived truth 이 인식된 사실(=믿음)
assumption	6	가정, 전제	(C) a false assumption 거짓 가정 — 주제어
exploration	6	탐험	(B) very little exploration 탐험이 거의 없음
reveal	6	드러내다, 밝히다	(A) was revealed (등글다는 사실이) 밝혀지다
massive	6	거대한, 대규모의	(A) on a massive scale 대규모로
advancement	5	발전, 진보	(C) innovations and advancements 혁신과 발전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what we think we know 안다고 여기는 것 · **impact behavior** 행동에 영향을 주다 · **fall off the edge** 끝에서 떨어지다 · **dare to V** 감히 ~하다 · **It wasn't until ~ that ...**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다 · **upon this discovery** 이 발견 뒤 · **trade routes** 무역로 · **the correction of ~** ~을 바로잡음

합정 **perceived truth** — “진실”이 아니라 “믿어진 것”

truth가 들어 있다고 “진실”로 읽으면 글이 거꾸로 선다. **perceived**가 붙으면 “(실제와 무관하게) 그렇다고 인식된 것”이다.

truth — 진실(사실로 참) × 여기선 아님

perceived truth — 인식된 사실 = 믿음(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

여기서 **perceived truth** =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짓 믿음이다. 이걸 “진실”로 읽으면 (B)가 무엇을 받는지, 왜 (A)에서 뒤집히는지 안 보인다. **perceive** 계열(**perceived**·**perception**)은 “사실”이 아니라 “받아들인 그림”이다.

3 · 지문 B — 편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20.6 고2 학평 · 순서 [3점]

정답률 41%

7문장 · 평균 23토큰

주어진 글 **Since** we know we can't completely **eliminate** our biases, we need to try to **limit the harmful impacts** they can have on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our decisions and judgments.

편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그것이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려** 애써야 한다.

(A) **If it did,****If it didn't,**(B) **Then****de-biasing strategy****After**

(C)

aware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순서를 정하는 법 (C)의 **It is important that we are aware**가 주어진 글의 **limit the harmful impacts**를 받아 먼저 알아차리라고 한다. (B)의 **Then**이 그 다음 단계(전략 고르기)이고, (A)의 **If it did / If it didn't**는 (B)의 **check in again**이 있어야 쓸 수 있다. 그래서 (C)-(B)-(A) — 정답 ⑤다.

왜 순서 문항이 됐나 이 글은 절차다

이 지문에는 순서를 강제하는 표지가 다섯 개 박혀 있다. 절차문은 표지만 이으면 순서가 나온다.

전제 **Since** we know we can't eliminate... 못 없앤다 → 그러니 영향을 줄이자

- 1 **aware** when a bias **is activated** 언제 켜지는지 안다
- 2 aware of **the impact** 무슨 영향을 주는지 안다
- 3 **Then** choose a strategy 그때 전략을 고른다
- 4 **After** we have implemented... **check in again** 실행한 뒤 다시 확인한다
- 5 **If it did / If it didn't** 됐으면 진행, 안 됐으면 반복

Then · After · If it did · If it didn't — 넷 다 앞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말이다. 이 넷의 자리가 정해지면 (A)(B)(C)는 저절로 배열된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34토큰 · 이 글의 전제 주어진 글

왜

Since

eliminate

우리가 편향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다

limit the harmful impacts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우리는 편향이 결정의 객관성·합리성에 주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려 애써야 한다.

Since — 첫 문장이 전부다 Since절이 이 글의 전제다 — “못 없앤다.” 그래서 이 글은 편향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말한다. 여기를 “편견을 버리자”로 읽으면 뒤가 전부 어긋난다.

②(C) 1단계 · 알아채기 첫 문단

중요한 것은

aware when a cognitive bias is activated

overcome that bias

인지 편향이 언제 활성화되는지 알아채고, 그것을 극복할 의식적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aware ... is activated — (C)가 첫 문단인 이유 주어진 글의 “해로운 영향을 줄이자”를 받아, 절차의 1단계 “알아채기(aware)”로 잇는다 → (C)가 맨 먼저.

is activated(활성화된) = 편향이 “켜진다”는 비유. 켜지는 순간을 알아야 다룰 수 있다.

③(B) 2·3단계 · 전략과 실행 둘째 문단

그때

Then

de-biasing strategy

그때 그와 싸울 적절한 탈편향 전략을 고를 수 있다.

실행한 뒤

After

check in again

전략을 실행한 뒤, 작동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Then · After — (B)가 (C) 뒤인 이유 Then(그때)과 After(~한 뒤)는 앞 단계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이다 → 알아채기(C) 뒤에 온다. **check in again(다시 확인)**이 다음 문단 (A)의 “If it did / didn't”의 근거가 된다.

④(A) 4·5단계 · 두 갈래로 달는다 **마지막 문단**

됐으면

If it did,**objective and informed**

작동했다면, 넘어가서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린다.

안 됐으면

If it didn't,**until we are ready to make a rational****judgment**

안 됐다면, 다시 하거나 새 전략을 실행한다 — 합리적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될 때까지.

If it did / didn't — 반드시 마지막**it**은 (B)에서 **실행·확인한 전략**을 받는다. 앞에 “확인했다(check in)”가 없으면 **it**이 가리킬 게 없다 → (A)가 맨 뒤.**until ~ rational judgment**가 주어진 글의 **objectivity·rationality**를 회수한다 — **글이 닫혔다는 신호**다.**정체** **고2 41% — 표지를 세지 않아 걸린다**A(60%)보다 어려운 이유는 **절차가 추상적**이라 내용만으로는 선후가 헷갈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지로 풀어야 한다**.(C) **aware ... activated** — 1단계 알아채기 → 맨 먼저(B) **Then · After** — 2·3단계 전략·실행 → 가운데(A) **If it did / didn't** — 4·5단계 확인·반복 → 마지막**규칙 하나** — 순서는 “**앞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을 센다. Then·After·If-it 넷의 자리가 정해지면 (C)-(B)-(A)가 한 줄로 선다. A와 같은 규칙이다.**한 줄로**

편향은 못 없앤다. 켜지는 순간을 알아채고, 전략을 고르고, 실행하고,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다시 한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2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implement	7	실행하다	(B)(A) — 전략을 실제로 써 보는 단계. 2회
cognitive	7	인지의	cognitive bias — 이 단원의 이름
bias	6	편향, 편견	4회. 지문 A(거짓 가정)와 짝이 되는 열쇠말
impact	6	영향 (명사)	‘충격’이 아니다. the impact (that) X has on Y 틀로 두 번
combat	6	맞서 싸우다 (동사)	‘전투’(명사)가 아니다. to combat it 편향과 싸우려고
eliminate	6	없애다	주어진 글 — can't completely eliminate . 이 글의 전제
objective	6	객관적인	(A) — 절차가 끝나야 도달하는 상태
strategy	5	전략	3회. de-biasing strategy 탈편향 전략
activate	5	활성화하다	(C) is activated 편향이 켜진다는 비유
conscious	5	의식적인	(C) conscious choice — 자동이 아닌 선택
rational	5	합리적인	(A) rational judgment — 글이 달하는 자리

코퍼스 미등재 — 뜯어 읽는 것

de-biasing 탈편향(de-제거 + bias 편향) · judgment 판단 · objectivity 객관성 · rationality 합리성 · informed **정보에 근거한**(‘알려진’ 아님) ·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읽기 지문 A와 B — 같은 “매임”의 두 얼굴

A는 거짓 가정(평평한 지구)이, **B는 인지 편향**이 우리 판단을 매어 둔다.

A — 전제가 틀리면 **정정**해야 나아간다(the correction ...)

B — 편향은 못 없애니 **알아채고 다뤄야** 한다(aware → de-bias)

둘 다 “**스스로 알아채는 것**”에서 시작한다 — A는 “**평평하다**”가 **가정**임을, B는 편향이 **켜졌음**을. **알아챌**이 곧 **벗어남**의 첫 단계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생각은 전제·편향에 매여 있다

	지문 A · 거짓 가정	지문 B · 인지 편향
무엇이 매나	거짓 가정(평평한 지구)	인지 편향(못 없앴)
어떻게 벗어나나	정정 — 둥글다고 밝혀짐	절차 — 알아채고 다룸
첫 단계	가정임을 알아챈	편향이 커졌음을 알아챈
문항 유형	순서 — This·Upon this	순서 — Then·After·If

A는 “거짓 가정을 바로잡아”, B는 “편향을 알아채 다뤄” 매임에서 벗어난다. 둘 다 “나는 객관적으로 안다”는 믿음을 흔들다 — 벗어남은 “알아챈”에서 시작한다. 지문을 읽을 때도 같다: 첫 문단의 전제를 **당연시하지 말고 의심하라**.

근거 순서 문항, 이렇게 푼다

두 지문 모두 **순서(paragraph_order)**였고, 정답은 **내용이 아니라 표지**가 정했다.

표지 유형	예 (이 단원)
지시어(앞을 받음)	This perceived truth · Upon this · it
시간·순서 부사	Then · After · during this period
조건(앞 결과 필요)	If it did / If it didn't

이 셋이 든 문단은 첫 자리에 올 수 없다. 내용을 다 이해하기 전에 표지를 세면 배열이 거의 정해진다 — 이후 순서 문항이 훨씬 빨라진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가정·편향의 말	perceived truth · false assumption · cognitive bias · de-biasing
순서 표지	This / it · Then · After · Upon this · If it did / didn't
닫는 말(주제 회수)	moved the human race forward · until ~ rational judgment
문항의 표지	순서 = “앞이 있어야 쓰는 말”을 이어 배열

- ✓ **perceived truth** = 믿음(진실 아님) — 거짓일 수 있는 전제.
- ✓ **Since** = “~이니까”(전제) — 편향은 못 없앴다가 B의 출발점.
- ✓ 지시어·시간부사·조건절이 든 문단은 첫 자리 불가 — 순서의 급소.
- ✓ 벗어남은 “알아챈”에서 시작한다 — A도 B도.

다음 단원 예고 — 고1·2편 **UNIT 3** 「기억은 재구성된다」로 이어진다. 기억이 어떻게 다시 쓰이는가를 본다.

마음은 다 담지 못한다. 골라 담고, 골라 남긴다.

BEFORE

“나는 보고 들은 대로 기억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기억이 틀리면 “내가 착각했다” 하고 넘긴다. 마음이 애초에 다 담지 않는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AFTER

마음에는 두 관문이 있다. 주의를 한 번에 **하나만** 처리하고 (지문 A), 기억은 특이한 것만 또렷이 남기고 나머지는 **뭉개**(지문 B). 입력도 저장도 “선별”이다.

들어가기 UNIT 2에서 여기로

UNIT 2에서 가정·편향이 판단을 가둔다고 봤다. 이 단원은 그보다 앞선 단계 — 정보가 마음에 들어오고 저장되는 과정 자체가 선별임을 본다.

지문 A는 “주의”다 — 콜린 체리의 1950년대 실험. 한쪽 귀의 말을 따라 말하게 하면, 다른 쪽 귀의 말은 남녀조차 구별 못 한다. 사람은 두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 지문 B는 “기억”이다 — 평범하지 않은 사건만 또렷이 남고, 매일 같은 아침은 하나의 일반적 인상으로 뭉개진다. 뇌가 세부 대신 규칙을 뽑아내기 때문이다.

두 지문의 유형이 다르다 — A는 빈칸(무엇을 못 하나 → 두 정보 동시 처리), B는 제목(장문 · 특이할수록 생생히 기억).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22.9 고1 학평 · 빈칸	2023.6 고2 학평 · 제목(장문)
정답률	58%	54%
마음의 관문	주의 — 입력 단계	기억 — 저장 단계
무엇을 보여주나	두 정보를 동시 처리 못 함	특이한 것만 또렷이 남음
열쇠 표현	shadowing · could not process	out of ordinary · generic impression

한 쌍이다 A는 “애초에 다 못 담는다”(주의), B는 “담은 것도 뭉개진다”(기억). 두 관문을 지나며 정보는 두 번 걸러진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재구성”이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선택적 주의 (selective attention) — 지문 A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정보만 처리한다. 여러 소리가 동시에 들어와도, 뇌는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걸러 낸다**.

콜린 체리의 이중 청취(dichotic listening) 실험(1950s)

한쪽 귀 말을 따라 말하기(shadowing) → 그쪽에 집중

→ 다른 쪽 귀의 말은 남녀·언어조차 구별 못 함

결론은 “사람은 두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 주의를 병목(bottleneck)이다 — 마음의 첫 관문에서 이미 대부분이 버려진다.

개념 2 기억의 병합 (merging) — 지문 B

입력을 통과한 정보도 그대로 저장되지 않는다. 비슷한 경험은 하나로 합쳐진다.

경험의 종류	기억에서
일상(routine)	합쳐져 일반적 인상만 남음 — 세부는 못 꺼냄
특이(unique)	또렷이 남음 — 경쟁할 게 없어서

뇌가 이렇게 하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다 — 비슷한 것을 묶어 추상적 규칙을 뽑는 것이 배움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대가는 세부의 상실이다. “기억은 재생이 아니라 재구성”이라는 말의 뜻이다.

× 우리가 믿는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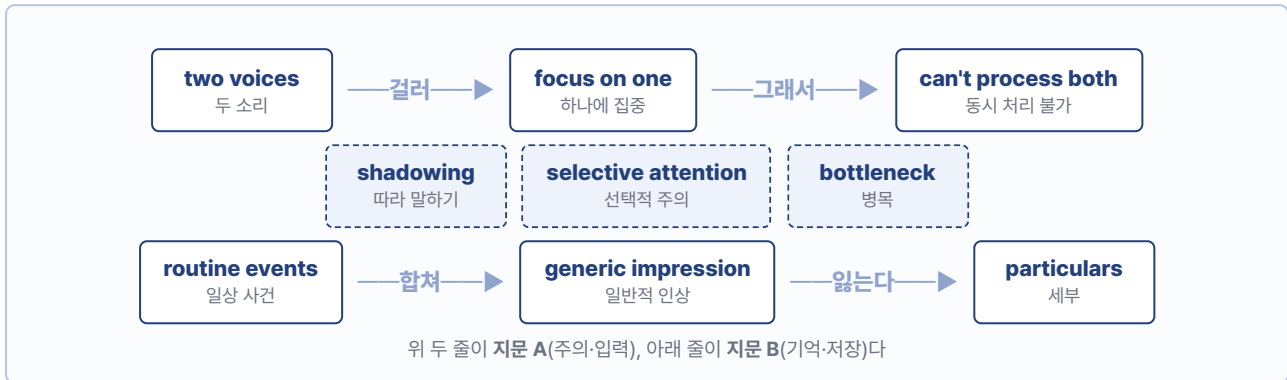
○ 실제 기억

본 것·들은 것을 다 담는다	주의가 하나만 통과시킨다 (A)
담은 것은 그대로 재생된다	비슷한 건 합쳐져 세부가 사라진다 (B)
특이한 일은 충격 이라 기억난다	경쟁할 게 없어 또렷이 남는다 (B)

두 관문을 잇는 한 줄 — 마음은 “선별하는 기관”이다. A(주의)에서 대부분을 버리고, B(기억)에서 남은 것마저 망간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골라 다시 지은 그림”이 남는다.

1 · 주제 어휘망 — 주의의 말과 기억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관문**으로 나뉜다. **주의**의 말(focus · process · shadowing)과 **기억**의 말(merge · generic · extract). 두 지문이 **입력** → **저장** 순서로 이어진다.



두 지문이 “못 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

	지문 A (고1)	지문 B (고2)
관문	주의(입력)	기억(저장)
못 하는 것	두 정보 동시 처리	일상의 세부 꺼내기
남는 것	집중한 하나	특이한 것 · 일반적 인상
문항 유형	빈칸 — could not ~	제목 — unique → vivid

이 단원의 열쇠 대립 — **generic**(일반적·뭉뚱그린) ↔ **particular**(특정한·세부). B의 축이다. 그리고 A의 **could not** __은 바로 앞 문장을 “In other words”로 요약한 자리다 — 앞 문장(남녀조차 구별 못 함)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빈칸이 나온다.

2 · 지문 A — 두 사람의 말을 동시에 들을 수 있을까

2022.9 고1 학평 · 빈칸 [3점]

정답률 58%

5문장 · 평균 34토큰

In the studies of Colin Cherry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for Technology back in the 1950s, his participants listened to voices **in one ear at a time** and then **through both ears** in an effort to determine whether we can **listen to two people talk at the same time**. One ear always contained a message that the listener had to **repeat back (called "shadowing")** while the other ear included people speaking. The trick was to see if you could **totally focus on the main message** and also hear someone talking in your other ear. Cleverly, Cherry found it was **impossible** for his participants to know whether the message in the other ear was **spoken by a man or woman, in English or another language, or was even comprised of real words at all!** In other words, people could not _____.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decide what they should do in the moment
- ② remember a message with too many words
- ③ analyze which information was more accurate
- ④ speak their own ideas while listening to others
- ⑤ **process two pieces of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빈칸을 정하는 법 빈칸 앞 **In other words**(다시 말해)는 “앞 문장을 요약하라”는 신호다. 앞 문장 = 다른 쪽 귀의 말을 “남녀·언어조차 모른다”. 이걸 한 구절로 압축하면 — 두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 정답 ⑤.

합정 그럴듯한 오답은 “실험이 안 한 것”이다

- ④ **speak while listening**(들으며 말하기) — shadowing이 “따라 말하기”라 비슷해 보이나, 실험이 켜 건 말하기가 아니라 “다른 쪽을 아는가”다
- ③ **analyze which is accurate**(정확성 분석) — 정확성은 화제가 아니다
- ② **remember too many words**(많은 단어 기억) — 기억이 아니라 “동시 처리” 문제다

규칙 하나 — 빈칸이 **In other words** 뒤면 **새 정보가 아니라 “앞의 재진술”**이다. 앞 문장(다른 쪽을 전혀 모름)을 벗어난 선택지는 전부 오답이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44토큰 · 이 지문 최장 · 실험 설계

언제-누가

In the studies of Colin Cherry ... back in the 1950s, his participants

1950년대 콜린 체리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어떻다

listened to voices **in one ear at a time** and then **through both ears**

한 번에 한 귀로, 그다음 양쪽 귀로 목소리를 들었다

무엇을 알려고

to determine whether we can **listen to two people talk at the same time.**

두 사람의 말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목적이 곧 결론의 뒤집기

whether we can listen to two people talk at the same time — 이 “물음”이 마지막 빈칸에서 “못 한다”로 답해진다. 실험의 목적 문장을 잡으면 결론이 보인다.

② ③ 장치 설명 — shadowing

한쪽 귀는

One ear always contained a message the listener had to **repeat back (“shadowing”)**

한쪽 귀엔 늘 따라 말해야(“shadowing”)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동안

while the other ear included people speaking. The trick was to see if you could **totally focus on the main message** and also hear the other ear.

다른 귀엔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다. 관건은 주 메시지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다른 귀도 들을 수 있는가였다.

shadowing = 집중을 강제하는 장치

따라 말하기(shadowing)는 한쪽에 주의를 묶어 두는 장치다. 그 상태에서 다른 쪽을 알 수 있나를 본다 — 주의가 하나에 묶이면 다른 건 어떻게 되는지.

④ 39토큰 · 실험 결과 **빈칸 근거****불가능했다**

Cleverly, Cherry found it was **impossible** for participants to know whether the other ear's message was **spoken by a man or woman, in English or another language, or ... real words at all!**

체리는 참가자들이 다른 쪽 귀의 말이 남자·여자인지, 영어인지 다른 언어인지, 진짜 단어이긴 한지조차 알 수 없음을 발견했다.

impossible to know whether A, B, or C — 결정적 문장 가장 기본적인 것(남녀·언어·단어 여부)조차 모른다 — 곧 다른 쪽은 **전혀** 처리되지 않았다. 주의를 한쪽에 묶이면 **다른 쪽은 소리로만 스칠 뿐**이다.

이 문장이 빈칸(㉔) 동시 처리 불가)의 **직접 근거**다.

⑤ 요약 = 빈칸 **정답 ㉔****다시 말해**

In other words, people could not _____ (process two pieces of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다시 말해, 사람은 _____ (두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했다.

In other words — 앞을 압축하라 In other words는 새 정보를 주지 않는다 — ㉔문장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 “남녀·언어조차 모른다” = 두 정보를 동시에 처리 못 한다(㉔). 다른 선택지는 앞 문장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다.

정체 고1 58% — 빈칸이 끝에 있으면 “앞”을 본다

빈칸이 글 맨 끝에 있고 In other words가 붙으면, 답은 반드시 앞 문장에 있다.

앞 문장(㉔) — 다른 쪽 귀를 전혀 모른다

= 빈칸(㉔) — 두 정보를 동시에 처리 못 한다

규칙 하나 — 실험 지문의 마지막 “In other words / So / Thus” 문장은 결론이고, 그 결론은 직전 결과의 재진술이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선택지(㉔ 말하기, ㉔ 정확성)는 전부 함정이다.

한 줄로 한쪽 귀에 집중하면 다른 쪽 귀의 말은 남녀조차 모른다 — 사람은 두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1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단어가 어렵지 않다. 대신 **실험 절차 표현**(shadowing · repeat back · focus on)과 **결론 신호**(in other words)를 정확히 잡으면 된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process	7	처리하다 (동사)	㉥ 정답 — could not process two pieces
participant	6	참가자	㉠ 실험 참가자들
determine	6	알아내다, 밝히다	㉠ to determine whether ~ ~인지 밝히려
focus on	6	~에 집중하다	㉢ totally focus on the main message
comprise	5	구성하다, 이루다	㉣ comprised of real words 진짜 단어로 이뤄진
impossible	6	불가능한	㉣ — 결과를 못 박는 말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shadowing 따라 말하기(들으며 즉시 반복) · **repeat back** 따라 말하다 · **in one ear at a time** 한 번에 한 귀로 · **through both ears** 양쪽 귀로 · **the trick was to V** 관건은 ~하는 것이었다 · **at the same time** 동시에 ·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앞을 요약) · **two pieces of information** 두 개의 정보

합정 process — “과정”이 아니라 “처리하다”

process를 명사 “과정”으로만 알면 정답 ㉥이 안 읽힌다. 여기서의 동사 “처리하다”다.

명사 process — 과정 (a long process)

동사 process — (정보를) 처리하다 (process information)

process two pieces of information = 두 정보를 처리하다. 인지·심리 지문에서 **information·data**와 함께 오는 **process**는 거의 동사다. “정보 과정”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로 읽는다.

3 · 지문 B — 특이한 것만 또렷이 남는다

2023.6 고2 학평 41번 · 제목

정답률 54%

7문장 · 평균 42토큰

Events or experiences that are **out of ordinary** tend to be remembered better because there is nothing competing with them when your brain tries to access them from its storehouse of remembered events. **In other words**, the reason it can be difficult to remember what you ate for breakfast two Thursdays ago is that there was probably nothing special about that Thursday **or that particular breakfast** — consequently, all your breakfast memories combine together into a sort of **generic impression** of a breakfast. Your memory **merges** similar events not only because it's more efficient to do so, but also because this is fundamental to how we learn things — our brains **extract abstract rules** that tie experiences together.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ings that are **routine**. If your breakfast is always the same — cereal with milk, a glass of orange juice, and a cup of coffee for instance — there is no easy way for your brain to extract the details from one particular breakfast. **Ironically, then**, for behaviors that are routinized, you can remember **the generic content** of the behavior (such as the things you ate, since you always eat the same thing), but **particulars** to that one instance can be very difficult to call up (such as the sound of a garbage truck going by or a bird that passed by your window) **unless** they were especially **distinctive**. **On the other hand**, if you did something unique that broke your routine — perhaps you had leftover pizza for breakfast and spilled tomato sauce on your dress shirt — you are more likely to remember it.

41.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Repetition Makes Your Memory Sharp!
- ② How Does Your Memory Get Distorted?
- ③ What to Consider in Routinizing Your Work
- ④ Merging Experiences: Key to Remembering Details
- ⑤ The More Unique Events, the More Vivid Recollection

함정 이 지문은 **merge**를 여러 번 긍정적으로 쓴다(efficient · fundamental to how we learn). 그래서 “합치는 게 좋은 것”으로 읽고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합치기의 **대가**가 뒤에 있다 — **particulars ... difficult to call up**. ④는 “합치기 = 세부 기억의 열쇠”라 정반대로 이었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34토큰 · 주제 선언 제목 근거

무엇이

Events or experiences **that are out of ordinary** tend to be **remembered better**

평범하지 않은 사건은 더 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왜

because there is **nothing competing with them** when your brain tries to access them.

뇌가 그것을 꺼낼 때 경쟁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out of ordinary → remembered better

제목 정답 ㉠가 첫 문장에 그대로 있다. 이유는 경쟁(competing) — 비슷한 게 많으면 서로 묻힌다는 비유. 특이한 건 홀로 있어 또렷하다.

②③ 왜 합쳐지는가

= 바꿔 말하면

In other words, two-Thursdays-ago breakfast is hard to recall because there was **nothing special** — all breakfasts **combine into a generic impression**.

2주 전 아침이 기억 안 나는 건 특별한 게 없어서 — 모든 아침이 하나의 일반적 인상으로 합쳐진다.

왜(무게)

Your memory **merges** similar events **not only** because it's efficient **but also** because this is **fundamental to how we learn** — brains **extract abstract rules**.

기억이 합치는 건 효율적이어서만이 아니라, 배움의 근본이기 때문 — 뇌는 추상적 규칙을 뽑는다.

not only A but also B — 무게는 B

“효율적이라서”(A)에서 멈추면 그냥 기억력 얘기다. “배우는 방식이라서”(B)까지 가야 논지가 선다 — 합치기는 “배움”의 일부다. 대가는 다음 면(세부 상실)에서.

④⑥ 예시 — 늘 같은 아침

특히 일상은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ings that are **routine**. If your breakfast is **always the same**,

이는 일상적인 것에 특히 그렇다. 아침이 늘 똑같다면,

세부를 못 뽑는다

there is **no easy way** for your brain **to extract the details** from one particular breakfast.

뇌가 특정한 한 끼의 세부를 뽑아낼 쉬운 길이 없다.

extract rules ↔ extract details

㉢ extract rules(규칙은 뽑힘) ↔ ㉤ extract details(세부는 못 뽑힘) — 같은 동사, 반대 대상. 합치기의 이득(규칙)과 대가(세부)가 한 동사로 대비된다.

⑥ 75토큰 · 이 지문 최장·최고 부하 결론

역설적이게도

Ironically, then, for behaviors that are **routinized**, you **can remember the generic content** (such as the things you ate),

역설적이게도, 일상화된 행동은 일반적 내용은 기억한다(먹은 것 등).

그러나

but particulars to that one instance can be very difficult to **call up ... unless** they were especially **distinctive**.

그러나 그 한 번의 세부는 불러내기 매우 어렵다 —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았다면.

75토큰 다루는 법 — 괄호를 지운다 괄호 둘을 지우면 25토큰이다 — **you can remember the generic content, but particulars can be difficult to call up unless ... distinctive**. 빼대는 일반은 되고 세부는 안 된다 한 줄. 괄호는 예시일 뿐 논지를 옮기지 않는다.

⑦ 반대쪽 사례 · 수미상관

반면에

On the other hand, if you did something **unique that broke your routine** (leftover pizza ... spilled sauce), you are **more likely to remember it**.

반면, 일상을 깨는 특이한 일을 했다면(남은 피자·쏟은 소스) 더 잘 기억한다.

①이 ①로 되돌아온다 — 제목의 근거 ① out of ordinary → remembered better, ② unique that broke routine → more likely to remember. 처음과 끝이 같은 명제 — 제목 ⑤(특이할수록 생생히)가 확정된다.

정체 고2 54% — merge를 “좋은 것”으로만 읽으면 ④

① merge를 긍정으로만 읽음(efficient-fundamental) → ④(합치기=세부의 열쇠)에 걸림. 합치기의 대가는 “세부 상실”(⑤)이다

② Ironically를 흘림 → “일상화하면 잘 기억할 것 같은데 반대”라는 역설을 놓쳐 ①(반복이 기억을 날카롭게)로 감

③ ②의 distorted에 끌림 → 이 글은 왜곡을 비판하지 않고 학습 원리로 설명한다

규칙 하나 — 제목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함께 가리키는 명제다. ①·②이 “특이 → 생생”으로 일치하니 ⑤가 정답이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2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abstract	7	추상적인	㉓ abstract rules — 합치기의 산물
extract	7	뽑아내다	㉓ 규칙을 뽑고 ㉓ 세부는 못 뽑는다. 같은 동사, 반대 대상
routine	6	일상적인 일	‘틀에 박힌’만이 아니다. ㉗ broke your routine 일상을 깨다
distinctive	6	두드러지는	㉖ unless ... distinctive — 기억에 남는 유일한 조건
fundamental	6	근본적인	㉓ fundamental to how we learn — 이 글의 무게중심
consequently	6	그 결과	㉔ — 합쳐지는 결과를 이끈다
particular	5	특정한 / 세부	형용사 ㉔ ㉓ ‘특정한’, 명사 ㉖ particulars ‘세부 사항’
access	5	접근하다	㉑ — 기억을 꺼내는 쪽 어휘
compete	5	경쟁하다	㉑ nothing competing — 잘 기억되는 이유
combine	5	합쳐지다	㉔ — merge 와 같은 뜻으로 번갈아 쓴다

코퍼스 미등재 — 사전 없이는 못 읽는 것

generic 일반적인·통칭의 · **merge** 합치다 · **routinized** 일상화된 · **storehouse** 창고 · **ironically** 역설적이게도 · **call up** (기억을) 불러내다 · **leftover** 남은

읽기 지문 A와 B — 마음의 두 관문

A는 주의(입력), B는 기억(저장)에서 정보가 걸러진다.

A — 한 번에 **하나만** 통과(could not process two)

B — 통과한 것도 **합쳐져** 일반적 인상만 남음(generic ↔ particular)

generic ↔ particular가 B의 축이고, A의 “**하나만 처리**”가 그 앞 단계다. 두 관문을 지나며 정보는 두 번 걸러진다 — 그래서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마음은 선별하는 기관이다

	지문 A · 주의	지문 B · 기억
관문	입력(들어올 때)	저장(남길 때)
거르는 방식	한 번에 하나만 could not process two	비슷한 건 합침 generic ↔ particular
남는 것	집중한 하나	특이한 것 뿐
문항 열쇠	In other words = 앞 요약	첫·끝 문장 = 제목

A는 “애초에 다 못 담고”, B는 “담은 것도 뭉갬다”. 정보는 주의와 기억이라는 두 관문을 지나며 두 번 걸러진다 — 그래서 남는 건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골라 다시 지은 그림”**이다. 지문을 읽을 때도 같다: 다 담으려 말고 “**무엇이 특이한 신호인가**”를 골라라.

근거 두 유형, 이렇게 본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빈칸(A)	끝의 In other words / So 뒤 빈칸 = 직전 문장의 재진술
제목(B)	첫 문장과 끝 문장이 함께 가리키는 명제가 제목 — 예시(괄호)는 지문다

두 유형 다 “**핵심 문장을 찾아 압축**”하는 문제다. 세부·예시에 끌리지 말고 **주제문의 재진술**을 쫓는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들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주의의 말	focus on · shadowing · process information · at the same time
기억의 말	out of ordinary · merge / combine · generic ↔ particular · extract
결론 신호	In other words · consequently · Ironically · On the other hand
문항의 표지	빈칸=앞 문장 요약 · 제목=첫·끝 문장의 공통 명제

- ✓ **process(정보)+information**은 동사 “처리하다” — ‘과정’이 아니다.
- ✓ **In other words** 뒤 빈칸 = 직전 문장의 재진술 — 새 그림은 오답.
- ✓ **generic ↔ particular** — 합치기의 이득(규칙)과 대가(세부).
- ✓ 제목은 첫·끝 문장의 공통 명제 — merge를 “좋다”로만 읽지 말 것.

다음 단원 예고 — 고1·2편 **UNIT 4** 「주의력이라는 한정 자원」으로 이어진다. 주의가 왜 “쓰면 닳는” 자원인가를 본다.

주의는 한정된 예산이다. 나눠 쓰면 다 부실해진다.

BEFORE

“나는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믿는다. 음악 들으며 메일 쓰고, 회의 중에 딴 일도 한다. 동시에 하면 시간이 절약된다고 여긴다.

AFTER

두 지문은 멀티태스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집중 능력은 매우 제한돼 있어(지문 A), 딴 일 하나하나가 작업 기억을 잠식한다(지문 B). 나눠 쓰면 “동시에”가 아니라 “둘 다 부실”이 된다.

들어가기 UNIT 3에서 여기로

UNIT 3에서 주의는 한 번에 하나만 처리한다고 봤다(체리 실험). 이 단원은 그걸 일상의 멀티태스킹으로 잇는다 — 주의는 쓰면 닳는 “한정 자원”이다.

지문 A는 미디어의 홍수 이야기다 — 음악·메일·메시지를 동시에 하려다 매체의 홍수에 빠진다. 답은 “한 번에 한 매체만.”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지문 B는 회의실 이야기다 — 딴 일·메일·독서가 각각 작업 기억을 차지해, 새 지식의 질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없다. 해법은 “주의를 기울일 기회를 주는 것.”

A는 제목·빈칸(장문), B는 빈칸 — 둘 다 “한정된 주의를 어디에 쓸 것인가”가 답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17.6 고1 학평 · 장문(제목·빈칸)	2012.11 고2 학평 · 빈칸
정답률	62%	72%
무대	미디어 — 음악·메일·메시지	회의실 — 딴 일·메일·독서
한정 자원	흡수·집중 능력	작업 기억(working memory)
해법	한 번에 한 매체만	주의를 기울일 기회를 줌

한 쌍이다 A는 “양이 넘친다(흡수 한계)”, B는 “그릇을 나눠 쓴다(작업 기억 잠식)”. 같은 이야기의 두 무대다 — 주의는 한정된 예산이라 나눠 쓰면 어디에도 충분치 않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작업기억 (working memory) — 마음의 작업대

지금 이 순간 정보를 붙잡고 처리하는 “마음의 작업대”다. 넓지 않다 — 한 번에 몇 개만 올려놓을 수 있다.

말하기·운전·메일 확인 — 각각이 작업대의 공간을 차지한다

여러 개를 올리면 서로 밀어내고 충돌한다

→ 결과: 어느 것도 제대로 못 한다

두 지문의 공통 열쇠어다. A는 “말하기만 해도 작업기억을 차지”한다 하고, B는 “딴 일 각각이 작업기억을 차지”한다 한다.

용량이 정해진 자원이라는 것.

개념 2 멀티태스킹의 착각 (the myth of multitasking)

우리는 “동시에” 한다고 느끼지만, 뇌는 사실 “빠르게 번갈아” 할 뿐이다. 전환할 때마다 비용(switching cost)이 든다.

믿음	실제
동시에 하면 시간 절약	전환 비용으로 더 느리고 부실
나는 예외다	집중 능력은 누구나 제한됨

B는 멀티태스킹을 “현대 생활의 진짜 악마(true demon)”라 부른다. 겉보기엔 유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 지식의 질을 떨어뜨린다.

× 멀티태스킹의 통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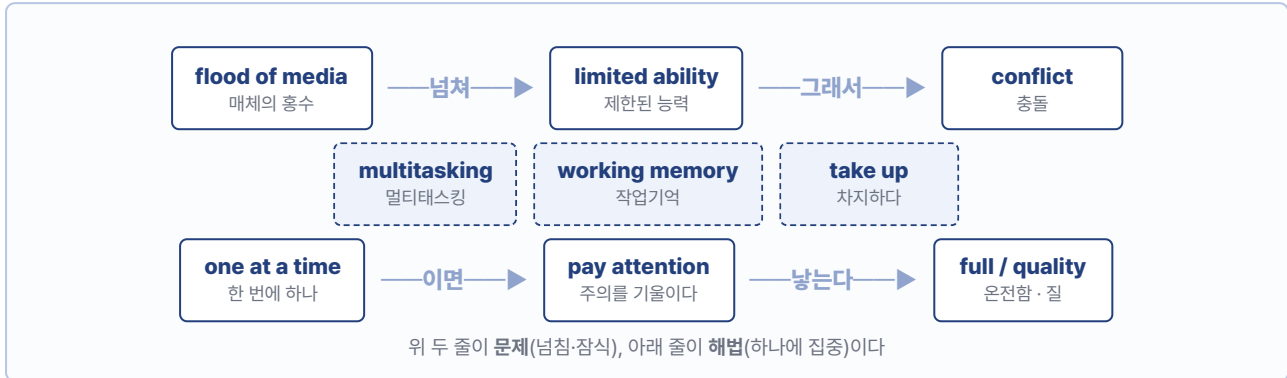
○ 지문이 말하는 것

동시에 여러 개 = 효율적	흡수 능력이 제한돼 서로 충돌한다 (A)
딴 일 조금은 괜찮다	각각이 작업기억을 차지한다 (B)
집중은 의지의 문제	용량(자원)의 문제 — 못 하는 것 (A·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주의는 한정된 예산.” A는 흡수의 한계로, B는 작업기억의 잠식으로 같은 말을 한다 — 나눠 쓰면 “동시에”가 아니라 “둘 다 부실”이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

1 · 주제 어휘망 — 넘침의 말과 한계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넘침·동시**를 말하는 말(flood · at the same time · multitasking)과 **한계·용량**을 말하는 말(limited · working memory · take up). **글의 축은 언제나 “한계”** 쪽이다.



두 지문이 “한정 자원”을 두 무대에서 본다

	지문 A (고1)	지문 B (고2)
무대	미디어(집)	회의실(일)
자원	흡수·집중 능력	작업기억
문제	양이 넘쳐 충돌	딱 일이 잠식
문항 유형	제목·빈칸(장문)	빈칸 — pay attention

이 단원의 열쇠 표현 — **take up**(차지하다)과 **working memory**(작업기억). A의 “말하기가 작업기억을 **take up**”, B의 “딱 일이 작업기억을 **take up**” — 같은 표현이 두 지문에 그대로 나온다. 한정된 그릇을 무엇이 차지하나가 축이다.

2 · 지문 A —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2017.6 고1 학평 41·42번 · 장문 [3점]

빈칸 41%

10문장 · 평균 20토큰

With thousands of websites, television channels, text messages, and phone calls, it is easy to become **drowned in a flood of media**. We often try to **absorb** too much in too many ways, to enjoy music while at the same time e-mailing someone on our laptops and being interrupted by **constant** messages on our mobile phones. Is there any one thing I have learned to help me survive? Yes. **Try to stick to one type of media at a time**. To a large extent we have **a very limited ability to focus**. If we try to absorb too many things at once, they often **conflict**. Just the action of talking **takes up** much of our **working memory**. Trying to talk about complex subjects and drive well at the same time **pushes our abilities to their limits**.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people still go to cinemas for good films; it is a _____ experience because all mobile phones are switched off. Many forms of communication are only really enjoyed **one at a time**.

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 ②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 ③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 ④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 ⑤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42.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률 41%**

- ① full ② wrong ③ indirect
④ moral ⑤ painful

속담 제목 영어 속담은 글자가 아니라 구조로 고른다

속담 제목 문항은 속담을 몰라도 풀린다. 글의 구조와 속담의 구조를 맞추면 된다.

이 글의 구조 —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다 다 망친다”

- ㉕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 씹을 수 있는 것보다 크게 베어 물다 양이 넘친다 = 같은 구조
- ㉖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 둘이 낫다 여럿이 좋다 = 반대 구조

나머지 셋(①③④)은 이 글의 소재와 무관하다 — 겉모습·부지런함·우정. “양이 넘친다”와 아무 관계가 없다.

순서 장문 세트는 제목부터 푼다

41·42번은 한 지문에 두 문항이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 ➔ 2 그 축으로 빈칸(42)을 좁힌다 — 넘침의 반대는 온전함(full)

제목 62% / 빈칸 41% — 쉬운 쪽이 어려운 쪽의 열쇠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② 27 + 38토큰 · 상황 세우기

무엇 때문에

With thousands of websites, television channels, text messages, and phone calls,
수천 개의 웹사이트·TV 채널·문자·전화 때문에

어떻다

it is easy to become **drowned in a flood of media**.
매체의 홍수에 빠지기 쉽다.

무엇이

We often try to **absorb too much in too many ways**,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많은 방식으로 흡수하려 든다

예를 들면

to enjoy music **while at the same time** e-mailing ... and being interrupted by **constant** messages ...
음악을 즐기면서 동시에 메일을 쓰고 끊이지 않는 메시지에 방해받는 식으로.

첫 비유

drowned in a flood — 물에 빠진다는 말이 나오면 양이 감당 범위를 넘었다는 뜻이다. 글자 그대로 물 이야기로 읽지 않는다.

③ ④ 13 + 14토큰 · 자문자답 주제문

묻는다

Is there any one thing I have learned to help me survive?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내가 배운 한 가지가 있는가?

답한다

Yes. **Try to stick to one type of media at a time**.
그렇다. 한 번에 한 가지 매체만 붙잡아라.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자리가 주제문이다. Yes.로 끊고 명령문이 오면 그 명령문이 요지다. 뒤 문장은 전부 왜 그래야 하는지의 근거다.

⑤ ⑥ 13 + 15토큰 · 근거 1 — 용량

어떻다

To a large extent we have **a very limited ability to focus**.
대체로 우리는 집중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돼 있다.

만약

If we try to absorb too many things at once, they often **conflict**.
한 번에 너무 많이 흡수하려 하면 그것들은 종종 충돌한다.

노력이 아니라 용량

limited ability — 이 글이 훈계가 아닌 이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그리고 **conflict**(충돌)가 그 결과 — 서로 자리를 다투는 뜻이다.

⑦ ⑧ 13 + 20토큰 · 근거 2 — 운전과 대화

무엇이

Just the action of talking

말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다

takes up much of our **working memory**.

우리 작동 기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무엇이

Trying to talk about complex subjects **and** drive well **at the same time**

복잡한 주제를 말하면서 동시에 운전도 잘하려는 것은

어떻다

pushes our abilities to their limits.

우리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Just의 힘

Just the action of talking —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라는 뜻이다. **Just**는 “겨우”가 아니라 “이것만 해도 벌써”로 읽어야 한계까지 밀린다가 납득된다.

⑨ ⑩ 29 + 13토큰 · 사례와 결론 빈칸

무엇이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people still go to cinemas for good films;

이것이 사람들이 좋은 영화를 여전히 극장에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왜냐면

it is a **full** experience **because all mobile phones are switched off**.

휴대폰이 전부 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경험이 된다.

결론

Many forms of communication are only really enjoyed **one at a time**.

많은 소통 형태는 한 번에 하나씩만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빈칸의 근거는 뒤에 있다

빈칸 뒤 **because all mobile phones are switched off**가 답을 정한다. 방해가 없다 → 주의를 온전히 쓴다 → **full experience**.

정체 빈칸 정답률 41%가 여기서 나온다

- ① ‘좋은 경험’ 계열 형용사를 찾는다. 극장·좋은 영화가 나오니 “즐거움·특별한”을 떠올리는데, 선택지에 그런 말이 없다.
 ②③④⑤(wrong·indirect·moral·painful)는 전부 부정·영똥이라 소거되고 남는 게 ⑥ **full**이다. 소거로도 풀린다.
 ② **full**을 “배부름·가득 찬”으로만 안다. 여기서는 “온전한·빠짐없는” — **a full experience** = 조각나지 않은 경험.
 ③ 축이 “양”이라는 걸 잊는다. 앞은 계속 넘쳐서 나눠지는 이야기였다. 그 반대가 **full**(온전히 하나에)이다.

한 줄로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나눠 쓰면 서로 충돌한다. 그러니 한 번에 하나씩.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1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constant	7	끊이지 않는	㉔ constant messages 끊임없는 메시지
medium	6	매체 (복수 media)	'중간의'가 아니다. one type of media 한 가지 매체
flood	6	홍수 — 비유	㉑ a flood of media 감당 못 할 양
extent	6	정도, 범위	㉕ to a large extent 대체로 — 통째로 외우는 덩어리
limited	6	제한된	㉖ limited ability to focus — 이 글의 전제
absorb	5	흡수하다	㉗ ㉘ 2회 —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 동사
conflict	5	충돌하다 (동사)	'분쟁'(명사)이 아니다. ㉙ 정보끼리 자리를 다툰다
interrupt	5	방해하다	㉚ being interrupted by ~ 방해받으면서
drown	5	빠지다	㉑ drowned in ~ — flood와 한 짝
complex	5	복잡한	㉛ complex subjects — 부하가 큰 주제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take up (자리·시간을) 차지하다 · **stick to** ~을 고수하다 · **at a time** 한 번에 · **at the same time** 동시에 · **to a large extent** 대체로
· **push A to A's limits** A를 한계까지 밀다 · **switch off** 끄다 · **working memory** 작업기억

합정 이 지문은 동사구가 어휘의 절반이다

단어는 다 쉬운데 **둘씩 붙어야 뜻이 나온다.**

take + up → 차지하다 ㉙ 작업기억을 **차지한다**

stick + to → 고수하다 ㉛ 한 매체만 **불잡아라** = 주제문

switch + off → 끄다 ㉛ 빈칸 정답의 근거

셋 다 결정적인 자리에 있다 — **stick to**는 주제문 동사, **switch off**는 빈칸 근거. **take up**(작업기억을 차지)은 지문 B에도 그대로 나온다.

3 · 지문 B — 회의 중 딴 일이 작업기억을 잠식한다

2012.11 고2 학평 · 빈칸

정답률 72%

8문장 · 평균 21토큰

Thinking is hard work. If you do not **keep your working memory clear**, then you are **weakening your ability to think** about what is going on in your class or meeting. This might seem obvious, but if you look around the room at many meetings, you will find yourself face-to-face with **one of the true demons of modern life: multitasking**. Sitting in a meeting, you will see that some people are **taking care of work that is unrelated** to the current meeting. Others are **checking their e-mail**. Still others are reading. **Each of these activities takes up your working memory**. You cannot **maximize the quality of the new knowledge** you are taking in if you do not give yourself every opportunity to _____.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pay attention ② share experiences ③ boost confidence
- ④ assign responsibility ⑤ develop personality

빈칸을 정하는 법 글 전체가 “멀티태스킹이 작업기억을 잠식한다”이다. 그러니 새 지식의 질을 높이려면 **딴 데 쓰지 말고 “주의를 기울일” 기회를 줘야 한다** — 정답 ① **pay attention**. 나머지(경험 공유·자신감·책임 분배·인성)는 **주의·작업기억과 무관하다**.

푸는 법 "진짜 악마"가 방향을 정한다

전제 — **working memory**를 비워야 **생각**할 수 있다

문제 — **multitasking**(현대의 진짜 악마)이 그걸 잠식한다

예시 — 회의 중 딴 일·메일·독서가 **each ... takes up working memory**

→ 결론(빈칸) — 새 지식의 질을 높이려면 주의를 기울여라(pay attention)

“takes up working memory”가 지문 A와 똑같이 나온다 — 한정된 그릇을 땀 일이 차지하면 정작 중요한 것에 쓸 주의가 없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답이 pay attention이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② 5 + 26토큰 · 전제 주제

생각은 힘들다

Thinking is hard work.

생각은 고된 일이다.

만약

If you do not **keep your working memory clear**, you are **weakening your ability to think** about your class or meeting.

작업기억을 비워 두지 않으면, 수업·회의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working memory clear — 전제

“작업기억을 비워야 생각할 수 있다”가 전제다. 곧 작업기억은 용량이 정해진 그릇이라는 뜻 — 지문 A의 **limited ability**와 같은 말이다.

③ 29토큰 · 진짜 악마의 등장 전환

뻔해 보이지만

This might seem obvious, **but** at many meetings you will find yourself face-to-face with **one of the true demons of modern life: multitasking**.

뻔해 보여도, 많은 회의에서 당신은 현대 생활의 진짜 악마 — 멀티태스킹과 마주하게 된다.

the true demon: multitasking — 표적

콜론(:) 뒤에 “multitasking”을 놓아 이 글의 표적을 지목한다. **demon(악마)**이라는 강한 말 — 멀티태스킹을 대놓고 부정하는 신호다.

④~⑥ 회의실 예시

예를 들면

Some are **taking care of unrelated work**, others are **checking e-mail**, still others are reading.

어떤 이는 회의와 무관한 일을 하고, 어떤 이는 메일을 확인하고, 또 어떤 이는 책을 읽는다.

Some ... Others ... Still others — 나열

Some / Others / Still others는 “여러 사람이 제각기”를 그리는 나열이다. 셋 다 회의에 집중 안 하고 딴 일 — 다음 문장에서 공통점(작업기억 잠식)으로 묶인다.

⑦ 9토큰 · 예시를 묶는다 **근거****각 활동이**

Each of these activities takes up your working memory.

이 활동들 하나하나가 당신의 작업기억을 차지한다.

takes up working memory — 지문 A와 동일 나열된 단 일들의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묶는다 — **각각이 작업기억을 “차지(take up)”한다.** 지문 A의 “**talking takes up working memory**”와 똑같은 표현이다. 한정된 그릇을 나눠 쓰는 것.

⑧ 29토큰 · 결론 **빈칸 = 정답 ㉠****그러므로**

You cannot **maximize the quality of the new knowledge** you are taking in
당신이 받아들이는 새 지식의 질을 최대화할 수 없다

~하지 않으면

if you do not give yourself every opportunity to _____ (pay attention).
_____ (주의를 기울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으면.

maximize quality ↔ pay attention 새 지식의 질을 높이려면 단 데 쓰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정답 ㉠ pay attention. 앞의 **working memory-multitasking** 흐름이 이 한 구절로 닫힌다.

정체 고2 72% — 쉬운 편이지만 오답이 “좋은 말”이다

정답률이 높은 이유는 글의 표적(**multitasking**)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오답은 전부 “**좋아 보이는 말**”이라 흐름을 안 보면 끌린다.

② share experiences · ③ boost confidence · ⑤ develop personality — 다 좋은 말이지만 “주의·작업기억”과 무관

① **pay attention** — 유일하게 **working memory-multitasking** 흐름에 맞춤

규칙 하나 — 빈칸 정답은 “좋은 말”이 아니라 “글의 축에 맞는 말”이다. 이 글의 축은 주의(**attention**) — 축 밖의 좋은 말은 전부 함정이다.

한 줄로 회의 중 단 일 하나하나가 작업기억을 차지한다. 새 지식의 질을 높이려면 주의를 기울여라.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2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단어가 쉽다. 대신 **working memory · take up · pay attention**이 지문 A와 그대로 겹친다 — 두 지문을 하나의 어휘 망으로 묶어 외운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multitasking	6	멀티태스킹	③ the true demon : multitasking — 이 글의 표적
maximize	6	최대화하다	⑥ maximize the quality — 빈칸 문장의 목표
weaken	6	약화시키다	② weakening your ability to think
unrelated	6	무관한	④ work that is unrelated to the meeting
obvious	6	뻔한, 명백한	③ This might seem obvious , but ~
quality	6	질	⑥ the quality of the new knowledge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working memory 작업기억 · **keep ~ clear** ~을 비워 두다 · **take up** 차지하다 · **the true demon of modern life** 현대 생활의 진짜 악마 · **face-to-face with ~** ~와 마주한 · **take care of ~** ~을 처리하다 ·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 · **take in** 받아들이다

읽기 지문 A와 B — 같은 표현, 두 무대

두 지문은 **열쇠 표현**을 공유한다 — **working memory · take up · at the same time**.

공통 표현	지문 A / 지문 B
takes up working memory	A: 말하기가 / B: 딴 일 각각이
한정된 자원	A: limited ability / B: keep memory clear
해법	A: one at a time / B: pay attention

미디어(A)든 회의(B)든 결론은 하나 — 한정된 주의를 나눠 쓰지 말고 하나에.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주의는 한정된 예산이다

	지문 A · 미디어	지문 B · 회의
한정 자원	흡수·집중 능력	작업기억
무엇이 축내나	매체의 홍수(동시 흡수)	또한 일·메일·독서
공통 표현	takes up working memory · at the same time · one at a time	
해법	한 매체만(one at a time)	주의를 기울임(pay attention)

A는 “양이 넘쳐 총돌”, B는 “그릇을 나눠 써 잠식”. 무대만 다를 뿐 같은 말이다 — 주의는 한정된 예산이라 나눠 쓰면 어디에도 충분치 않다. 멀티태스킹은 “동시에”가 아니라 “둘 다 부실”이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

근거 빈칸·제목, 이렇게 푼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제목·속담(A)	속담은 글의 “구조”와 맞춘다 — “양이 넘친다” =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빈칸(A·B)	정답은 “좋은 말”이 아니라 “글의 축에 맞는 말” — full · pay attention

두 무대 다 축은 “한정된 주의”. 축을 잡으면 좋은 말(경험 공유·자신감)은 전부 소거된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넘침·동시의 말	flood of media · at the same time · multitasking · absorb
한계·용량의 말	limited ability · working memory · take up · conflict
해법의 말	one at a time · stick to · pay attention · full experience
문항의 표지	제목=글의 구조 · 빈칸=글의 축에 맞는 말

- ✓ working memory·take up이 두 지문에 그대로 — 묶어 외운다.
- ✓ full = 온전한·빠짐없는(배부른 아님) — 넘침의 반대.
- ✓ 빈칸은 “좋은 말”이 아니라 “축에 맞는 말” — pay attention.
- ✓ 속담 제목은 글의 구조로 — 양이 넘침 =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다음 단원 예고 — 고1·2편 UNIT 5 「감각과 지각의 통념」으로 이어진다. 가장 낯것 같은 감각조차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를 본다.

눈이 혀를 이기고, 술가락이 맛을 바꾼다.

BEFORE

“맛은 혀가 본다”고 믿는다. 단맛·짭맛은 입안에서 정해진다고 여긴다. 색이나 그릇은 그저 겉들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AFTER

두 실험은 “맛은 혀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색을 바꾸면 전문가도 다른 와인이라 하고(지문 A), 술가락·칼을 바꾸면 같은 음식이 더 달거나 더 짜게 느껴진다(지문 B). 지각은 감각 + 맥락이다.

들어가기 PART 1의 마무리 — 감각도 “재구성”된다

PART 1은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봤다 — 초두 효과·편향·기억·주의. 마지막은 “가장 낯것 같은 감각조차” 재구성됨을 본다.

지문 A는 색(시각)이다 — 붉은 색소를 탄 백포도주를, 전공생도 숙련 전문가도 적포도주라고 시음했다. 시각이 미각을 덮어 쓴다(override). 지문 B는 도구다 — 가벼운 술가락, 흰 술가락, 칼로 먹으면 같은 요구르트·치즈가 더 달거나 더 짜게 느껴진다. 도구가 기대를 바꾸고, 기대가 맛을 바꾼다.

A는 **어법**(문장 구조를 정확히), B는 **빈칸**(무엇이 맛을 바꾸나 → 도구)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20.9 고1 학평 · 어법	2013.9 고2 학평 · 빈칸
정답률	44%	74%
무엇이 맛을 바꾸나	색(시각)	도구(술가락·칼)
증거	전문가도 적포도주로 오인	같은 음식이 더 달게·짜게
열쇠 표현	visual input override	utensils · expectations

한 쌍이다 A는 “보는 것이 맛을 이긴다”, B는 “쥔 것이 맛을 바꾼다”. 둘 다 **혀 바깥의 정보(색·도구)**가 맛 지각을 좌우한다 — 지각은 감각만이 아니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감각 vs 지각 (sensation vs perception)

감각은 감각기관이 받는 **날 신호**(혀의 단맛, 눈의 빛)다. 지각은 그 신호를 **뇌가 해석한 결과**다.

혀·코의 신호(감각) + 색·도구·기대(맥락) → “맛”이라는 지각

그래서 **감각이 같아도 맥락이 다르면 “맛”이 달라진다**

우리는 맛을 **혀가 정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뇌가 여러 정보를 합쳐** 짓는다. 두 지문은 그 “합쳐지는 정보”가 **색(A)**과 **도구(B)**임을 보여 준다.

개념 2 시각 우세와 기대 (visual dominance · expectation)

무엇이	어떻게 맛을 바꾸나	지문
색(시각)	붉게 물들이면 백포도주도 적포도주 맛으로 — 시각이 미각을 덮어씀	A
도구	가벼운·흰 숟가락, 칼 → 기대 가 달라져 단맛·짠맛이 달라짐	B

핵심은 **기대(expectation)**다. B에서 “**가벼운 숟가락이 기대와 맞아서**” 요구르트가 더 진하고 비싸게 느껴졌다. 도구가 기대를 만들고, 기대가 맛을 만든다. A의 색도 마찬가지로 — **붉은색** → “**적포도주일 것**”이라는 기대 → 그 맛으로 지각.

× 맛에 대한 통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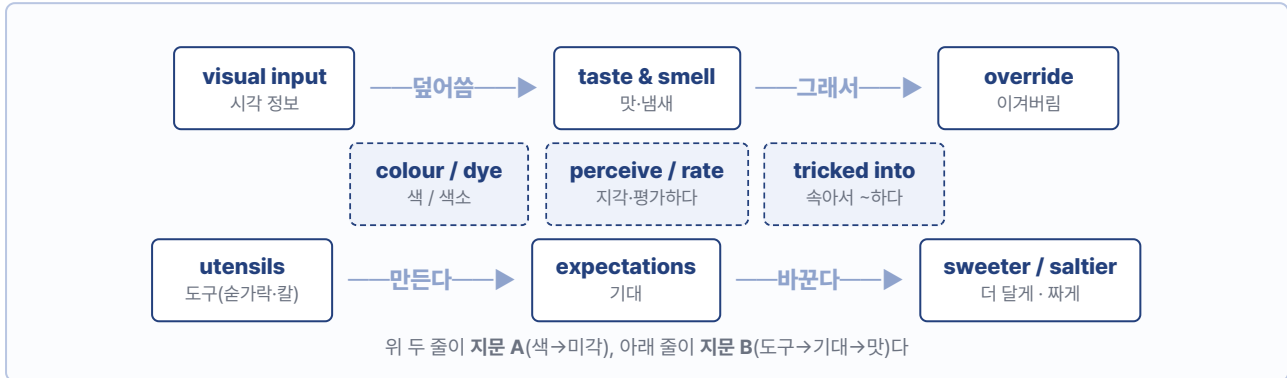
○ 실험이 보여준 것

맛은 혀가 정한다	색·도구 같은 혀 밖 정보가 좌우한다 (A·B)
전문가는 속지 않는다	숙련 전문가도 색에 똑같이 속았다 (A)
그릇은 맛과 무관하다	숟가락·칼이 단맛·짠맛을 바꾼다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지각은 감각 + 맥락.**” A는 색이, B는 도구가 맥락을 만든다. 감각(혀)이 같아도 맥락이 바뀌면 **지각(맛)이 바뀐다**. 그래서 맛은 “**혀만의 것**”이 아니다.

1 · 주제 어휘망 — 감각의 말과 맥락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감각·평가**의 말(taste · perceive · rate)과 **맥락·기대**의 말(visual input · utensils · expectations). **맥락이 감각을 이긴다**가 축이다.



두 지문이 “맛을 바꾸는 것”을 각각 말한다

	지문 A (고1)	지문 B (고2)
바꾸는 것	색(시각)	도구(숟가락·칼)
경로	시각이 미각을 덮어쓰	도구 → 기대 → 맛
누구도	전문가도 속음	일반인 실험 참가자
문항 유형	어법 — 구조 정확히	빈칸 — utensils

이 단원의 열쇠말 — **override**(덮어쓰다)와 **expectations**(기대). A는 시각이 미각을 **override**하고, B는 도구가 **expectations**를 바꿔 맛을 바꾼다. 둘 다 “혀 바깥의 정보”가 결정권을 쥔다.

2 · 지문 A — 보이는 것이 맞을 이긴다

2020.9 고1 학평 · 어법 [3점]

정답률 44%

5문장 · 평균 28토큰

Although it is obvious that part of our assessment of food is its visual appearance, it is perhaps surprising
 Ⓐ **how** visual input can override taste and smell. People find it very Ⓑ **difficult** to correctly identify fruit-
 flavoured drinks if the colour is wrong, for instance an orange drink that is coloured green. Perhaps even
 more striking Ⓒ **is**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s. One study of Bordeaux University students of wine and
 wine making **revealed that** they chose tasting notes appropriate for red wines, such as 'prune and
 chocolate', **when** they Ⓓ **gave** white wine coloured with a red dye. Experienced New Zealand wine experts
 were similarly tricked into thinking Ⓔ **that** the white wine Chardonnay was in fact a red wine, **when** it **had**
been coloured with a red dye.

* override: ~에 우선하다 ** prune: 자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① Ⓐ

② Ⓑ

③ Ⓒ

④ Ⓓ

⑤ Ⓔ

푸는 법 Ⓓ가 정답이다. 학생들이 와인을 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므로 **gave** → **were given**이어야 한다. 앞뒤가 단서다 —
they chose tasting notes(그들이 골랐다)와 **coloured with a red dye**(색을 입힌 것은 연구진). 주는 쪽이 누구인지만 보면 된
 다.

구조 점검 어법이 노리는 자리는 정해져 있다

자리	이 지문의 문장	확인할 것
가주어 it	it is obvious that ~ it is surprising how ~	진짜 주어는 뒤의 that절 / how절
가목적어 it	find it very difficult to identify ~	find + it + 형용사 + to부정사 it을 빼면 틀린다
도치	Perhaps even more striking is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s.	보어가 앞으로 → 동사 is 가 주어보다 먼저 주어는 the experience (단수)
분사 -ed	white wine coloured with a red dye an orange drink that is coloured green	와인이 물들여진 것 → 과거분사 능동 colouring 이면 틀린다

넷 다 “주어가 무엇인가”와 “능동인가 수동인가”로 갈린다. 어법 문항은 문장을 다 해석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 풀린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29토큰 · 주제 선언 **주제문**

양보 **Although** it is **obvious that** part of our assessment of food is its visual appearance,
음식 평가의 일부가 겉모습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무엇이 it is perhaps **surprising**
놀라운 것은 (가주어 it)

진짜 주어 **how visual input can override taste and smell.**
시각 입력이 맛과 냄새를 얼마나 덮어쓸 수 있는가이다.

obvious ↔ surprising **당연한 것과 놀라운 것을 나란히 놓아 어디가 요점인지 표시한다. Although** 뒤가 당연한 쪽(버릴 것), 주절이 놀라운 쪽(주제).

override(덮어쓰다)가 이 지문의 결론어다 — 시각이 미각을 **지워버린다**는 뜻.

② 28토큰 · parsing_core **0.93** — 이 지문 최고 부하

무엇이 People
사람들은

어떻다 find it very difficult **to correctly identify** fruit-flavoured drinks
과일 맛 음료를 **정확히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낀다

예를 들면 if the colour is wrong, for instance an orange drink **that is coloured green.**
색이 틀려 있으면 — 예컨대 **초록으로 물들인** 오렌지 음료 같은 것.

가목적어 it **find it** 형용사 **to부정사** — it은 아무 뜻이 없고 **to identify**가 진짜 목적어다. 이 **it**을 “그것”으로 번역하려 하면 문장이 안 풀린다. **find·think·make·consider**가 이 틀을 자주 쓴다.

③ 11토큰 · 도치

보어가 앞으로 **Perhaps even more striking**
아마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어떻다 **is**
~이다

무엇이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s.**
와인 감평가들의 경험이다.

도치 **보어 + 동사 + 주어** 순서다. 되돌리면 **The experience ... is even more striking.** 왜 뒤집었나 — “더 놀랍다”를 앞세워 다음 사례를 기대하게 만들려고. 주어는 **the experience**(단수).

④ 42토큰 · 사례 1 — 전공생

무엇이

One study of Bordeaux University students of wine and wine making와인과 와인 제조를 공부하는 Bordeaux 대학생 대상 **한 연구가**

어떻다

revealed that they chose **tasting notes appropriate for red wines**, such as 'prune and chocolate',그들이 '자두와 초콜릿' 같은 **적포도주에 맞는** 시음표를 골랐다고 밝혔다,

언제

when they were given **white wine coloured with a red dye**.

붉은 색소로 물들인 백포도주를 받았을 때.

마지막에 온다 42토큰인데 **결정적인 정보가 맨 끝에 있다** — **사실은 백포도주였다**. 앞에서 "적포도주 시음표를 골랐다"만 읽고 넘어가면 무엇이 놀라운지를 놓친다.

⑤ 32토큰 · 사례 2 — 숙련 전문가

무엇이

Experienced New Zealand wine experts

숙련된 뉴질랜드 와인 전문가들도

어떻다

were **similarly tricked into thinking** that the white wine Chardonnay was in fact a red wine,마찬가지로 **속아** 백포도주 샤르도네가 실은 적포도주라고 생각하게 됐다,

언제

when it had been coloured with a red dye.

그것이 붉은 색소로 물들여졌을 때.

한 단어가 논지다 **Experienced**(숙련된)와 **similarly**(마찬가지로)가 이 문장의 값이다. ④는 **학생**이라 "배우는 중이라 그럴겠지" 넘길 수 있지만, ⑤에서 **전문가도 똑같이** 속았다 — **경험으로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제 **정답률 44%가 여기서 나온다**

① **가주어·가목적어 it**이 세 번 나온다. **it**을 "그것"으로 읽으면 세 문장이 흔들린다.

② ⑤이 도치다 — 짧은데 어순이 뒤집혀 **주어를 striking으로 오인**하기 쉽다. 주어는 **the experience**.

③ **coloured**가 두 번, 둘 다 수동이다. **와인이 색을 칠한 게 아니라 색이 칠해진 것** — 정답 ④의 **gave**도 같은 함정이다(받은 것 = were given).

한 줄로 색을 바꿨을 뿐인데 전공생도 전문가도 다른 와인이라고 말했다. 보이는 것이 맛을 덮어쓴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1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assessment	⑥	평가	① our assessment of food 음식에 대한 평가
striking	⑥	놀라운	‘때리는’이 아니다. ③ even more striking 훨씬 더 놀라운
similarly	⑥	마찬가지로	⑤ — 전문가도 학생과 똑같이 이를 잇는 말
input	⑤	입력 정보	① visual input 시각 정보
visual	⑤	시각의	①에 2회 — 이 지문의 열쇠
identify	⑤	식별하다	② correctly identify 정확히 알아보다
reveal	⑤	밝히다	④ revealed that ~ 연구가 ~을 밝혔다
obvious	⑤	분명한	① — surprising 의 반대편에 놓인다
instance	⑤	예, 경우	② for instance 예를 들어
appropriate	⑤	적절한	④ appropriate for red wines 적포도주에 맞는

코퍼스 미등재 — 사전 없이는 못 읽는 것

override 덮어쓰다·무시하고 우선하다 · **dye** 색소·염료 · **prune** 자두(말린) · **taster** 감정가·시음자 · **flavoured** ~맛이 나는 · appropriate for ~에 맞는 · **trick A into -ing A**를 속여 ~하게 하다

합정 override — 이 지문의 결론어인데 코퍼스에 없다

①의 **visual input can override taste and smell**이 이 글의 전부다.

over-(위에) + **ride**(타다) → 위에 올라타 눌러버리다

→ 규칙·설정을 무시하고 덮어쓰다 (컴퓨터의 “오버라이드”)

→ 여기서는 시각이 미각 위에 올라타 결과를 정해버린다

같은 자리의 말 — **overwhelm·outweigh·take precedence over·dominate**. “A가 B를 이긴다”는 동사군으로 묶어 둔다.

잇기 A(색)에서 B(도구)로 — 맥락의 자리만 바뀐다

개념	지문 A (색)	지문 B (도구)
맛을 바꾸는 맥락	visual input (색)	utensils (숟가락·칼)
맛 평가 동사	chose tasting notes	perceived · rated · tasted
숨은 매개	“붉으니 적포도주”라는 기대	“가벼우니 고급”이라는 expectations

A의 색이 B에서는 도구로 바뀔 뿐, 경로는 같다 — 허 밖의 정보 → 기대 → 맛. 두 지문을 겹치면 “지각은 감각 + 맥락”이 두 번 증명된다.

3 · 지문 B — 숟가락과 칼이 맛을 바꾼다

2013.9 고2 학평 · 빈칸

정답률 74%

6문장 · 평균 27토큰

A new study suggests that _____ influence our experience of the food. People **perceived yogurt as denser and more expensive** when eaten with **lighter spoons**, the researchers report today in the journal *Flavour*, probably because those spoons **matched their expectations**. But yogurt tasted with that spoon was also rated as **less sweet** than when eaten with heavier or larger spoons. And the people thought yogurt tasted **sweeter** when they ate it with a **white spoon** than with a black one. In a final experiment with different types of cheese, the researchers found that people rated cheese as **saltier** when they sampled it with a **knife** instead of a fork, spoon, or toothpick. This may have been because eating with a knife is an unusual behavior, the researchers speculated, or because it reminded people of using a knife to try samples in a cheese shop, where cheeses tend to be more aged and therefore saltier.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ges

② places

③ genders

④ utensils

⑤ ingredients

빈칸을 정하는 법

빈칸은 글 첫 문장의 주어다 — 뒤 문장들이 그 주어의 예시다. 뒤에 나오는 것은 전부 숟가락·칼 — 곧 먹는 도구다.

정답 ④ utensils. 재료(⑤ ingredients)를 바꾼 게 아니라 도구만 바꿨는데 맛이 달라졌다는 게 핵심이다.

푸는 법

첫 문장 빈칸 = 나머지의 공통 주어

빈칸이 첫 문장에 있으면, 답은 뒤 예시들의 공통점이다.

예시1 — 가벼운 숟가락 → 더 진하고 비싸게

예시2 — 흰 숟가락 → 더 달게

예시3 — 칼로 먹으면 → 더 짜게

→ 공통점 = 먹는 도구(utensils) = 정답 ④

재료·양·사람은 그대로고 도구만 바꿨다. 그런데 단맛·짠맛이 달라졌다 — 도구가 “기대(expectations)”를 바꾸고, 기대가 맛을 바꾼 것이다. A의 색과 같은 경로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② 10 + 34토큰 · 주장과 첫 근거 빈칸

한 연구는 A new study suggests that _____ (utensils) **influence our experience of the food.**
한 연구는 _____ (도구)가 음식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시사한다.

가벼운 숟가락일 때 People **perceived yogurt as denser and more expensive** when eaten with **lighter spoons**,
probably because those spoons **matched their expectations.**
가벼운 숟가락으로 먹을 때 요구르트를 더 진하고 비싸게 지각했다 — 그 숟가락이 기대와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matched their expectations — 숨은 기제 빈칸 = 뒤 예시의 공통 주어. 그리고 “기대와 맞아서(matched their expectations)”가
이 글의 기제다 — 도구가 직접 맛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대를 거쳐 바꾼다.

③ ④ 근거 — 같은 요구르트, 다른 맛

그러나 But yogurt tasted with that spoon was rated as **less sweet** than with heavier or larger spoons.
그러나 그 숟가락으로 먹은 요구르트는 더 무겁거나 큰 숟가락보다 덜 달다고 평가됐다.

흰 숟가락일 때 And people thought yogurt tasted **sweeter** with a **white spoon** than with a black one.
그리고 흰 숟가락으로 먹을 때 검은 숟가락보다 더 달다고 느꼈다.

같은 음식, 도구만 다름 요구르트는 똑같다. 바뀐 건 숟가락의 무게·색뿐인데 단맛 평가가 달라졌다 — 도구가 미각을 바꾼다는 직접 증거
다. **rated·tasted·thought**가 모두 “느낌(지각)”의 말.

⑤ 31토큰 · 마지막 실험 — 칼과 치즈 **쌔기**

사람들은 치즈를 In a final experiment, people rated cheese as **saltier** when they sampled it with a **knife** instead of a fork, spoon, or toothpick.

마지막 실험에서, 포크·숟가락·이쑤시개 대신 **칼**로 맛볼 때 치즈를 **더 짭چه** 평가했다.

knife → saltier — 세 번째 도구 숟가락(무게·색)에 이어 **칼**이 세 번째 도구다. 결과는 **더 짭چه** — **도구가 바뀌니 짭까지 바뀐다**. 세 예시가 모두 “**도구가 맛을 바꾼다**”로 모인다.

⑥ 36토큰 · 왜 그런가(추측) **해석**

왜냐하면(추측) This may have been because eating with a knife is **an unusual behavior**, or because it **reminded people of a cheese shop**, where cheeses are more aged and therefore saltier.

칼로 먹는 게 드문 행동이라서, 혹은 치즈 가게를 떠올리게 해서일 수 있다 — 그곳 치즈는 더 숙성돼 더 짜다.

may have been · speculated — 단정이 아니다 **may have been**(~였을 수 있다)과 **speculated**(추측했다)는 **조심스러운 해석**이다. 결과(칼→더 짭چه)는 확실하지만 **이유는 추측** — 둘 다 “**기대·연상**”이 맛을 바꾼다는 방향.

정체 **고2 74% — 쉬운 편, 함정은 ㉠ ingredients**

㉠ **ingredients**(재료) — 음식·맛 이야기라 끌린다. 그러나 **재료는 그대로고 도구만 바꿨다** — 정반대 함정

㉡㉢(ages·places·genders) — **지문에 근거 없음**, 나이·장소·성별은 안 나옴

㉣ **utensils** — 숟가락·칼이 전부 여기 묶인다 = 정답

규칙 하나 — 첫 문장 빈칸은 “**뒤 예시들의 공통 상위어**”다. 숟가락·칼 = 도구(utensils). “**음식이니까 재료**”라는 연상이 함정이다.

한 줄로 같은 요구르트·치즈인데, 숟가락의 무게·색과 칼이 단맛·짭맛을 바꿨다 — **도구가 기대를, 기대가 맛을 바꾼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2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맛 평가 동사**(perceive-rate-taste)가 촌촌하다 — 전부 “**느낌(지각)**”의 말이다. 그리고 **expectations(기대)**가 A의 기대와 같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utensil	5	(식사) 도구	④ 정답 — 숟가락·포크·칼의 상위어
perceive	6	지각하다, 느끼다	② perceived yogurt as ~ ~로 지각했다
expectation	6	기대, 예상	② matched their expectations — 숨은 기대
rate	6	평가하다	③⑤ rated as less sweet / saltier
sample	5	맛보다, 시식하다	⑤ sampled it with a knife 칼로 맛보다
speculate	5	추측하다	⑥ the researchers speculated — 조심스러운 해석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experience of the food 음식 경험 · **denser** 더 진한 · **match one's expectations** 기대와 맞다 · **instead of ~ ~** 대신 · **toothpick** 이쑤시개 · **unusual behavior** 드문 행동 · **remind A of B** A에게 B를 떠올리게 하다 · **aged** 숙성된

함정 **perceive/rate/taste — 전부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 지문의 동사는 모두 **주관적 지각**을 가리킨다 — 요구르트가 실제로 바뀐 게 아니다.

perceived as denser — 실제로 진해진 게 아니라 **진하게 “느꼈다”**

rated as saltier — 실제로 짜진 게 아니라 **짜게 “평가했다”**

tasted sweeter — 당이 는 게 아니라 **달게 “느꼈다”**

이 “느낌 동사”들이 곧 “지각은 감각만이 아니다”의 증거다. 음식(감각)은 그대로인데 **도구(맥락)**가 바뀌자 **느낌(지각)**이 바뀌었다. **perceive-rate-taste as ~**가 나오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지각**”으로 읽는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지각은 감각만이 아니다

	지문 A · 색	지문 B · 도구
맥락	시각(색)	도구(술가락·칼)
경로	색 → 기대 → 미각을 덮어쓰	도구 → 기대 → 맛을 바꿈
증거	전문가도 적포도주로 오인	같은 음식이 더 달게·짜게
문항 열쇠	어법 — 주어·능동/수동	빈칸 — 예시의 공통 상위어

A는 “보는 것이 맛을 이기고”, B는 “원 것이 맛을 바꾼다”. 둘 다 혀 바깥의 정보(색·도구)가 “기대”를 거쳐 맛을 만든다 — 지각은 감각 + 맥락이다. 가장 낯것 같은 감각조차 뇌가 재구성한다는 것, 그게 PART 1의 마지막 결론이다.

근거 어법·빈칸, 이렇게 푼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어법(A)	주어가 무엇인가 + 능동/수동만 확인 — gave→were given(받은 것)
빈칸(B)	첫 문장 빈칸 = 뒤 예시들의 공통 상위어 — 술가락·칼 = utensils

어법은 해석 전에 구조, 빈칸은 연상 전에 예시의 공통점 — 둘 다 “느낌”이 아니라 “근거”로 고른다. ingredients(재료) 같은 그럴듯한 연상이 함정이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감각·평가의 말	perceive · rate · taste as · assessment · identify
맥락의 말	visual input · colour/dye · utensils · expectations
이겨버리는 말	override · tricked into · matched · influence
문항의 표지	어법=주어·태 · 빈칸=예시의 공통 상위어

- ✓ **override = 덮어쓰다** — 시각이 미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지워버린다.
- ✓ **gave → were given** — 학생은 와인을 “받은” 쪽(수동).
- ✓ **첫 문장 빈칸 = 뒤 예시의 공통 상위어** — 술가락·칼 = utensils.
- ✓ **perceive/rate/taste as = 주관적 지각** — 음식이 아니라 느낌이 바뀐 것.

PART 1을 마치며 — 초두 효과·편향·기억·주의·감각까지,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섯 단원으로 지나왔다. 다음 **UNIT 6 '위험은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PART 1의 마지막이다.

위험은 통계가 아니라 감정으로 느껴진다.

BEFORE

“나는 위험을 냉정히 따진다”고 믿는다. 확률을 알면 그에 맞게 판단한다고 여긴다. 비행기가 무서운 건 실제로 위험해서라고 생각한다.

AFTER

두 지문은 위험 지각이 통계와 어긋난다고 한다. 통제할 수 없으면 더 무섭고(지문 A), 떠올리기 쉬운 극적인 것을 과대평가한다(지문 B). 느낌이 확률을 이긴다.

들어가기 PART 1의 마지막 — 위험도 “재구성”된다

PART 1은 초두 효과·편향·기억·주의·감각을 지나왔다. 마지막은 “위험”이다 — 가장 냉정해야 할 판단조차 감정과 연상에 휘둘린다.

지문 A는 통제감이다 — 비행 공포는 통제권이 없어서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훨씬 위험한 운전을 택한다(자동차 사망 1/5,000 vs 비행기 1/1,100만). 불안을 가장 적게 주는 쪽을 고르는 것 —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다. 지문 B는 가용성이다 — 쉽게 떠오르는 극적인 위험(추락·살인·폭탄)을 과대평가하고, 조용한 위험(당뇨·위암·우울)을 과소평가한다.

A는 빈칸(무엇을 최소화하려 하나 → 불안), B는 제목(극적인 것을 더 크게 잔다)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23.9 고1 학평 · 빈칸	2018.6 고2 학평 · 제목
정답률	60%	51%
왜곡의 원인	통제감 결여	가용성(쉽게 떠오름)
증거	더 위험한 운전을 택함	극적 위험 과대·조용한 위험 과소
열쇠 표현	lack of control · least anxiety	easily come to mind · overestimate

한 쌍이다 A는 “통제할 수 없으면 더 무섭다”, B는 “떠올리기 쉬우면 더 크게 보인다”. 둘 다 실제 확률과 어긋나는 위험 지각이다 — 비행기가 양쪽 모두의 대표 예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통제 착각과 감정 (control · affect) — 지문 A

같은 위험이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무섭기가 달라진다.

비행기 — 승객은 통제권이 없다(조종은 조종사) → 공포 ↑

자동차 — 내가 운전대를 잡는다(통제감) → 공포 ↓

그런데 통제는 반대 — 자동차가 훨씬 위험(1/5,000 vs 1/1,100만)

그래서 사람들은 더 위험한 운전을 택한다 — 불안을 가장 적게 주는 쪽이라서. 결정의 근거가 “사실”이 아니라 “느낌(least anxiety)”인 것이다.

개념 2 가용성 휴리스틱 (availability heuristic) — 지문 B

“쉽게 떠오르는 것”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고의 지름길이다.

위험의 종류	실제 vs 지각
극적 위험	추락·살인·폭탄 — 드문데 과대평가(뉴스로 쉽게 떠오름)
조용한 위험	당뇨·위암·우울 — 흔한데 과소평가(잘 안 떠오름)

뉴스·영화로 생생하게 떠오르는 위험은 크게,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은 작게詹다 — 머릿속 “위험 지도”가 실제와 어긋난다.

× 위험에 대한 통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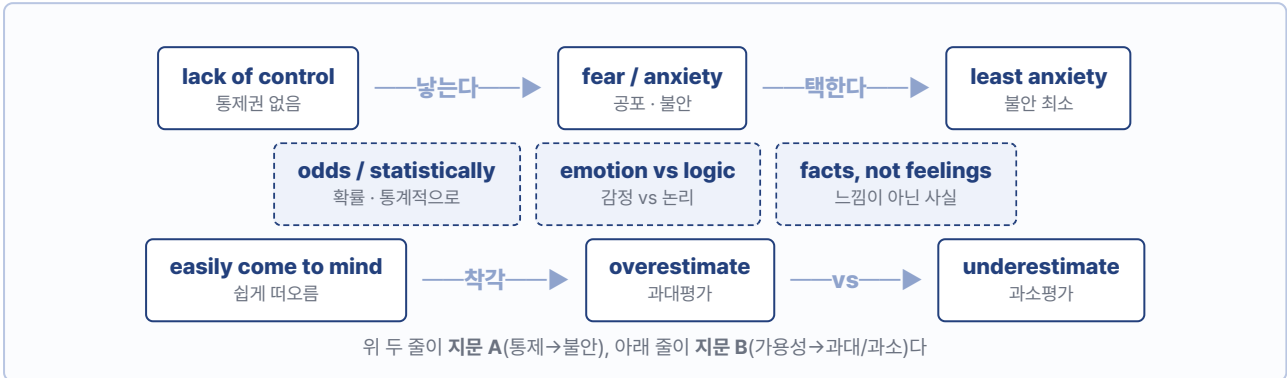
○ 지문이 말하는 것

무서운 것 = 실제로 위험한 것	통제 못 하면 더 무섭다(위험과 별개) (A)
확률을 알면 합리적으로 판단	불안을 줄이는 쪽(감정)을 택한다 (A)
자주 떠오르면 자주 일어나는 것	떠오르기 쉬울 뿐, 빈도와 무관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위험 지각 ≠ 실제 확률.” A는 통제감이, B는 가용성이 지각을 왜곡한다. 둘 다 비행기를 예로 든다 — 통계로는 안전한데, 통제할 수 없고(A) 추락이 생생히 떠올라(B) 무섭게 느껴진다.

1 · 주제 어휘망 — 느낌의 말과 확률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느낌·왜곡**의 말(fear · anxiety · overestimate)과 **확률·사실**의 말(odds · statistically · logic). 글은 언제나 “**느낌이 확률을 이긴다**”는 쪽이다.



두 지문이 “위험 지각의 왜곡”을 각각 말한다

	지문 A (고1)	지문 B (고2)
왜곡의 원인	통제감 결여	가용성(떠오름)
결과	더 위험한 운전 선택	극적 위험 과대평가
공통 예	비행기(안전한데 무섭다)	비행기 추락(과대평가)
문항 유형	빈칸 — least anxiety	제목 — 극적인 것을 더 쟀다

이 단원의 열쇠 대립 — **emotion(감정) ↔ logic(논리) / feelings ↔ facts**. A의 마지막 문장 “**facts, not just feelings**”가 두 지문을 관통한다. 위험은 **확률(fact)**로 재야 하는데 **느낌(feeling)**으로 쟀다 — 그게 두 왜곡의 공통 뿌리다.

2 · 지문 A — 통제할 수 없으면 더 무섭다

2023.9 고1 학평 · 빈칸

정답률 60%

9문장 · 평균 19토큰

Many people are terrified to fly in airplanes. Often, this fear **stems from a lack of control**. The pilot is in control, not the passengers, and this lack of control **instills fear**. Many potential passengers are so afraid they **choose to drive great distances** to get to a destination instead of flying. But their decision to drive is **based solely on emotion, not logic**. Logic says that statistically, the odds of dying in a car crash are around **1 in 5,000**, while the odds of dying in a plane crash are closer to **1 in 11 million**. If you're going to take a risk, especially one that could possibly involve your well-being, wouldn't you want **the odds in your favor**? However, most people choose the option that will cause them the **least amount of** _____. Pay attention to the thoughts you have about taking the risk and make sure you're basing your decision on **facts, not just feelings**.

* instill: 스며들게 하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nxiety ② boredom ③ confidence
④ satisfaction ⑤ responsibility

빈칸을 정하는 법 빈칸은 **However(그러나)** 뒤에 온다 — 앞의 **“논리라면 확률이 유리한 쪽”**을 뒤집는다. 사람들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고른다 → **“least amount of ___”**는 **불안(anxiety)**이다. 비행 공포의 원인이 **fear**였으니, 최소화하려는 것도 그 계열 = **anxiety**.

푸는 법 **fear로 시작해 anxiety로 닫힌다**

원인 — 비행 공포는 **lack of control** → fear

행동 — 더 위험한 **운전**을 택함(emotion, not logic)

대비 — 통계는 운전이 2,200배 위험(1/5,000 vs 1/11,000,000)

결론(빈칸) — 사람들은 불안(anxiety)이 가장 적은 쪽을 고른다.

fear · afraid · anxiety가 한 계열이다. 글이 처음부터 “**무서움**”을 말했으니 빈칸도 그 계열 — **확률이 아니라 “불안을 덜 주는 쪽”**을 택한다는 것. ③ confidence · ④ satisfaction은 **긍정 감정**이라 방향이 반대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②③ 공포의 원인 — 통제권 주제

많은 이가

Many people are **terrified to fly**. Often, this fear **stems from a lack of control**.

많은 사람이 비행을 무서워한다. 이 공포는 흔히 통제권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즉

The pilot is in control, not the passengers, and this lack of control **instills fear**.

통제하는 건 조종사지 승객이 아니며, 이 통제권 부재가 공포를 스며들게 한다.

stems from a lack of control — 공포의 뿌리 공포의 원인이 “위험” 자체가 아니라 “통제권 없음”이다 — 이 글의 열쇠다. **instill fear**(공포를 스며들게 하다)가 그 결과. 같은 위험도 내가 못 다루면 더 무섭다.

④⑤ 감정으로 내린 결정 전환

많은 승객이

Many are so afraid they **choose to drive great distances** instead of flying.

너무 무서운 나머지 비행 대신 먼 거리를 운전하기를 택한다.

그러나

But their decision to drive is **based solely on emotion, not logic**.

그러나 운전하려는 결정은 오로지 감정에 근거한 것이지 논리가 아니다.

emotion, not logic — 판정 But이 방향을 튼다 — 무서워서 택한 운전이 사실 더 위험하다. **emotion ↔ logic**의 대립이 이 글의 축이고, 마지막 **facts, not feelings**로 다시 나온다.

⑥⑦ 통계와 반문 **근거****논리로 보면**

Logic says the odds of dying in a **car crash** are about **1 in 5,000**, while a **plane crash** is closer to **1 in 11 million**.

논리로는, **자동차 사고** 사망 확률이 약 **1/5,000**, **비행기 추락**은 **1/1,100만**에 가깝다.

반문

If you take a risk involving your well-being, wouldn't you want **the odds in your favor**?

안녕이 걸린 위험을 감수한다면, **확률이 유리한 쪽**을 원하지 않겠는가?

1 in 5,000 vs 1 in 11 million — 2,200배 두 확률의 대비가 이 글의 **사실(fact)**이다 — **운전이 비행보다 약 2,200배 위험**. **수사의문**(wouldn't you ~?)은 “**당연히 확률 유리한 쪽**”을 유도한다 — 다음의 반전을 위한 밑밥.

⑧⑨ 빈칸과 처방 **정답 ①****그러나**

However, most people choose the option that causes the **least amount of** _____ (anxiety).

그러나 대부분은 _____ (불안)을 가장 적게 주는 쪽을 고른다.

그러니

Pay attention to your thoughts about the risk and base your decision on **facts, not just feelings**.

위험에 대한 생각에 주의하고, **느낌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 결정하라.

least anxiety ↔ facts, not feelings **However**가 “확률 유리한 쪽”(⑦)을 뒤집는다 — 실제로는 **불안을 덜 주는 쪽**을 고른다. 빈칸 = **anxiety**(공포 계열). 그리고 처방 **facts, not feelings**가 빈칸을 확증한다 — 최소화하려던 게 **feeling(불안)**이었다는 것.

정체 고1 60% — 긍정 감정 오답에 걸린다

③ confidence · ④ satisfaction — **긍정 감정**이라 “좋은 걸 최대화”로 착각. 그러나 문장은 **least(최소)** — 줄이려는 건 **부정 감정**이다

② boredom(지루함) — 위험·공포와 **무관**

① anxiety — 글 전체의 **fear-afraid** 계열 = 정답

규칙 하나 — **least/most** 뒤의 빈칸은 “**줄이려는가 늘리려는가**”를 먼저 본다. **least amount of** ___이면 **줄이고 싶은 것** = 부정 감정 = anxiety.

한 줄로 통계로는 운전이 훨씬 위험한데, 통제할 수 없는 비행이 더 무서워 사람들은 불안이 적은 쪽을 택한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1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의 어휘는 **공포 계열**(terrified·fear·anxiety)과 **확률 계열**(odds·statistically)로 갈린다. 둘의 대립이 곧 **feeling ↔ fact** 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anxiety	6	불안	정답 — least amount of anxiety 불안을 최소로
odds	6	확률, 가능성	㉡ the odds of dying / odds in your favor
terrified	6	겁에 질린	㉠ terrified to fly 비행을 몹시 무서워하는
stem from	6	~에서 비롯되다	㉢ fear stems from a lack of control
solely	5	오로지	㉤ based solely on emotion 오로지 감정에
destination	5	목적지	㉣ drive to a destination 목적지까지 운전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instill fear 공포를 스며들게 하다 · **a lack of control** 통제권의 부재 · **be in control** 통제권을 쥐다 · **based on emotion, not logic** 논리가 아닌 감정에 근거 · **1 in 5,000** 5천분의 1 · **the odds in your favor** 유리한 확률 · **well-being** 안녕·행복 · **facts, not just feelings** 느낌이 아닌 사실

합정 odds — “이상한”이 아니라 “확률”

odds를 형용사 **odd(이상한)**와 헷갈리면 ㉡이 통째로 막힌다. 여기서는 명사 “**확률·가능성**”이다.

the odds of dying — 죽을 확률

the odds in your favor — 유리한 확률(내 쪽에 유리한 승산)

odds는 이 글의 “**사실(fact)**” 쪽 열쇠어다 — 감정(feeling)과 맞세워지는 통계. **1 in N** 형태와 함께 나오면 “**확률**”로 굳힌다. 비슷한 말 — **chance·probability·likelihood**.

3 · 지문 B — 극적인 것에 가능성을 더 준다

2018.6 고2 학평 · 제목

정답률 51%

9문장 · 평균 18토큰

We create a picture of the world using the examples that **most easily** come to mind. **This is foolish**, of course, because in reality, things **don't happen more frequently just because we can imagine them more easily**. Thanks to this **prejudice**, we travel through life with an **incorrect risk map** in our heads. Thus, we **overestimate** the risk of being the victims of a plane crash, a car accident, or a murder. And we **underestimate** the risk of dying from **less spectacular** means, such as diabetes or stomach cancer. The chances of bomb attacks are **much rarer than we think**, and the chances of suffering depression are **much higher**. We **attach too much likelihood** to spectacular, flashy, or loud outcomes.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we **downgrade** in our minds. Our brains imagine **impressive** outcomes **more readily than ordinary** ones.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We Weigh Dramatic Things More!
- ② Brains Think Logically, Not Emotionally
- ③ Our Brains' Preference for Positive Images
- ④ How Can People Overcome Their Prejudices?
- ⑤ The Way to Reduce Errors in Risk Analysis

오답은 왜 그럴듯한가

선택지	왜 끌리는가 · 왜 아닌가
②	뇌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 정확히 반대다. 이 글은 뇌가 인상적인 것에 휘둘린다 고 말한다. 방향 뒤집힘
③	긍정적 이미지 선호 — 긍정/부정이 아니라 극적/평범 의 문제다. 지문의 예는 추락·살인·폭탄으로 전부 부정적 이다. 초점 어긋남
④⑤	편견을 어떻게 극복 / 오류를 줄이는 법 — 이 글은 진단만 하고 해결책은 한 줄도 없다 . How to ~ / The Way to ~ 는 방법이 나왔는지부터 확인. 판소재

함정 ④·⑤가 함께 걸어 놓은 덫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다. 독자는 문제를 읽으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데, 이 글은 **진단만 하고 끝난다**. 제목에 **How to ~ / The Way to ~**가 보이면 **지문에 정말 방법이 나왔는지부터 확인**한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원대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17토큰 · 현상 제시

무엇이 We create a picture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림을 만든다

무엇으로 using the examples that **most easily come to mind**.
가장 쉽게 떠오르는 사례들을 써서.

지도 비유의 시작 a picture of the world(세상의 그림)가 ㉠의 risk map(위험 지도)으로 이어진다. 머릿속에 그려 놓은 세상이라는 비유가 이 글 전체를 관통한다.

② 26토큰 · 판정 **주제문**

뒤집기 **This is foolish**, of course, because in reality, things **don't happen more frequently**
이건 어리석다 — 현실에서 일이 더 자주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just because we can imagine them more easily**.
우리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가 축이다 쉽게 떠오르는 것과 자주 일어나는 것을 갈라 놓는 문장이다 — 모든 예시의 근거. **just because**가 핵심 — “그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 because로만 읽으면 정반대가 된다.

③ 18토큰 · 결과에 이름 붙이기

무엇 때문에 Thanks to this **prejudice**,
이 편향 때문에,

어떻다 we travel through life with an **incorrect risk map** in our heads.
우리는 머릿속에 틀린 위험 지도를 가지고 삶을 지나간다.

Thanks to 의 함정 **Thanks to**는 보통 “~ 덕분에”로 배우지만, 여기서 편향 “때문에” 틀린 지도를 갖게 된다 — 나쁜 결과다. 원인 표시일 뿐 좋고 나쁨을 정하지 않는다. **prejudice**가 ㉠㉡를 한 단어로 받는다.

이름표 PART 1에서 만난 “실제 대신 무엇이 판단을 정하나”

초두 효과 → 먼저 온 것이 정한다 UNIT 1

확증 편향 → 이미 믿는 것이 정한다 UNIT 1

인지 편향·탈편향 → 알아채고 다뤄야 한다 UNIT 2

가용성 휴리스틱 → 쉽게 떠오르는 것이 정한다 ← 이 단원

④⑤⑥ 23 + 19 + 22토큰 · 대칭 사례

과대평가

Thus, we **overestimate** the risk of **a plane crash, a car accident, or a murder**.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추락·자동차 사고·살인의 위험을 과대평가한다.

과소평가

And we underestimate the risk of dying from **less spectacular** means, such as **diabetes or stomach cancer**.

그리고 덜 극적인 방식(당뇨·위암)으로 죽을 위험은 과소평가한다.

숫자로

The chances of bomb attacks are **much rarer than we think**, and the chances of suffering depression are **much higher**.

폭탄 공격은 생각보다 훨씬 드물고,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은 훨씬 높다.

대칭으로 읽는다

overestimate ↔ underestimate가 나란히 놓인다. 구조가 거의 같고 **동사와 예시만 바뀐다** — 한 덩어리로 묶어 읽는다. ㉠이 **rarer ↔ higher**로 한 번 더 확인시킨다.

⑦⑧⑨ 14 + 10 + 11토큰 · 원리로 압축

제목 근거

어떻다

We **attach too much likelihood** to **spectacular, flashy, or loud** outcomes.

우리는 극적·요란·시끄러운 결과에 가능성을 지나치게 매긴다.

앞으로 나온 목적어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we **downgrade** in our minds.

조용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속에서 깎아내린다.

한 줄로

Our brains imagine **impressive** outcomes **more readily than ordinary** ones.

우리 뇌는 평범한 결과보다 인상적인 결과를 더 쉽게 상상한다.

목적어가 앞에 나왔다

㉠의 어순 — **Anything silent or invisible**(목적어) **we downgrade**. 원래는 **We downgrade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의 **spectacular, flashy, loud**와 **맞세우려고** 목적어를 앞으로 뺐다(대비 도치). ㉢가 제목 ㉠을 그대로 말한다.

정체 고2 51% — 진단만 하고 끝난다

① ④·⑥ 오답이 “극복법·줄이는 법”을 제시하는데, 지문에는 **해결책이 한 줄도 없다**. 문제를 읽으면 답을 기대하는 습관이 함정.② ㉡의 **just because**를 흘린다 — just가 빠지면 문장이 반대로 읽힌다.

③ 긍정/부정으로 갈라 읽는다(③ 오답). 축은 극적 ↔ 평범이지 좋음 ↔ 나쁨이 아니다 — 예시가 전부 나쁜 일인데도 한쪽은 과대, 한쪽은 과소다.

한 줄로

쉽게 떠오르는 것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머릿속 위험 지도가 틀어져 있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2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overestimate	8	과대평가하다	④ — underestimate와 한 쌍. 이 글의 뼈대
underestimate	7	과소평가하다	⑤ — under-(아래) + estimate
incorrect	7	틀린	③ incorrect risk map — 결과에 붙는 판정
readily	7	쉽게, 선뜻	⑨ more readily 더 쉽게
frequently	6	자주	② — 실제 빈도 쪽을 가리키는 말
impressive	6	인상적인	⑩ — spectacular:flashy와 한 무리
attach	5	부여하다	'붙이다'만이 아니다. ⑦ attach likelihood to ~ 가능성을 매기다
prejudice	5	편향	'인종 편견'만이 아니다. ③ — 인지적 치우침
outcome	5	결과	⑦⑩ — 상상되는 대상
victim	5	희생자	④ the victims of ~

코퍼스 미등재 — 사전 없이는 못 읽는 것

likelihood 가능성 · spectacular 극적인·볼만한 · flashy 요란한 · invisible 보이지 않는 · downgrade 깎아내리다 · diabetes 당뇨병 · depression 우울증 · foolish 어리석은

읽기 지문 A와 B — 같은 왜곡, 다른 기제

두 지문 다 위험 지각이 실제 확률과 어긋난다고 하되, 기제가 다르다.

지문	왜곡의 기제	비행기 예
A · 통제감	통제 못 하면 더 무섭다	승객은 통제권이 없어 무섭다
B · 가용성	쉽게 떠오르면 크게 잔다	추락이 생생해 과대평가

같은 비행기가 A에서는 “통제 못 해서”, B에서는 “추락이 떠올라서” 무섭다 — 둘 다 통제(1/1,100만)와 어긋난다. 위험은 확률이 아니라 느낌으로 지각된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위험은 느낌으로 지각된다

	지문 A · 통제감	지문 B · 가용성
왜곡의 원인	통제권 없음	쉽게 떠오름
판단 근거	감정(least anxiety)	연상(easily come to mind)
결과	더 위험한 운전 선택	극적 위험 과대평가
문항 열쇠	least ____ = 부정 감정	진단만, 해결책 없음

A는 “통제 못 하면 더 무섭고”, B는 “떠올리기 쉬우면 더 크게 보인다”. 둘 다 실제 확률(fact)과 어긋나는 위험 지각이다 — 비행기가 양쪽의 대표 예다. 위험은 통제가 아니라 감정·연상으로 재구성된다 — 그게 PART 1의 마지막 결론이다.

PART 1을 닫으며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여섯 왜곡

단원	무엇이 판단을 정하나
UNIT 1 첫인상·초두	먼저 온 것 / 스쳐 본 것
UNIT 2 인지 편향	가정·편향(정정·탈편향으로)
UNIT 3 기억	주의와 기억이 선별·재구성
UNIT 4 주의력	한정된 예산(멀티태스킹 불가)
UNIT 5 감각	색·도구가 지각을 바꿈
UNIT 6 위험	통제감·가용성이 지각을 왜곡

여섯 단원이 한 문장으로 모인다 — “마음은 사실을 그대로 담지 않고, 골라 담고 재구성한다.” 이 눈으로 보면, 어떤 지문의 첫 문단도 “당연한 전제”가 아니라 “의심할 틀”로 읽힌다.

- ✓ 공포는 위험이 아니라 “통제권 없음”에서 온다 — stems from a lack of control.
- ✓ least ____ 뒤 빈칸 = 줄이려는 것 = 부정 감정(anxiety).
- ✓ just because = “그 이유만으로는 아니다” — 가용성의 급소.
- ✓ 제목의 How to/The Way to는 지문에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

PART 1을 마치며 —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섯 단원을 지나왔다. 다음 PART에서는 사람과 사회로 시야를 넓혀, 개인의 마음에서 사람들 사이로 나아간다.

과학은 순수한 진리가 아니다.

BEFORE

“과학은 객관적이고, 사회과학은 그보다 못하다”고 여긴다. 논문에 실렸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AFTER

두 지문은 지식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고 한다. 사회과학의 “뒤처짐”은 무지가 아니라 통제력의 문제이고(지문 A), 자연과학조차 자금·편향에서 자유롭지 않다(지문 B). 지식은 한계와 이해관계 속에 선다.

들어가기 PART 2의 첫 소재 — 지식은 어떻게 서는가

PART 1은 개인의 마음이었다. PART 2는 지식 자체를 본다 — 과학·학문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디서 흔들리는가.

지문 A는 사회과학 옹호다 —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뒤처졌다”는 비판은 그 학문의 진짜 성격을 모른 것이다. 사회 문제 해결엔 지식뿐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필요한데, 학자는 그 힘(통제력)이 없다. 지문 B는 과학 비판이다 — 전문 기준·동료 심사가 있어도 과학은 편향될 수 있다. 하버드 연구진이 설탕 산업 자금을 받고 지방을 탓하는 논문을 냈고, 그것이 설탕의 위험 인식을 늦추는 데 일조했다 — 소비를 키웠다. 자금 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A는 문장삽입(비판자 소개→그들은 모른다→예시), B는 어휘(문맥과 어긋난 낱말 찾기)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18.11 고1 학평 · 문장삽입	2025.3 고2 학평 · 어휘
정답률	41%	59%
방향	사회과학 옹호	과학 신뢰에 경고
핵심	지식 ≠ 실행력(통제)	자금·편향 → 회의 필요
열쇠 표현	influence people · control	biased · source of funding

한 쌍이다 A는 “사회과학을 알보지 마라(그 한계는 무지가 아니다)”, B는 “자연과학을 맹신하지 마라(편향될 수 있다)”. 둘을 겹치면 “어떤 지식도 순수·완결이 아니다”가 남는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사회과학의 특수성 — 지식과 실행력 (지문 A)

사회과학이 “문제를 못 푼다”는 비판은 학문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다.

비판 — 정확한 법칙도 없고, 사회악(차별·범죄·빈곤·전쟁)도 못 없앴다

반박 — 사회 문제 해결엔 지식뿐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필요

→ 학자는 알아내도 실행(통제)할 위치에 없다 — 독재자조차 한계가 있다

핵심은 “알기(knowledge) ↔ 하기(control)”의 구분이다. 사회과학의 한계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실행력의 부재다 — 이게 자연과학과 다른 점이다.

개념 2 과학의 편향과 자금 (지문 B)

전문 기준·동료 심사가 있어도 과학은 편향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회의가 필요하다.

1960년대 하버드 연구진 — 설탕 산업 자금을 받고

지방을 건강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설탕에서 눈 돌림)

→ 그 논문이 설탕의 위험을 가려, 이후 대응을 늦추는 데 일조했다

교훈은 “자금 출처를 알라(source of funding)”다. 이 사건 이후 자금 공개(funding disclosure)가 의무화됐다 — 의심이 안전장치를 낳은 것이다.

× 지식에 대한 통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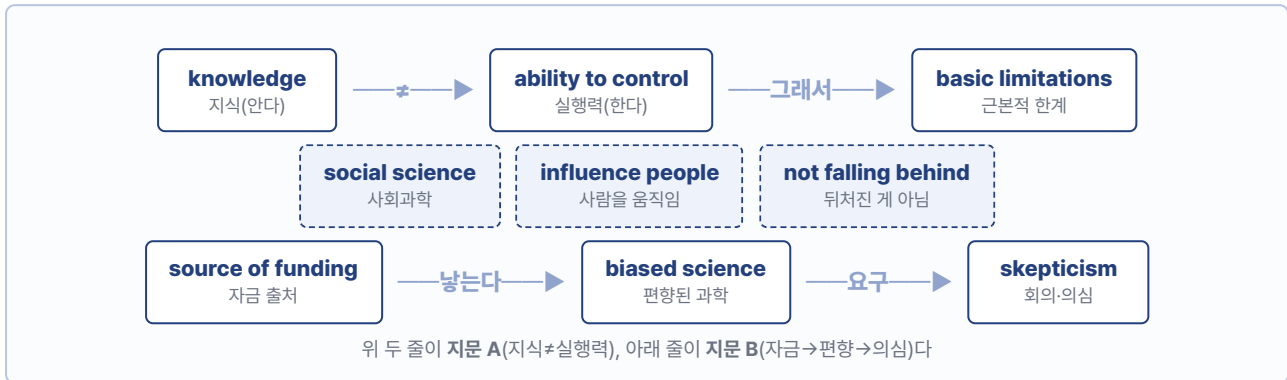
○ 지문이 말하는 것

사회과학은 덜 떨어진 과학	성격이 다를 뿐 — 한계는 통제력 문제 (A)
과학은 객관적이라 믿을 만	자금·이해관계로 편향될 수 있다 (B)
논문에 실렸으면 사실이다	자금 출처를 봐야 한다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지식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라.” A는 사회과학의 한계를 오해하지 말라 하고, B는 자연과학의 객관성을 맹신하지 말라 한다. 지식은 진공이 아니라 “한계와 이해관계” 속에 선다 —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1 · 주제 어휘망 — 학문을 말하는 어휘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학문·평가**의 말(social science · objectivity · peer review)과 **한계·의심**의 말(limitation · biased · skepticism). 지식의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 축이다.



두 지문이 “지식의 그들”을 각각 말한다

	지문 A (고1)	지문 B (고2)
대상	사회과학	과학 일반
그들	실행력(통제)의 부재	자금·편향
태도	비판자의 오해를 지적	회의·비판이 필요
문항 유형	문장삽입 — Such critics	어휘 — ㉔ discouraged

이 단원의 열쇠 대립 — **knowledge(안다) ↔ ability to control/influence(한다)**. A의 축이다. 그리고 B는 **objectivity(객관) ↔ biased(편향)**로 같은 통념을 흔든다. “안다=한다”도, “객관=사실”도 아니다 — 지식은 그렇게 단순히 서지 않는다.

2 · 지문 A — 사회과학은 왜 뒤쳐져 보이는가

2018.11 고1 학평 · 문장 삽입 [3점]

정답률 41%

7문장 · 평균 23토큰

Some people believe that **the social sciences are falling behind the natural sciences.** ㉠ They **maintain** that **not only** does social science have **no exact laws**, **but it also** has failed to eliminate great social evil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crime, poverty, and war. ㉡ They suggest that social scientists have failed to accomplish what migh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of them. ㉢ For example, they forget that the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requires **not only knowledge but also the ability to influence people.** ㉣ **Even if** social scientists discover the proced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followed to achieve social improvement, they are **seldom in a position to control social action.** ㉤ **For that matter**, even dictators find that there are limits to their power to change society.

주어진 문장 **Such critics** are usually unaware of the real nature of social science and of its special problems and basic limitations.

그런 비판자들은 대개 사회과학의 진짜 성격과 그 고유한 문제·근본적 한계를 모른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3점]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리를 정하는 법 빼 보면 지시가 끊긴다

주어진 문장의 **Such critics**(그런 비판자들) — 비판자들이 앞에 나와 있어야 쓴다. ㉠㉡㉢이 그 비판자들이다. 그러니 ㉣ 뒤가 후보다.

확인 = 빼 보기로 한다.

빼면 ㉣ ...failed to accomplish... → **For example, they forget that...** — 무엇의 예시인지가 없다

→ **넣으면** **Such critics are unaware of the real nature...** → **For example, they forget...** — 모른다는 예시로 잇는다가 정확히 붙는다

For example 앞에는 예시할 진술이 있어야 한다. 그 진술이 빠져 있는 자리가 삽입 자리다.

자리를 정하는 법 주어진 문장의 **Such critics**는 앞에 비판자들이 나와 있어야 쓴다. ㉠㉡가 그 비판자들이고, ㉣ 뒤의 **For example**이 그들의 무지를 예시한다 — 비판자 소개 → 그들은 모른다 → 예를 들면. 그래서 정답은 ㉣ ㉤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14토큰 · 남의 주장을 세운다

무엇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어떻다

believe that the social sciences are **falling behind** the natural sciences.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뒤처지고 있다고 믿는다.

Some people believe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다. **Some people believe / Some argue / It is often said**는 남의 말을 소개하는 틀이고, 뒤에 **반박이 온다는** 예약이다.

UNIT 5의 **it is obvious that**(감각 지문)과 같은 자리다 — 남의 통념을 세우고 뒤집는 틀. 이 표시를 놓치면 첫 문장을 주제로 잡는다.

② 35토큰 · 비판의 내용

무엇이

They **maintain** that

그들은 주장한다

비판 1

not only does social science have **no exact laws**,

사회과학은 정확한 법칙이 없을 뿐 아니라,

비판 2

but it also has failed to **eliminate great social evil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crime, poverty, and war.

거대한 사회악(인종차별·범죄·빈곤·전쟁)을 없애는 데도 실패했다고.

도치 주의 **not only does social science have ~ — not only**가 문두에 오면 뒤가 도치된다. 원래는 **social science does not only have ~**.

비판이 둘이다 — 이론(법칙 없음)과 실천(문제 못 풀). 뒤에서 글쓴이는 **실천 쪽만 반박**한다.

③ 18토큰 · 비판의 요약

어떻다

They suggest that social scientists have **failed to accomplish what migh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of them**.

사회과학자들이 마땅히 기대되었을 만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다.

긴 명사절 **what migh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of them**이 통째로 **accomplish**의 목적어다. 빼대는 **what was expected of them**(그들에게 기대된 것) — **might-reasonably-have been**은 수식.

④ ㉔ 21 + 24토큰 · 반박과 예시 **삽입 자리****뒤집기**

Such critics are usually unaware of the real nature of social science and of its special problems and basic limitations.

그런 비판자들은 사회과학의 진짜 성격과 고유한 문제·근본적 한계를 모른다. ← 주어진 문장

예를 들면

For example, they forget that the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requires not only knowledge but also the ability to influence people.

예컨대 사회 문제 해결이 지식뿐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까지 요구한다는 걸 잊는다.

not only A but also B — 되받아치기 ㉔에서 비판자가 쓴 틀을 ㉔에서 글쓰기가 되받아 쓴다. ㉔ 법칙도 없고 + 문제도 못 풀었다 → ㉔ 지식만이 아니라 + 영향력도 필요하다. 무게는 늘 **but also** 쪽 — 여기서서는 **the ability to influence people**.

⑥ ㉔ 28 + 18토큰 · 못을 박는다

~한다 해도

Even if social scientists **discover the procedures** to achieve social improvement, they are **seldom in a position to control social action**.

설령 개선 절차를 알아낸다 해도, 그들은 사회적 행동을 통제할 위치에 좀처럼 있지 않다.

더 나아가

For that matter, even dictators find that there are **limits to their power** to change society.

그 점에서는 독재자조차 사회를 바꾸는 힘에 한계가 있음을 안다.

알기 ↔ 하기 **discover the procedures**(알아낸다) ↔ **control social action**(실행한다) — **Even if**가 갈라 놓는다: **알아도 못 한다**. ㉔의 **even dictators**가 빼기 — **가장 큰 권력조차** 못 한다면 학자는 말할 것도 없다.

정체 정답률 41%가 여기서 나온다

- ① 첫 문장을 주제로 잡는다. **Some people believe**는 남의 말인데 “사회과학은 뒤쳐졌다”를 글의 주장으로 읽으면 뒤가 전부 어긋난다.
- ② ㉔의 도치를 못 본다. **not only does social science have** ~에서 **does**가 왜 나왔는지 모르면 주어를 못 찾는다.
- ③ 삽입 자리를 앞쪽에서 찾는다. **Such critics**는 비판자가 다 나온 뒤(㉔)라야 쓸 수 있다. ㉔㉔㉔이 전부 비판이므로 그 앞은 후보가 아니다.

한 줄로 사회과학이 못 해낸 건 아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행할 힘이 없어서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1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eliminate	6	없애다	㉔ eliminate great social evils — 비판의 잣대
procedure	6	절차	㉔ — 알아내는 것의 대상
limitation	6	한계	㉔ basic limitations — 이 글의 열쇠말
improvement	6	개선	㉔ social improvement
racial	6	인종의	㉔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
maintain	5	주장하다	‘유지하다’가 아니다. ㉔ — believe-suggest와 같은 무리
seldom	5	좀처럼 ~않다	㉔ — 부정어다. 놓치면 결론이 반대가 된다
accomplish	5	이루다	㉔ failed to accomplish
influence	5	영향을 미치다	㉔ the ability to influence people — 반박의 핵심
knowledge	5	지식	㉔ — 실행력과 나란히 놓이는 것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critic 비판자 · dictator 독재자 · discrimination 차별 · unaware of ~ ~을 모르는 · reasonably 마땅히·합리적으로 · fall behind 뒤처지다 · be in a position to ~ ~할 위치에 있다 · for that matter 그 점에서는

합정 부정어가 숨어 있다

이 지문은 부정이 다섯 번 나오는데 세 개는 not이 아니다.

no exact laws → 법칙이 없다

failed to eliminate / accomplish → 못 했다

unaware of ~ → 모른다

seldom in a position → 좀처럼 아니다

limits to their power → 힘에 한계가 있다

seldom이 가장 위험하다 — 부사인데 부정어라 눈에 안 띈다. seldom-rarely-hardly-scarcely-barely는 “거의 ~않다”로 묶어 외운다. 이 다섯이 보이면 문장은 부정문이다.

3 · 지문 B — 과학도 자금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5.3 고2 학평 · 어휘

정답률 59%

9문장 · 평균 24토큰

There are reasons why science is **not fully trusted** and why healthy skepticism and critical thinking are essential. In spite of professional standards, claims of objectivity, and the peer review process, the conduct of science can be ㉠biased. All experts are not the same, nor do they submit their work to the same scrutiny. Knowing the source of funding can be ㉡important in evaluating scientific claims. For example, the Harvard researchers who made claims in the late 1960s about the problems with **dietary fat**, leading the nation away from perceiving sugar as one of the main causes in health problems, were **funded in part by the sugar industry**. The authors did not reveal their funding source to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where their ㉢influential article appeared. Their article shaped a generation of changes in eating patterns that appears to have ㉣discouraged higher use of sugar, now widely implicated as a source of the rise in obesity and diabetes. Stories such as this one fuel suspicion — but also lead to further safeguards in the scientific process. Funding ㉤disclosures, although not required five decades ago, have since been made compulsory.

* skepticism: 회의주의 ** scrutiny: 심층 조사 *** implicate: 관련이 있음을 알려 주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합정 ㉣가 정답이다. 그 논문은 지방을 탓하며 설탕에서 눈을 돌리게 했고, 결과적으로 설탕 소비를 “**키웠다 (fostered/encouraged)**”. 그런데 **discouraged**(억제했다)는 정반대다 — 뒤의 “**비만·당뇨의 원인**”과 어긋난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② 주장 — 과학도 편향된다 주제

이유가 있다

There are reasons why science is **not fully trusted** and why **skepticism and critical thinking are essential**.

과학이 온전히 신뢰받지 못하고, 회의와 비판적 사고가 필수인 데는 이유가 있다.

~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professional standards, objectivity, and peer review, the conduct of science can be **biased**.

전문 기준·객관성·동료 심사에도 불구하고, 과학 수행은 편향될 수 있다.

In spite of ~ can be biased — 주제

“그 모든 장치에도 불구하고 편향될 수 있다”가 주제다. ㉠ **biased(편향된)**는 글 방향과 일치하므로 옳다. **skepticism-critical thinking**이 이 글이 권하는 태도다.

③ ④ 자금 출처가 중요하다

즉

All experts are not the same, nor do they submit their work to the same **scrutiny**.

모든 전문가가 같지 않고, 같은 심층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중요하다

Knowing the **source of funding** can be ㉡ **important** in evaluating scientific claims.

자금 출처를 아는 것이 과학적 주장을 평가할 때 ㉡ **중요**할 수 있다.

source of funding — 이 글의 열쇠

“자금 출처(source of funding)”가 핵심어다. ㉡ **important**도 방향에 맞아 옳다 — 곧 “누가 돈을 냈는가”가 주장의 신뢰를 좌우한다는 것. 다음 문장이 그 사례다.

⑤⑥ 하버드·설탕 산업 사례 **근거**

하버드 연구진은 Harvard researchers in the late 1960s made claims about **dietary fat**, leading the nation **away from perceiving sugar** as a main cause, **funded in part by the sugar industry**.

1960년대 말 하버드 연구진은 **지방**에 대한 주장을 펴 **설탕**에서 **눈을 돌리게** 했고 — **설탕 산업의 자금**을 일부 받았다.

그런데 The authors **did not reveal their funding source** to the journal, where their ㉠**influential** article appeared.

저자들은 학술지에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그 ㉠**영향력** 있는 논문이 실렸다.

funded by the sugar industry — 이해관계 **설탕 산업이 돈을 낸** 연구가 **설탕이 아니라 지방을 탓했다** — 자금과 결론의 방향이 맞물린다. ㉠ **influential**(영향력 있는)도 옳다 — 다음 문장에서 그 “영향”이 드러난다.

⑦ 그 논문의 결과 **정답 ㉠**

키웠다(→오답 discouraged) Their article shaped eating patterns that appears to have ㉠**discouraged** (→ fostered) **higher use of sugar**, now implicated in **obesity and diabetes**.

그 논문은 **설탕 소비**를 늘린(→키운) 식습관을 형성했고, 이는 지금 **비만·당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discouraged ↔ higher use — 모순 ㉠가 정답이다. “**higher use of sugar**(설탕 소비 증가)”와 **obesity·diabetes**(비만·당뇨)가 뒤따르니, 논문은 설탕 소비를 “**키운(fostered)**” 것이다. **discouraged**(억제했다)는 정반대 — **문맥과 정면 모순**이라 틀린 낱말이다.

⑧⑨ 의심이 안전장치를 낳는다 **결론**

그러나 Stories such as this **fuel suspicion** — **but also lead to safeguards**. Funding ㉡**disclosures**, not required five decades ago, have since been made **compulsory**.

이런 이야기는 **의심**을 부추기지만 — **안전장치**도 낳는다. 자금 ㉡**공개**는 50년 전엔 필수가 아니었으나 이후 **의무화**됐다.

suspicion → safeguards — 반전 결론 **의심(suspicion)**이 나쁘게만 끝나지 않는다 — **안전장치(safeguards)**를 낳는다. ㉡ **disclosures**(공개)도 옳다. **건강한 회의**가 과학을 더 낫게 만든다는 결론.

정체 **고2 59% — 어휘는 “글의 방향”으로**

㉠ biased · ㉡ important · ㉢ influential · ㉣ disclosures는 **모두 글 방향과 일치**한다 (과학은 편향될 수 있고, 자금이 중요하고, 논문은 영향력 있었고, 공개는 안전장치).

오직 ㉠ **discouraged**만 “**설탕 소비 증가·비만·당뇨**”와 모순

→ 문맥이 요구하는 건 **fostered/encouraged**(키웠다) = 정답 ㉠

규칙 하나 — 어휘 문항은 단어 뜻이 아니라 “글의 인과 방향”으로 푼다. 설탕에서 눈 돌린 논문 → 소비 증가 → 비만·당뇨. 이 사슬을 거스르는 낱말이 정답이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2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과학의 신뢰**를 말하는 말이 축이다 — **objectivity · peer review · funding**. A의 **knowledge**가 여기선 **과학의 주장 (claims)**으로 이어진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biased	6	편향된	㉠ conduct of science can be biased — 주제어
funding	6	자금(지원)	㉡㉢ source of funding 자금 출처
objectivity	6	객관성	㉣ claims of objectivity 객관성 주장
evaluate	6	평가하다	㉤ evaluating scientific claims
reveal	6	밝히다, 드러내다	㉥ did not reveal their funding source
compulsory	5	의무적인	㉦ made compulsory 의무화되다

코퍼스 미등재 — 뜻을 새겨 둘 것

skepticism 회의주의 · **scrutiny** 심층 조사 · **peer review** 동료 심사 · **dietary fat** 식이 지방 · **implicate** 관련 있음을 알려 주다 · **fuel suspicion** 의심을 부추기다 · **safeguard** 안전장치 · **disclosure** 공개 · **obesity** 비만 · **diabetes** 당뇨병

함정 어휘 문항 — “글의 방향”이 낱말의 옳고 그름을 정한다

㉤ **discouraged**는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다. 글의 인과와 어긋나서 틀렸다.

논문 — 설탕이 아니라 **지방**을 **탓함**(설탕에서 눈 돌림)

결과 — **설탕 소비 증가** → 비만·당뇨

→ 논문은 소비를 **키웠다(fostered)**, 결코 **억제(discouraged)**하지 않았다

규칙 하나 — 어휘(문맥) 문항은 “글 전체의 방향”을 먼저 세운 뒤, 그 흐름을 **거스르는 한 낱말**을 찾는다. 방향(설탕↑)만 잡으면 **discouraged**가 된다. 지문 A의 “글 방향으로 삽입 자리 찾기”와 같은 원리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어떤 지식도 순수·완결이 아니다

	지문 A · 사회과학	지문 B · 자연과학
통념	사회과학은 덜 떨어진 과학	과학은 객관적이라 믿을 만
지문의 반박	한계는 통제력(실행)의 문제	자금·편향에 물들 수 있다
권하는 태도	학문의 성격을 정확히 보라	회의·자금 출처를 보라
문항 열쇠	글 방향으로 삽입 자리	글 방향으로 틀린 낱말

A는 “사회과학을 알보지 마라”, B는 “자연과학을 맹신하지 마라”. 방향은 반대 같지만 뿌리는 하나다 — 지식은 진공이 아니라 “한계와 이해관계” 속에 선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두 문항 다 “글의 방향”이 답을 정했다.

근거 문장삽입·어휘, 한 원리로 푼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문장삽입(A)	지시어(Such critics)가 앞을 받는지 + For example 앞에 진술이 있는지
어휘(B)	글의 인과 방향을 세우고 거스르는 낱말을 찾음(설탕↑ → discouraged 모순)

유형은 달라도 열쇠는 같다 — “글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삽입은 그 방향의 끊긴 자리, 어휘는 그 방향을 거스르는 낱말을 찾는 문제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학문·평가의 말	social science · objectivity · peer review · evaluate claims
한계·의심의 말	basic limitations · biased · skepticism · source of funding
안다↔한다	knowledge ↔ ability to influence/control · discover ↔ control
문항의 표지	삽입=지시어·For example · 어휘=인과 방향 거스름

- ✓ Some people believe = 남의 말 — 뒤에 반박이 온다.
- ✓ seldom·rarely·hardly = 부정어 —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든다.
- ✓ 어휘 정답은 “글의 방향을 거스르는 낱말” — discouraged↔설탕 소비 증가.
- ✓ 지식은 한계·이해관계 속에 선다 — 사회과학도, 자연과학도.

다음 단원 예고 — 고1·2편 UNIT 8 「탈레스와 리케이온 — 이성의 탄생과 제도화」으로 이어진다. 참된 앎이란 무엇인가를 고전에서 본다.

종교의 답을 이성으로 바꾸며 철학이 태어났다.

BEFORE

철학은 어렵고 먼 이야기라고 여긴다. 고대 그리스 이름이 나오면 연도·인물을 외우는 문제인 줄 안다.

AFTER

두 지문은 “이성으로 따져 묻는 태도”가 어떻게 시작됐나를 본다. 종교의 답을 이성으로 바꾼 순간이 철학의 탄생이고(지문 A), 몸을 단련하던 터가 서양 최초의 대학이 되었다(지문 B). 철학은 “질문하는 법”의 역사다.

들어가기 PART 2의 둘째 소재 — 이성이 서는 자리

UNIT 7에서 지식이 한계·이해관계 속에 선다는 걸 봤다. 이 단원은 한 걸음 앞으로 가 “이성적으로 따져 묻는 태도 자체가 어떻게 생겨났나”를 본다.

지문 A는 철학의 탄생이다 — 초기 사회는 답을 종교에서 찾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설명이 불충분하다 여겨 이성에 근거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 전환이 곧 철학이고, 첫 사상가가 탈레스다. 지문 B는 첫 대학이다 — 1996년 아테네 공사장에서 2500년 전 건물터가 나왔다. 체육관·레슬링장이 있던 몸을 단련하던 곳이, 알고 보니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 세계 최초의 대학이었다.

A는 어휘 선택(네모 안 낱말), B는 문장삽입(단서 문장의 자리)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17.9 고1 학평 · 어휘 선택	2017.11 고2 학평 · 문장삽입
정답률	58%	57%
무엇의 탄생	철학(종교→이성)	대학(몸→지성)
인물·장소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열쇠 표현	reason · shift · birth of philosophy	more than · first university

한 쌍이다 A는 “이성으로 답하기 시작한 순간”(철학의 탄생), B는 “그 이성을 가르친 첫 터”(첫 대학)다. 질문하는 태도가 제도(대학)로 자리 잡는 과정 — 서양 지성의 뿌리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철학의 탄생 — 종교에서 이성으로 (지문 A)

철학은 “답”이 아니라 “답하는 방식”에서 태어났다.

초기 사회 — 세상과 내 자리에 대한 답을 **종교**에서 찾음

전환 — 어떤 이들이 그 설명을 **불충분하다** 여겨 **이성**으로 답을 찾음

→ 이 **전환(shift)**이 곧 **철학의 탄생** — 첫 사상가 **탈레스**

핵심은 “주어진 답을 받지 않고 따져 묻기 시작한 것”이다. 탈레스가 물려준 것은 **답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과정”**과 “무엇이 좋은 설명인가의 기준”이었다.

개념 2 첫 대학 — 몸의 터가 지성의 터로 (지문 B)

고대 그리스에서 “배움”은 몸과 마음을 함께 길렀다.

1996년 아테네 공사장 — **2500년 전 건물터** 발견

체육관·레슬링장·목욕탕 — **청년들이 군인·시민으로 훈련하던 곳**

그러나 **몸만 단련한 곳이 아니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 **세계 최초의 대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언급한 터

gymnasium(체육관)이 “**지성의 학교**”가 된 것 — 몸을 단련하던 자리에서 **생각을 단련하는 제도(대학)**가 자랐다. A의 “**질문하는 태도**”가 터를 잡은 모습이다.

× 철학에 대한 통념

○ 지문이 말하는 것

철학은 **어려운** 답들의 모음

철학은 **답하는 “방식”**에서 태어났다 (A)

배움 = **머리만** 쓰는 일

몸의 터(체육관)가 **지성의 터**가 됐다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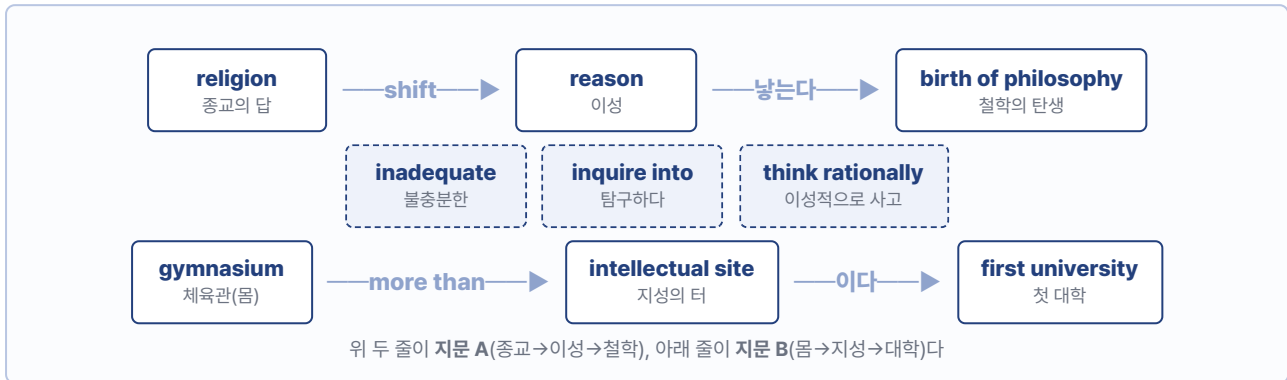
대학은 **근대**의 발명

2400년 전 리케이온이 첫 대학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이성으로 묻는 태도의 시작.**” A는 그 태도가 생겨난 **순간**(종교→이성), B는 그 태도가 자리 잡은 **터**(첫 대학)다. **질문** → **제도**로 이어지는 서양 지성의 첫 장면이다.

1 · 주제 어휘망 — 철학 지문의 두 기동

먼저 철학·지성사 지문의 어휘는 **두 기동**이다. **이성·탐구**의 말(reason · inquire · philosophy)과 **탄생·전환**의 말(birth · shift · site). **reason**은 “이유”가 아니라 “이성”임을 먼저 못 박는다.



두 지문이 “이성의 시작”을 두 장면으로 본다

	지문 A (고1)	지문 B (고2)
무엇의 시작	철학(태도)	대학(제도)
전환	종교 → 이성	몸 → 지성
인물·장소	탈레스	리케이온(아리스토텔레스)
문항 유형	어휘 선택 — 네모 (A)(B)(C)	문장삽입 — But it was more than

이 단원의 열쇠말 — **reason(이성)**과 **shift(전환)**. A는 **종교→이성**의 shift가 철학을 낳고, B는 **몸→지성**의 전환이 대학을 낳는다. **reason-rational-rationally**가 함께 나오면 “이유”가 아니라 “이성”이다.

2 · 지문 A — 신화에서 이성으로

2017.9 고1 학평 · 어휘 선택

정답률 58%

6문장 · 평균 22토큰

From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people have asked questions about the world and their place within it. For early societies, the answers to the most basic questions were found in (A) [religion / science]. Some people, however, found the traditional religious explanations inadequate, and they began to search for answers based on reason. This (B) [shift / consistency] marked the birth of philosophy, and the first of the great thinkers that we know of was Thales of Miletus. He used reason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the universe, and encouraged others to do likewise. He passed on to his followers not only his answers but also the process of thinking (C) [rationally / irrationally], together with an idea of what kind of explanations could be considered satisfactory.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religion consistency rationally
 ② religion shift irrationally
 ③ religion shift rationally
 ④ science shift irrationally
 ⑤ science consistency rationally

푸는 법 세 자리를 따로 정하고 조합을 찾는다

자리	근거가 되는 말	정답
(A)	바로 뒤 문장에 traditional religious explanations — 앞에서 말한 그것을 religious로 받는다	religion
(B)	앞이 However ... began to search for answers based on reason —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consistency(일관성)는 안 바뀜이라 반대	shift
(C)	글 전체가 reason의 탄생을 말한다. 탈레스가 물려준 것이 비이성적일 리 없다	rationally

세 자리를 다 맞춰야 정답이지만, 하나만 확실히 잡아도 선택지가 반으로 준다. (A)를 religion으로 잡으면 ④⑤가 죽고, (B)를 shift로 잡으면 ①이 죽는다. 남은 ②③ 중 (C)가 rationally인 ③.

어휘 선택 문항의 원리 네모 안 두 낱말은 거의 반대말이다. 그러니 뜻을 몰라도 방향만 잡으면 된다 — “앞뒤가 같은 방향인가 반대 방향인가”. 이 지문의 세 자리는 전부 바로 앞이나 바로 뒤 문장이 근거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② 20 + 16토큰 · 배경

언제부터

From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떻다

people have asked questions about the world and **their place within it**.
사람들은 세상과 그 안에서 자기 자리에 대해 물어 왔다.

어떻다

For early societies, the answers to the most basic questions were found **in religion**.
초기 사회에서 그 답은 종교에서 찾아졌다. ← (A)

두 물음

물음이 둘이다 — 세상에 대한 것과 그 안의 내 자리에 대한 것. 철학·종교 지문의 단골 짝이다 — 세계관과 인간관을 함께 묻는다.

③ 23토큰 · 전환

이 글의 축

뒤집기

Some people, **however**, found the traditional religious explanations **inadequate**,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종교적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여겼고,

어떻다

and they began to search for **answers based on reason**.
이성에 근거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find + 목적어 + 형용사

found the explanations inadequate —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여겼다”. **find A B**(A를 B라고 여기다) 틀이다. **found**를 “발견했다”로 읽으면 어색해진다.

however가 이 글의 축이다 — 앞은 종교, 뒤는 이성. (B)의 **shift**가 이 전환을 가리킨다.

확인 (A)와 (B)는 이 두 문장에서 정해진다

②의 (A) — ③이 **traditional religious explanations**로 받는다. 앞에 있던 게 **religion**이라야 **religious**로 받을 수 있다.

②의 (B) — ②에서 종교 → 이성으로 바뀌었다. 그 바뀜을 가리키는 말은 **shift**(변화)이지 **consistency**(일관성)가 아니다.

네모 문항은 이렇게 “근거 문장”이 따로 있다. 네모만 노려보지 말고 그 말을 받거나 설명하는 문장을 찾는다.

PART 1과 이어진다. UNIT 5에서 지각은 구성물이라는 걸 와인 실험으로 봤다. 여기 ③의 “종교적 설명이 불충분하다”도 같은 자리다 — 주어진 답을 받지 않고 따져 묻기 시작하는 순간이 이성의 출발이다. 2400년 전에는 논증으로, 현대에는 실험으로 같은 데 도달한다.

④ ㉔ 24 + 19토큰 · 이름을 붙인다

무엇이

This shift

이 변화가 ← (B)

어떻다

marked the birth of philosophy, and the first of the great thinkers that we know of was Thales of Miletus.

철학의 탄생을 알렸고, 우리가 아는 한 첫 위대한 사상가는 밀레토스의 탈레스였다.

어떻다

He used reason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the universe, and encouraged others to do likewise.

그는 이성으로 우주의 본질을 탐구했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권했다.

mark의 뜻

mark는 “표시하다”가 아니라 “~을 나타내다~의 계기가 되다”다. This shift marked the birth of ~ = 이 변화가 곧 ~의 시작이었다. that we know of(우리가 아는 한)는 겸손한 단서 — 지우고 읽어도 빠대는 안 흔들린다.

⑥ 32토큰 · 무엇을 물려주었나

(C)

물려주었다

He passed on to his followers not only his answers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기 답만이 아니라

무엇을 2

but also the process of thinking rationally,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과정도 ← (C)

무엇을 3

together with an idea of what kind of explanations could be considered satisfactory.

어떤 설명이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생각과 함께.

여기가 이 글의 값

not only A but also B — 무게는 B에 있다(UNIT 7에서도 같았다). 물려준 것 중 값진 건 답이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무엇이 좋은 설명인가의 기준”이다. 답·방법·기준 셋 — PART 2의 “지식은 어떻게 서는가”가 여기서 시작한다.

정체

정답률 58%가 여기서 나온다

① (B)를 못 정한다. shift와 consistency 중 고르려면 ㉔에서 무언가 바뀌었다는 걸 봐야 한다. however를 흘리면 판단 근거가 없다.

② found를 “발견했다”로 읽는다. find A B 틀을 놓치면 ㉔이 어색해지고 (B) 근거도 안 잡힌다.

③ 세 자리를 한꺼번에 보려 한다. 어휘 선택은 한 자리씩 확정하고 소거한다.

한 줄로

종교로 답하던 자리를 이성으로 답하기 시작했고, 그 전환이 철학이다. 탈레스는 답이 아니라 답하는 방법과 기준을 물려주었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1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likewise	7	마찬가지로	㉔ do likewise 그와 같이 하다 — 앞 동작을 통째로 받는다
religious	6	종교의	㉓ — (A)의 근거. 앞의 religion을 받는다
shift	5	변화, 전환	㉔ — (B)의 정답. '옮기다'보다 "바뀜"이 핵심
inquire	5	탐구하다	㉔ inquire into ~ — '문의하다'가 아니라 파고들다
explanation	5	설명	㉓㉔ 2회 — 종교의 설명 ↔ 만족스러운 설명
philosophy	5	철학	㉔ the birth of philosophy
religion	5	종교	㉔ — (A)의 정답
reason	6	이성	㉓㉔ — '이유'가 아니다. 이 단원의 열쇠말
nature	6	본질	㉔ the nature of the universe — '자연'이 아니다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inadequate 불충분한 · rationally 이성적으로 ·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 follower 추종자 · thinker 사상가 · pass on to ~에게 물려주다 · mark the birth of ~ ~의 시작을 알리다 · that we know of 우리가 아는 한

▶ 함정 철학 지문에서 뜻이 바뀌는 쉬운 단어들

reason → 이유 ☒ 이성 ☐ — rational·reasoning이 옆에 있으면 확실

nature → 자연 ☒ 본질 ☐ — the nature of ~ 풀이면 거의 '본질'

subject → 주제 ☒ 대상 / 피험자 ☐ — 여러 실험 지문에서 이미 여러 번

subject처럼 "이 지문이 무슨 종류인가"가 뜻을 정한다 — 철학 지문이면 학술 쪽 뜻

셋 다 중학 어휘인데 철학 지문에서는 학술적인 쪽 뜻으로 쓰인다. 지문의 종류를 먼저 정하면 뜻이 따라온다.

3 · 지문 B — 몸을 단련하던 터가 첫 대학이 되다

2017.11 고2 학평 · 문장 삽입

정답률 57%

7문장 · 평균 26토큰

In 1996, as construction workers cleared a site in downtown Athens for the foundations of a new Museum of Modern Art, they found **traces of a large structure** sitting on the bedrock. ㉠ A building had occupied this same spot **some two-and-a-half thousand years earlier**, when it was part of a wooded sanctuary outside the original city walls, on the banks of the River Ilissos. ㉡ The excavation uncovered the remains of a **gymnasium, a wrestling arena, changing rooms and baths**. ㉢ This had been a **place for athletics and exercise**, where the young men of Athens had trained to become **soldiers and citizens**. ㉣ The archaeologists soon realised that they had fou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ites in all of western European intellectual culture**, a site referred to continually by history's greatest philosophers: **the Lyceum of Aristotle**. ㉤ It was **the world's first university**.

* sanctuary: 신전

주어진 문장 But it was more than just a centre for physical improvement.

그러나 그곳은 신체 단련을 위한 곳 그 이상이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리를 정하는 법 주어진 문장의 **But ... more than just physical improvement**는 “몸 단련”을 앞에 두고 “그 이상(지성)”을 뒤에 예고한다. 앞(㉢까지)은 **체육관·운동** 이야기, 뒤(㉤ 이후)는 **지성사의 성지·리케이온** 이야기다. 그 이음매가 ㉠ — 정답 ㉣.

왜 ㉣인가 “몸 → 그 이상 → 지성”의 이음매

몸 ~㉢ a place for athletics and exercise (군인·시민 훈련) 신체 단련

→ **전환** But it was more than just physical improvement 주어진 문장(㉣)

→ **지성** ㉤ 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ites ... the Lyceum of Aristotle 지성의 성지

But ... more than just X는 “X만이 아니다 → 더 큰 Y가 온다”는 신호다. 여기서 X=신체 단련, Y=지성사의 성지. 그 사이 (㉣)에 넣어야 앞뒤가 이어진다. ㉤에 넣으면 이미 “가장 중요한 지성의 터”라 한 뒤라 “그 이상”이 뒷북이 된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② 발굴의 시작 도입

1996년

In 1996, clearing a site in Athens for a new museum, workers found **traces of a large structure** on the bedrock.

1996년, 새 미술관 부지를 정리하던 인부들이 암반 위에서 큰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한 건물이

A building had occupied this spot **2,500 years earlier**, part of a wooded sanctuary outside the city walls.

한 건물이 2500년 전 이 자리에 있었다 — 성벽 밖 숲속 신전의 일부였다.

had occupied — 대과거 발견은 1996년(과거), 건물이 있던 건 그보다 2500년 전 — 그래서 과거완료(had occupied)다. 발굴 이야기는 “현재 발견 ↔ 먼 과거”의 두 시제가 오간다.

③ ④ 무엇이 나왔나 몸의 터

발굴로 드러났다

The excavation uncovered a **gymnasium, a wrestling arena, changing rooms and baths**.

발굴로 체육관·레슬링장·탈의실·목욕탕이 드러났다.

즉

This had been a **place for athletics and exercise**, where young men **trained to become soldiers and citizens**.

이곳은 운동과 단련의 장소였다 — 청년들이 군인·시민이 되려 훈련하던 곳.

gymnasium — 몸의 터 체육관·레슬링장·목욕탕은 전부 몸(신체 단련)의 어휘다. 여기까지 읽으면 “운동 시설”이 전부인 듯 보인다 — 주어진 문장 “But ... more than physical”이 이 뒤(④)에서 방향을 튼다.

주어진 문장 ㉔ 자리 — 몸에서 지성으로 **전환**

그러나

But it was more than just a centre for physical improvement.

그러나 그곳은 신체 단련의 장소 그 이상이었다.

more than just X — 방향 전환

“신체 단련만이 아니었다” — 앞의 몸(체육관)을 인정하되 “그 이상(지성)”을 예고한다. 이 한 문장이 몸 → 지성의 이음매다. 그래서 ㉔(몸) 뒤, ㉕(지성) 앞에 들어간다.

㉕ ㉖ 정체가 밝혀진다 **지성의 터**

깨달았다

The archaeologists soon realised they had fou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ites in western European intellectual culture**, referred to by history's greatest philosophers: **the Lyceum of Aristotle**.

고고학자들은 곧 서유럽 지성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터의 하나를 찾았음을 깨달았다 — 위대한 철학자들이 늘 언급한 곳,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한마디로

It was **the world's first university**.

그곳은 세계 최초의 대학이었다.

intellectual culture / first university — 지성의 어휘

㉔까지의 몸의 어휘(gymnasium)가 여기서 지성의 어휘(intellectual·philosophers·university)로 바뀐다. **the Lyceum of Aristotle**가 정체 — 몸을 단련하던 터가 곧 생각을 단련하는 첫 대학이었다.

정체 고2 57% — ㉕ 오답에 걸린다

㉕ ㉖에 넣고 싶어진다 — 마지막 “first university” 앞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㉔ 뒤에서 이미 “가장 중요한 지성의 터”라 했다 → 거기서 “그 이상”은 뒷북

㉕ ㉖에 넣으면 — 아직 “몸”만 나왔는데 “그 이상”이 나오면 Y(지성)가 뒤에 없다

㉔ ㉕ — 몸(㉔) 다음, 지성(리케이온) 앞 = 정확한 이음매

규칙 하나 — “more than just X”는 X와 Y 사이에 들어간다. X(신체 단련)가 끝나고 Y(지성사의 성지)가 시작되는 경계(㉔)가 자리다.

한 줄로 체육관인 줄 알았던 2500년 전 터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 세계 최초의 대학이었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2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발굴·유적**의 말(excavation · remains · site)과 **지성사**의 말(intellectual · philosophers · university)이 ㉠에서 교차한다. 몸의 어휘에서 지성의 어휘로 넘어가는 순간이 정답 자리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site	7	터, 유적지	㉠ 부지 → ㉤ significant site 중요한 터
significant	7	중요한	㉤ most significant sites — 정체 의 무게
excavation	5	발굴	㉢ the excavation uncovered ~ 발굴이 드러났다
remains	6	유적, 잔해	㉢ the remains of a gymnasium — ‘남다’ 동사 아님
intellectual	6	지적인, 지성의	㉤ intellectual culture — 지성으로의 전환
occupy	6	차지하다	㉡ had occupied this spot 그 자리에 있었다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traces of ~ ~의 흔적 · bedrock 기반암 · sanctuary 신전 · gymnasium 체육관 · wrestling arena 레슬링장 · athletics and exercise 운동·단련 · more than just ~ 단지 ~ 그 이상 · the Lyceum 리케이온 · first university 첫 대학

읽기 지문 A와 B — 태도에서 제도로

	지문 A (탈레스)	지문 B (리케이온)
시작된 것	이성으로 묻는 태도	그 이성을 가르친 제도(대학)
전환	종교 → 이성(shift)	몸 → 지성(more than physical)
물려준 것	답이 아니라 방법·기준	운동장이 아니라 배움의 터

A의 “질문하는 태도”가 B의 “대학”으로 자리 잡는다. 탈레스가 연 **이성의 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이라는 제도로 이어졌다 — 서양 지성이 “서는” 두 장면이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이성이 태도에서 제도로

	지문 A · 탈레스	지문 B · 리케이온
무엇의 탄생	철학(태도)	대학(제도)
전환	종교 → 이성 shift · birth of philosophy	몸 → 지성 more than physical
핵심	답이 아니라 묻는 법	운동장이 아니라 첫 대학
문항 열쇠	네모 = 근거 문장	삽입 = X ↔ Y 이음매

A는 “이성으로 묻기 시작한 순간”, B는 “그 이성이 제도로 섰다”. 질문하는 태도가 대학이라는 제도로 자리 잡는 과정 — 서양 지식이 “어떻게 서는가”의 첫 장면이다. 철학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주어진 답을 받지 않고 따져 묻는 법”의 역사다.

근거 어휘 선택·문장삽입, 이렇게 본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어휘 선택(A)	네모 안 두 낱말은 거의 반대말 — 근거 문장으로 한 자리씩 확장·소거
문장삽입(B)	But ... more than just X는 X와 Y의 이음매에 넣는다(몸 ↔ 지성 = ㉠)

둘 다 “앞뒤 문장이 답을 정한다”. 네모는 받는 말을, 삽입은 전환의 자리를 앞뒤에서 찾는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이성·탐구의 말	reason(이성) · inquire into · rationally · birth of philosophy
전환의 말	shift · however · more than just ~ · mark the birth of
유적·지성의 말	excavation · remains · site · intellectual · first university
문항의 표지	어휘선택=근거 문장 · 삽입=X ↔ Y 이음매

- ✓ reason = 이성(이유 아님) · nature = 본질(자연 아님) — 철학 지문의 기본.
- ✓ find A B = A를 B라고 여기다 — found ~ inadequate(불충분하다고 여겼다).
- ✓ But ... more than just X = X ↔ Y 이음매에 삽입(몸 → 지성).
- ✓ 이성은 “태도(A)”에서 “제도(B, 대학)”로 자리 잡았다.

다음 단원 예고 — 고1·2편 UNIT 9로 이어진다. PART 2 「지식은 어떻게 서는가」의 세 번째 장면을 본다.

근대엔 자아도 도덕도 주어지지 않는다.

BEFORE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 도덕은 지켜야 할 계율이라 여긴다.
둘 다 바깥에서 주어진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AFTER

두 지문은 “근대엔 개인이 스스로 조정한다”고 한다. 정체성은 발견할 것이 되었고(지문 A), 도덕은 저울처럼 상쇄된다(지문 B). 자아도 도덕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 되었다.

들어가기 PART 2의 셋째 소재 — 자아·도덕은 어떻게 서는가

PART 2는 **지식이 어떻게 서는가**를 봐 왔다. 이 단원은 그 물음을 “자아와 도덕”으로 옮긴다 — 근대의 개인은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

지문 A는 정체성이다 — 근대 사회에서 선택(직업·결혼·종교)이 늘자, 타고난 역할에 매일 이유가 줄었다. 정체성이 “태어날 때 정해진 것”에서 “발견할 것”으로 바뀌었고, 전통적 역할은 진짜 나를 가린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지문 B는 도덕이다 — 도덕감은 저울처럼 움직인다. 한쪽이 부족하면 다른 선행으로 상쇄하고, 충분하다 느끼면 더 하지 않는다(“저울이 이미 수평”).

A는 **제목**(무엇을 말하는 글인가), B는 **빈칸**(저울 은유의 마지막 칸)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21.11 고1 학평 · 제목	2016.9 고2 학평 · 빈칸
정답률	61%	30%
무엇을 다루나	정체성(자아)	도덕감(도덕)
근대의 변화	타고남 → 발견	계율 → 저울질
열쇠 표현	identity · to be discovered	balancing act · already level

난이도가 학년순이 아니다 고1(A) 61% vs 고2(B) 30%. A는 “타고남 → 발견” 흐름이 뚜렷해 쉽고, B는 **저울 은유**를 끝까지 따라가 빈칸을 은유로 단어야 해 어렵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정체성의 근대적 전환 — 타고남에서 발견으로 (지문 A)

전통 사회에서 “나”는 태어날 때 거의 정해졌다. 신분·역할이 곧 정체성이었다. 근대는 이걸 흔든다.

사회가 역동적이 되고 이동(mobility)이 늘어남

직업·결혼·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타고난 역할에 매일 이유↓

→ 정체성이 “문제”가 됨 —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발견할 것으로

그래서 전통적 역할은 “진짜 나를 가린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선택이 늘수록 “나는 누구인가”가 스스로 풀 숙제가 되는 것 — 근대적 자아의 탄생이다.

개념 2 도덕적 저울과 상쇄 — moral licensing (지문 B)

도덕도 고정된 계율이 아니라 “저울”처럼 다뤄진다.

저울이 기우는 방향	무슨 일이 벌어지나
부족 → 보충	재활용 못 한 죄책감 → 절전 전구로 상쇄
충분 → 정지	충분히 했다 느끼면 더 할 이유가 없음(“이미 수평”)

핵심은 “in your view(당신이 보기에)”다 — 실제로 상쇄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낄 뿐이다. 이 도덕적 면허(moral licensing) 탓에, 착한 일을 한 뒤 오히려 덜 착해질 수 있다.

× 통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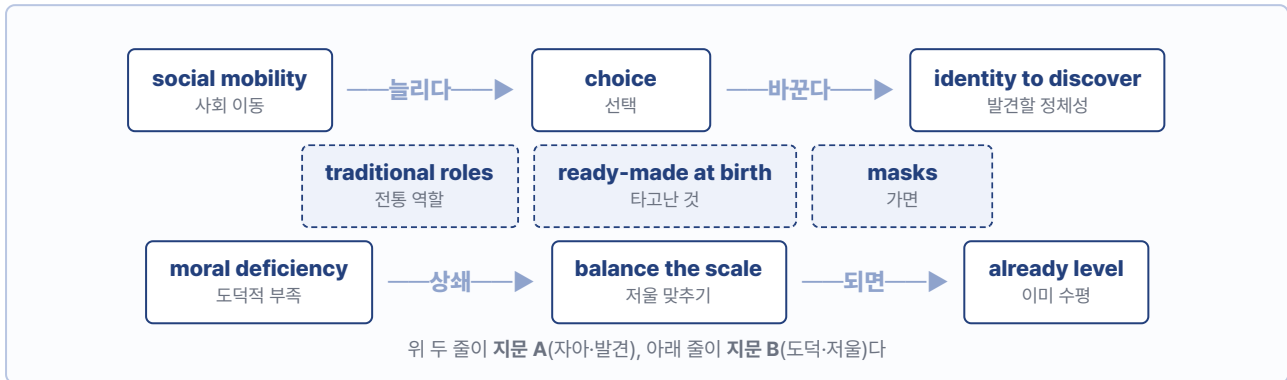
○ 지문이 말하는 것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	근대엔 발견·구성하는 것 (A)
도덕은 고정된 계율	저울처럼 상쇄·조정된다 (B)
착한 일 뒤엔 더 착해진다	충분하다 느끼면 덜 하게 된다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근대엔 개인이 스스로 조정한다.” A는 정체성을, B는 도덕을 개인이 다룬다. 주어진 역할·계율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A) 저울질한다(B). 자아와 규범의 근거가 개인에게 넘어온 것이다.

1 · 주제 어휘망 — 자아의 말과 도덕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자아·선택**의 말(mobility · identity · discover)과 **도덕·저울**의 말(morality · balance · deficiency). 둘 다 “**고정** → **조정**”으로 움직인다.



두 지문이 “근대의 조정”을 두 영역에서 본다

	지문 A (고1)	지문 B (고2)
영역	자아(정체성)	도덕(도덕감)
이전	타고난 역할	고정 계율
근대	발견·구성	저울질·상쇄
문항 유형	제목 — discover identities	빈칸 — is already level

이 단원의 열쇠 표현 — A의 **to be discovered**(발견되어야 할)와 B의 **a balancing act**(균형 잡기). 둘 다 “**진행 중·조정 중**”임을 나타낸다. 정체성도 도덕도 **완성된 명사가 아니라 “하고 있는 동작”**으로 그려진다.

2 · 지문 A — 정체성이 “발견할 것”이 되다

2021.11 고1 학평 · 제목

정답률 61%

8문장 · 평균 20토큰

In modern times, society became **more dynamic**. Social mobility increased, and people began to exercise a **higher degree of choice** regarding, for instance, their profession, their marriage, or their religion. This **posed a challenge to traditional roles** in society. It was **less evident that one needed to commit to the roles one was born into** when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became **not only possible but desired**. Identity then became a problem. It was **no longer almost ready-made at birth** but **something to be discovered**. Traditional role identities prescribed by society began to appear as **masks imposed on people** whose **real self was to be found somewhere underneath**.

* impose: 부여하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What Makes Our Modern Society So Competitive?
- ② **How Modern Society Drives Us to Discover Our Identities**
- ③ Social Masks: A Means to Build Trustworthy Relationships
- ④ The More Social Roles We Have, the Less Choice We Have
- ⑤ Increasing Social Mobility Leads Us to a More Equal Society

제목 정하는 법

글의 사슬은 선택↑ → 전통 역할 흔들림 → 정체성이 “문제”가 됨 → 발견할 것이다. 제목은 이 사슬을 담아야 한다 — ② **Modern Society Drives Us to Discover Our Identities**. **modern society**(원인)와 **discover identities**(결과)가 둘 다 들어간 유일한 선택지다.

오답 한 단어에 끌리면 틀린다

- ① **competitive**(경쟁적) — 지문에 **경쟁** 이야기가 없다 **단소재**
- ③ **Social Masks** — **masks**가 지문에 나오나, 신뢰 관계 수단이 아니라 “진짜 나를 가린 것”이다 **초점 어긋남**
- ④ **역할이 많을수록 선택이 준다** — 지문은 **정반대**(선택이 늘었다) **방향 뒤집힘**
- ⑤ **평등한 사회** — mobility는 나오지만 **평등**은 결론이 아니다 **단소재**

규칙 하나 — 제목은 “지문의 단어”가 아니라 “지문의 사슬”을 담는다. masks·mobility·choice가 그대로 든 선택지 (③④⑤)는 한 조각만 맞을 뿐이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② 근대의 변화 — 선택의 증가 배경

근대 사회는

In modern times, society became **more dynamic**. Social mobility increased,
근대에 사회는 더 역동적이 됐다. 사회 이동이 늘었고,

선택하게 됐다

people began to exercise a **higher degree of choice** regarding their profession, marriage, or religion.

사람들은 직업·결혼·종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선택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choice — 이 글의 원인 선택(choice)의 증가가 이 글의 출발점이다. 직업·결혼·종교 — 예전엔 태어나며 정해지던 것들을 이제 고를 수 있게 됐다. 이 변화가 정체성을 흔든다.

③ ④ 전통 역할이 흔들린다

도전이 됐다

This **posed a challenge to traditional roles**.

이것이 전통적 역할에 도전이 됐다.

즉

It was **less evident** that one needed to **commit to the roles one was born into** when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대안이 실현될 수 있게 되자, 타고난 역할에 매여야 한다는 것이 덜 분명해졌다.

the roles one was born into — 타고난 역할 the roles (that) one was born into = “태어나면서 갖게 된 역할”. **less evident that ~**(~이 덜 분명하다)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완곡한 표현 — 전통 역할의 구속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⑤⑥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 **전환****통제가**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became **not only possible but desired**.

삶의 선택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 됐다.

그러자

Identity then became a problem.

그러자 정체성이 “문제”가 됐다.

became a problem — 이 글의 축 “정체성이 문제가 됐다”가 핵심 문장이다. 선택이 늘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풀어야 하게 됐다. 제목의 **discover our identities**가 여기서 나온다.

⑦⑧ 타고난 발견으로 **제목 근거****더 이상 아니라**

It was **no longer almost ready-made at birth** but **something to be discovered**.

정체성은 더 이상 태어날 때 거의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Traditional role identities began to appear as **masks imposed on people** whose **real self was to be found somewhere underneath**.

전통적 역할 정체성은 사람들에게 씌워진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 진짜 자아는 그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no longer A but B — 방향의 핵심 **no longer A but B** = “더 이상 A가 아니라 B”. A=**ready-made at birth**(타고남), B=**to be discovered**(발견). 이 대비가 제목의 뼈대다.

masks ... real self underneath — 겉(역할·가면) ↔ 속(진짜 나)의 은유로 달는다.

정체 **고1 61%** — 제목은 “사슬”로

원인 — **modern society · social mobility · choice**(선택 증가)

결과 — **identity ... something to be discovered**(정체성 발견)

→ 제목 ② **How Modern Society Drives Us to Discover Our Identities**

규칙 하나 — 제목은 원인과 결과를 모두 담은 것이어야 한다. ③(masks)·④(roles)·⑤(mobility)는 지문 단어 한 조각만 물고 사슬 전체를 못 담는다.

한 줄로 선택이 늘자 타고난 역할의 구속력이 약해졌고, 정체성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에서 스스로 발견할 것이 되었다.